

2021 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적 실천 프로젝트 '가치가게'

2021 가치가게



2021 문화도시조성사업
가치가게

김해문화도시센터

우리와 함께
가치가게 해요

가치가게는 가야로부터 이어져 오는 '공존'과 '환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미래가치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문화도시조성예비사업으로 미래하우스(김해 한옥체험관) ↔ 김해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동상동)를 잇는 가락로 및 분성로 일원을 대상으로 1차 가치가게를 선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김해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며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부원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치가게를 선정했습니다.

2022년 3차 가치가게는 김해 전역으로 대상지를 확대 실시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시도하고자 합니다.

가치가게는 2022년에도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모든 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도시 김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rt

Environment

History

Share

Diversity

History

Art

Environment

*
다들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치가게는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가치
서로 함께하는 가치를 담아 실천하는 가게를 뜻합니다.

가치가게는 사람과 사람, 서로의 다양한 문화,
아름다운 환경 등 함께 즐기며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들을 실천하는 점들이 모여
공존과 환대의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들이 면으로 모여
향후 김해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치가게의 5가지 가치들과 앞으로 지역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가치를 소개합니다.

Diversity

Share

목차



프롤로그 04

가치가게 소개

가치가게란	10
가치가게의 5대 가치 & 실천 방안 예시	11
가치가게 추진과정	12
가치가게 지원내용	13

1차 가치가게

1차 가치가게 지도	16
------------	----

예술

01 마쌤이랑 * 구, 파티세상	18
02 바늘향기	20
03 비둘기영어학당	22
04 월드멀티프라자	24
05 프렌드 여행사	26
06 마봄(내 마음의 봄날)	28

다양성

07 통 주식회사/통 카페	30
08 H2O 가방백화점	32
09 ㈜아이원에셋	34
10 이습토스트	36

역사

11 하이담커피	38
12 김해 다레원	40
13 잉글랜드	42
14 만리향	44
15 선교산업사(목욕타월)	46

환경

16 르안타이	48
17 마이소스	50
18 피카타임	52
19 솜소미네일	54
20 미유	56

나눔

21 동네한바퀴	58
22 E9 Pay 김해대리점	60



2차 가치가게

2차 가치가게 지도	64
------------	----

예술

01 여산아프리에	66
02 근사한 공간	68
03 밀키와 친구들	70
04 도예공방 스페이스 봄	72
05 힐링아트	74

다양성

06 다다네 식탁 김해점	76
07 비바케밥	78

역사

08 한일참기름	80
09 두발로	82

환경

10 팔리오	84
11 향기제작소 김해점	86
12 정혜주 솜 공방	88

나눔

13 남산별곡	90
14 파란풍차 과자점	92
15 카페 오도라	94
16 광성세탁소	96
17 마미커피하우스	98
18 모아헤어아트	100
19 보성이발소	102
20 민아헤어샵	104
21 장수돼지국밥	106
22 다비치안경 보청기 김해부원점	108
23 수작업실	110

가치크루 112

에필로그 124

가게 이용 편의 안내

- 외국어 안내표기 (외국어 메뉴판 제공)
- 경사로 (경사로 있음 혹은 문턱 없음)
- 장애인화장실 (시설 있음 혹은 인근 시설 이용 가능)
- 주차장 (시설 있음 혹은 인근 주차장(무료) 이용 가능)
- 텀블러 할인 (텀블러 지참 시 할인 가능)



가치 가게란?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도시의 오래된
미래 가치인 <공존>과 <환대>를
실천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가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5대 가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치와 그 가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사람과 사람,
서로의 다양한 문화,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며
살아가기 위한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 Art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담은 공간

-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팝업스토어, 작품 전시공간 제공
- 문화 활동을 위한 유휴 공간 공유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예술인 할인제도 도입



역사 History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가치를 담은 공간

- 도시와 개인의 역사를 잇는 한 우물 가게
-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공간
- 지역의 역사와 연관된 특산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공간



다양성 Diversity

모두를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공간

-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간 구성
- 외부적 요인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지 않는 공간 운영
- 내·외국인, 시각장애인 등 모두의 편의를 위한 언어 표기
- 채식(비건) 등 개인 취향에 대한 존중



환경 Environment

과거로부터 전해진 아름다운 환경의 가치를 담은 공간

- 재활용품 사용 실천 진행 (텀블러 사용 권장 등)
-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및 사용
-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환경미화, 녹지조성 등)



나눔 Share

나눔을 통해 행복을 함께 나누는 가치를 담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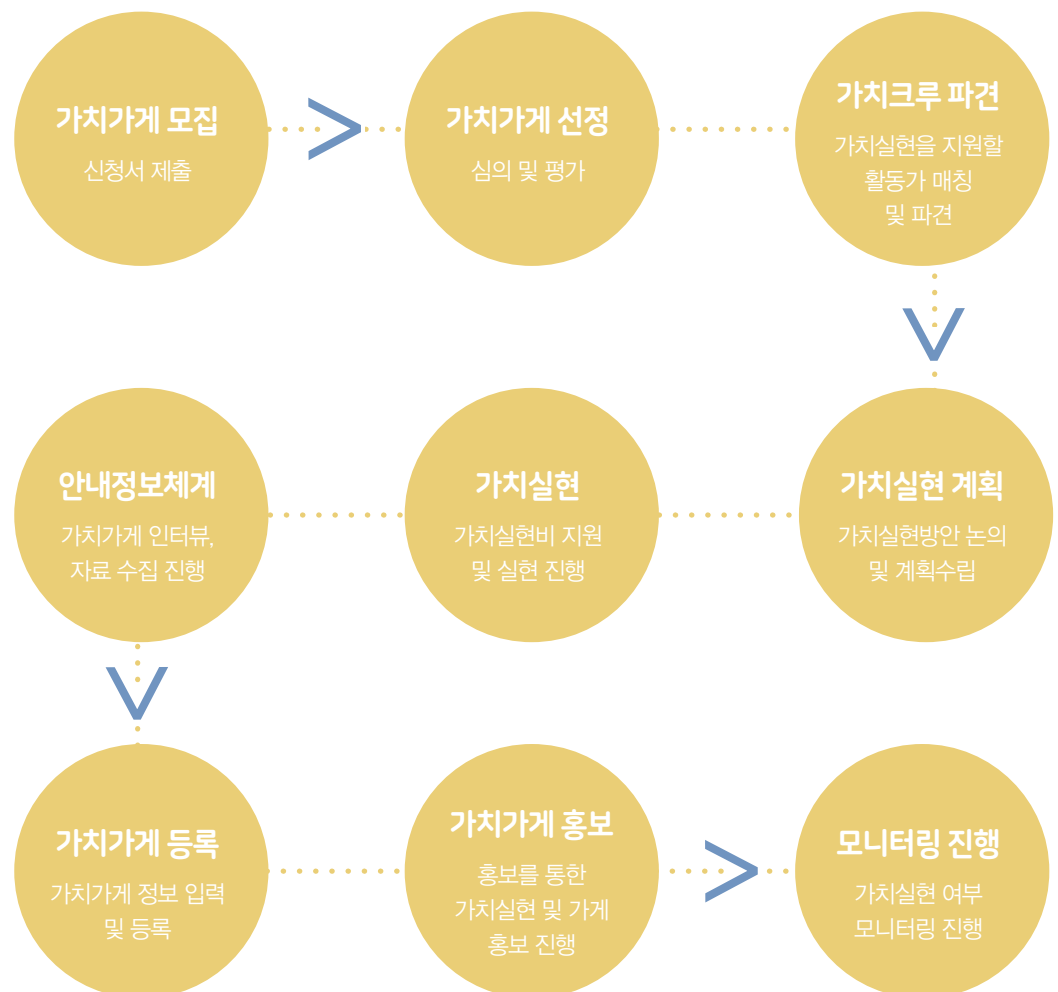
-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진행
- 이웃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무료 책 대여 등
- 첫 손님 가게의 가치 실현

가치가게의 5대 가치 & 실천 방안 예시

※ 가치 실천 방안 예시는 하나의 예시일 뿐 가게 및 주인장이 가진 가치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게 추진과정



가치가게 지원내용

가치가게 선정 및 등록

가치실현 비용 30만원 지원

가치가게별 가치크루 파견

가치가게 다비치안경보청기 영상 제작

가치가게는...
가치가게 홈페이지

지면 인터뷰 (웹진)

참여 가치가게 인터뷰 및 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 진행

가치가게만의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안내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홍보 진행



1차 가치가게

미래하우스(김해 한옥체험관) ↔ 김해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동상동)를
잇는 가락로 및 분성로 일원



미래하우스(김해 한옥체험관) ↔
김해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동상동)를
잇는 가락로 및 분성로 일원

1차 가치가게

예술

- 1. 마썸이랑 * 구,파티세상
- 2. 비늘향기
- 3. 비둘기영어학당
- 4. 월드멀티프라자
- 5. 프렌드 여행사
- 6. 마봄(내 마음의 봄날)

다양성

- 7. 통 주식회사/통 카페
- 8. H2O 가방백화점
- 9. (주)아이원에셋
- 10. 이습토스트

역사

- 11. 해이담커피
- 12. 김해 다레원
- 13. 잉글랜드
- 14. 만리향
- 15. 선교산업사(목욕타월)

환경

- 16. 르안타이
- 17. 마이소스
- 18. 피카타미
- 19. 솜소미네일
- 20. 미유

나눔

- 21. 동네한바퀴
- 22. E9 Pay 김해대리점



가야중학교



김해가야고



임호중학교



수로왕릉역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민속박물관



미래하우스
(김해한옥체험관)



수로왕릉



21. 동네한바퀴



11. 해이담커피



15. 선교산업사
(목욕타월)



02. 비늘향기



01. 마썸이랑



03. 비둘기
영어학당



12. 김해 다레원



06. 마봄
(내 마음의 봄날)



17. 마이소스



18. 피카타미



19. 솜소미네일



20. 미유



김해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07. 통 주식회사/통 카페



08. H2O
가방백화점



09. (주)아이원에셋



13. 잉글랜드



10. 이습토스트



14. 만리향



22. E9 Pay
김해대리점



04. 월드멀티
프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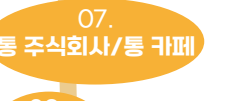
05. 프렌드
여행사



청년물
동춘씨



동상동 전통시장



07. 통 주식회사/통 카페



08. H2O
가방백화점



09. (주)아이원에셋



10. 이습토스트



13. 잉글랜드



14. 만리향



22. E9 Pay
김해대리점



04. 월드멀티
프라자



05. 프렌드
여행사



청년물
동춘씨



동상동 전통시장



07. 통 주식회사/통 카페



08. H2O
가방백화점



09. (주)아이원에셋



10. 이습토스트



13. 잉글랜드



14. 만리향



22. E9 Pay
김해대리점



04. 월드멀티
프라자



05. 프렌드
여행사



마샘이랑 * 구,파티세상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31



공예품에 깃든 '예술의 가치' 나누고파

“여기 수로왕릉 거리가 저의 공방을 중심으로 ‘아트프리마켓’의 중심지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마샘이랑 마복기 대표의 꿈이다. 수제 비누와 향수, 자수가 놓인 쿠션 등 작가의 정성이 담긴 공예품들이 수로왕릉 돌담길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웃음으로 활기가 넘치는 거리. 그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마샘이랑’을 찾았다.

‘공예’ 그 운명적 만남

가락로93번길, 수로왕릉 담벼락을 따라 걷다 면 담벼락 끝 자락에 눈에 띄는 가게를 만날 수 있다. 동화책에서 나올법한 아기자기하고 강렬한 파란색 간판이 발길을 사로잡는다. 다양한 공예품을 볼 수 있는 ‘마샘이랑’ 공방이다. 공방 안에



들어서자 동화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다양하고 화려한 공예품들과 알록달록한 크고 작은 수많은 공예품 재료가 가게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마복기 대표가 이곳의 문을 연 건 2006년, 올해로 15년째다.

“저는 전직 은행원 출신입니다. 다들 의아해하지요. 공예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나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참으로 우연한 기회로 공예를 만나, 공예를 한지 벌써 2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마 대표는 과거 은행원을 하면서 벌여놓은 돈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미국으로 떠났다. 우연히 미국의 축제장 길거리에서 피에로 분장을 한 채 풍선을 나눠주는 외국인을 보았다. 풍선을 받아서 든 어른들이나 아이들 모두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풍선 공예에 관심이 갔다. 이후 마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와 풍선 공예를 배웠다. 풍선공예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가죽공예, 비즈공예, 천공예, 목공

예 등 30여 개 공예 기술을 익히며, ‘토탈 공예’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마 대표는 “풍선공예를 시작으로 공연기획, 축제 기획 등 사업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도 큰 타격을 받았지요. 지금은 확장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공예에 관심 있어 하는 개인들을 위한 수업, 체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고 말했다. 마 대표는 손으로 무엇을 만들 때 그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하다 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는 공예 하는 걸 놓치지 않은 생각이다.

“공예는 정말 매력적인 분야이지요. 공예를 하는 동안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치유됩니다. 아이들에게 공예를 가르칠 때면 제게 순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공예품에 깃든 ‘예술의 가치’

아기자기하고 예쁜 물건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작가가 만든 예술품은 가치를 인정받고, 예술품을 받아 든 사람은 기쁨을 느낀다. ‘예술의 가치’가 빛을 보는 순간이다. 마 대표는 가락로 93번길을 따라 이어진 수로왕릉에서 ‘예술의 가치’가 반짝 빛나길 바란다.

마 대표는 “여기 수로왕릉은 김해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 돌담길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 공방을 중심으로 많은 공예 예술가가 활동하여 이 수로왕릉 돌담길이 시민들에게서 사랑받는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수로왕릉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 체험 거리를 많이 개발했으

면 해요.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된다면 거리는 활기로 가득차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마 대표도 처음 풍선 공예를 시작하며 오로지 수익만을 생각한 때가 있었다. 공예에 몸담은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는 더 많은 수익 창출보다 공예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 지원과 응원에 더 힘을 더 쏟고 싶어 했다. 그는 “김해 공예협회 초창기 회원이었어요. 공예협회를 통해 많은 공예 미술을 하는 후배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작은 힘을 보태고 있죠.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공예를 하는 후배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졌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마 대표는 작가의 정성이 깃든 공예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길 희망했다.

“공예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자의 흥미나 취향에 맞는 공예를 선택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김해시의 가치가게 프로젝트를 통해 조금은 생소했던 이 공예 미술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져서, 공예가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예 예술의 가치가 활짝 꽃 피우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바늘향기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19-2
전화 055-326-3690



바느질, 사람을 잇다.

소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천을 자르고, 바느질로 천을 이어 붙인다. 엉덩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이고 앉아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만들어진 모시 밧, 조각보, 이불, 가방, 인형 등 각종 소품이 아기자기하게 바늘향기 공간을 채우고 있다. 겉보기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소품이지만, 그 안에는 만든 이의 정성이 가득 담겨있다. 20년 동안 바늘을 놓지 않고 있는 바늘향기 함정순 대표를 만났다.

'내가 잘 아는 일을 해보자'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바늘향기 함정순 대표의 딸이 출근하는 그를 보고 말했다. 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함 대표에게 바늘향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의 첫째가 열 살이 될 무렵인 2002년 그는 내동에 도자기와 보이차를 판매하는 가게 문을 열었다. 가게를 운영하려면, 물건을 잘 파는 영업 기술(?)이 필요했다. "이 제품은 어떠세요?" 함 대표는 처음 본 사람에게 이 말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영업은 쟁쟁이었다. 대학시절 의상디자인을 전공했던 그는 '내가 잘 아는 걸 해보자'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바느질'이었다. 함 대표는 가게를 차려 바느질을 꾸준히 해오다 2017년 동상동 김수로왕릉 앞에 '바늘향기'이란 상호로 가게 문을 열었다. 함 대표는 "바느질을 놓은 적은 없지만, 둘째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의 삶에 최대한 집중했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줬죠. 첫째는 비올라, 둘째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인이 된 아이 둘은 함 대표의 자부심이자 보람이죠. 육아를 졸업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



을 몰두하며, 날마다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며 웃었다. 바늘향기는 바느질로 할 수 있는 각종 소품으로 차곡차곡 채워졌다. 행거에는 원피스와 앞치마가, 침대에는 쿠션과 이불, 베개가, 벽면에는 자수가 액자에 담겨 걸려있었다. 바느질은 공동이를 붙이고 오랜 시간 앉아 집중해야 하는 일이다. 혼자 하는 일이 외로울 법도 한데 함 대표는 바느질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며 웃었다. "바느질은 저를 지켜온 힘이에요. 육아를 하면서 제가 흐트러지지 않게 바로 세워주는 힘을 바느질로 얻었죠. 저는 종교는 없지만, 바느질은 어떤 상황에서든 저를 놓지 않도록 잡아준 기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담긴 마음

매주 한 번, 바늘향기를 찾는 수강생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바느질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낸다. 수강생은 대부분 50~60대다. 바느질하며 일주일 동안 쌓아둔 수다 보따리를 한껏 풀어놓는다. 바늘향기는 자연스럽게 수강생의 사랑방이 된다. 함 대표는 "저희 바늘향기에는 10년 넘게 수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바느질하며 자연스럽게 세상 사는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1년에 한 번씩 함께 여행도 떠나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웃고 즐기며, 여행까지 떠나니 얼마나 좋아요"하며 웃었다. 바늘향기에서는 모시 밧을 비롯해 조각보를 이어서 만드는 조각보와 소품 들 자수를 예쁘게 수 놓아 만드는 가방 파우치, 인형 등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모든 지 만들 수 있다. 수강생이 만드는 소품 대부분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다. 바느질한 땀 한 땀에 만드는 이의 정성도 들지만, 남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즐거움도 함께 담겨 있다. 그는 "한 수강생은 10년 내내 이불을 만들어 주위에 선물하

기도 했어요. 수강생들이 소품을 만들어 선물 대상을 생각하죠. 바느질은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남도 즐겁게 만들어요"라고 말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바느질

바늘향기는 지난 시간 동안 찾는 이들의 사랑방이자, 행복을 찾는 공간, 휴식의 공간이 돼 왔다. "내동에 가게 문을 열고, 여기로 옮겨 왔을 때도 20년 동안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이 있어요. 그분은 수줍음이 많아서, 손님이 없을 때만 찾아오시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오면 참 행복해요'라고요. 그분 말을 듣고 저도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바늘향기가 행복의 공간이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바늘향기는 예술을 가치로 가치기계에 참여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예술은 '미적 작품을 형성하는 인간의 창조활동'을 말한다. 바늘향기는 실과 바늘만 있으면 모든 예술이 가능한 공간이다. 바늘향기는 바느질로 사람을 잇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 온 것이다. 함 대표는 '지금처럼' 바늘향기를 운영해 나가고 싶었다.

함 대표는 "자식들 다 키워 독립시키고 50~60대가 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잖아요.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비슷한 또래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죠. 게다가 이제 다들 할머니가 되다 보니, 손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좋은 할머니가 되는 게 모두의 바람이죠"라며 웃었다. 이어 그는 "저도 곧 태어날 손녀를 위한 선물을 만들 참이에요. '지금처럼'을 유지하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바늘향기를 웃음이 넘치는 공간, 나눔이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





비둘기영어학당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19-2
전화 055-322-0029



우리가 함께한 순간

비둘기 영어학당은 오대양 육대주를 두루 경험하고 돌아온 변선령 대표가 8년간 운영하고 있는 학당이다. 봄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은 돌담길을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는 가치가게. '예술'을 가치로 선택한 그곳에서 변선령 대표를 만나 그가 걸어온 추억의 길을 함께 거닐었다.

거기서부터 한 발 한 발

사춘기 시절과 이십 대 청춘, 그는 캐나다, 유럽,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 거주하며 공부와 일을 했다. 오랜 외국 생활을 접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 서른이 넘는 나이였다. 부모님을 따라 김해에 살게 되고, 통역가로 얼마간 활동하다가 바쁜 스케줄에 몸이 안 좋아져 일을 놓았다. 그리고

8년 전 어느 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물음표를 품고서 수로왕릉을 거닐었다. "엄마랑 산책했는데, 이곳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일하고 싶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할지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가게를 열어버렸죠."

여기저기 떠돌며 지친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뿌리내릴 곳을 찾은 것일까. 허나 주위 반응은 냉담했다. 있는 것이라곤 노인과 비둘기뿐인데 뭘 할 거냐는 핀잔이었다.



그래도 그는 내디딘 첫발을 물리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한 발 한 발, 작은 도전들로 새 삶이 이어져 나간 것이다. 비둘기 영어학당이라는 이름도 그때 지었다고 한다. "조금 단순하고 소박한 이름을 원했어요. 새마을호 무궁화호보단 못하지만, 추억 속의 비둘기호가 마이너한 제 감성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고속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에서 이름을 따온 것도, 작고 소박한 것부터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예술이라는 그의 철학이 묻어난 것이다. 초창기에는 영어학원 이름이 이상하다며 사람들이 웃는 바람에 주눅 들고 부끄러웠지만, 점점 학당이 번창해가면서 동네에 조금 있던 비둘기들도 지금은 꽤 많아지고 자신감과 뽀뽀함도 그만큼 커졌다며 그는 활짝 웃어 보였다. 선생님을 따라 배우는 이들도 점점 뽀뽀해져 간다는 말과 함께.

소박해서 행복한 영어

학당 수업은 토론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학당이 선택한 가치 '예술'에 대한 토론을 하려면 영어실력이 상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회화 실력이 좋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하세요. 근데 레브란트나 피카소를 논하는 것이 예술 이야기가 아니라, BTS 얘기를 해도, 여기 가이문화축제 얘기를 해도 그게 예술 이야기거든요." 뭔가 대단한 예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술, 평범한 예술을 논하고 싶었다. 삶의 여정을 통해 본새, 즉 태도나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그는 7:1 토론 수업을 '뽀새살롱'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특유의 위트와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는 이들과 함께 다채로운 방식으로 화두를 풀어나간다. 토론자들은 영어라는 제2의 언어를 통해 또 다른 내가 되어 여러 주제를 서로 교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영어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학당이 내건 슬로건도 남달랐다. '등 따시고 배부른 영어'가 그것이다. '돼지국밥 따뜻하게 한 그릇 먹고 뜨끈한 이랫목에 누우면, 그 얼마나 행복하고 소소해요. 로또에 당첨되고 그런 건 아니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영어가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운 영어가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는 만큼만 매일의 일상에 스며드는 영어, 소박하게 행복할 수 있는 영어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었다.

학당 유리벽을 장식하고 있는 가치가게 미니부스에는 미니멀 디자인의 아날로그 벽시계가 전시되어있었다. 하늘에서 솟아 탕이 몽실몽실 돌아가는 몽환의 다이얼. 거리에 뽀얗게 내려앉은 봄별이 실오라기가 되어 솟아탕에 감기고 있었다. "애 시간이 예뻐 수 있겠구나! 정민지 도예가님의 시계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중에서 가끔씩 너무 예쁜, 그래서 박제하고 싶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들도 어김없이 흘러가겠지만, 예쁘게 모여 추억으로 경험으로, 아름답게 남아있겠죠." The Moment We Shared,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리라. ☺

학당 유리벽을 장식하고 있는 가치가게 미니부스에는 미니멀 디자인의 아날로그 벽시계가 전시되어있다.





월드멀티프라자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 335번길 11
전화 055-324-6885



‘다채로움’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게

‘공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공존의 사전적 의미다. 공존의 의미는 잘 알지만, 일상에서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위한 ‘이타심’이 마음에 자리잡아야한다. 동상동 ‘월드멀티프라자’ 류혜영 대표는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깨닫고, ‘공존’의 의미를 몸으로 익혀왔다. ‘편견’과 ‘낯섦’을 넘어, 외국인들을 환대하는 월드멀티프라자를 찾았다.

단순한 쇼핑물 이상의 서비스

월드프라자 입구에 다양한 핸드폰이 진열되어 있다. 안쪽에는 다리미, 전기밥솥, 이발기, 재봉틀 등의 소형가전, 요즘 내국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밉크 이불, 각종 영양제와 옷

가지 등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돼 있다. 월드멀티프라자는 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외국인들은 친구,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찾는다.

월드멀티프라자는 ‘World(월드) : 세계, multi (멀티) : 다채로운, plaza(프라자) :쇼핑센터’ 이름에 이곳의 성격이 함축돼 있다. 전 세계에서 김해를 찾아온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다채로운 물건을 판매하는 작은 쇼핑 공간이다. 류 대표는 10년 전 이곳의 문을 열었다. 동상동이 한창 김해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로 북적일 때였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만 판매했었어요. 그러다 물건을 하나씩 들이면서 지금처럼 생활 잡화, 소형 가전, 핸드폰 등을 팔게 됐죠. 미용기와 재봉틀이 정말 잘 팔려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종종 집에서 머리 커트를 해주셨잖아요. 미용실 등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머리 자르는 일이 없어졌죠. 하지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은 집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재봉틀을 이용해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더라고요.”

‘밍크 담요’ 역시 월드프라자의 효자 상품이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물건이지만, 밉크 담요는 미국 온라인쇼핑사이트 ‘아마존’에서 ‘코리아스타일 밉크 벨벳 블랭킷(Korean Style Mink Velvet Blanket)’로 인기상품 순위에 올라있다. 호랑이, 꽃, 표범 등 강렬하고 화려한 무늬의 담요가 외국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다.

류 대표는 “어릴 때 외갓집 가면 밉크 담요, 두꺼운 밉크 담요 이런 게 지금은 한국에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밉크 담요를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담요를 만들어 내는 한국 기술이 좋아서 많이들 선호합니다”고 설명했다. 월드멀티프라자는 물건을 사서 자국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외국인을 위해, 택배 서비스도 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이 이곳을 찾는 날이 대부분 주말이에요. 하지만 주

말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곳 찾기가 흔치 않죠. 해외 배송을 힘들어하는 외국인을 위해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가게 한 벽면에 배송을 기다리는 택배가 빼곡히 쌓여있었다. 이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거의 없다. 가족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끼꺼이 택배 일을 대행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

류 대표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말하면 가게에 당장 있지 않아도 어떻게든 구해서 찾아 준다. 당장 매출 보다 그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류 대표는 물건뿐 아니라 외국인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보니 타국에서 소소한 불편 사항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다 보니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쁩니다”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가게에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가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류 대표의 배려다. 그래서인지 월드멀티프라자는 늘 외국인으로 북적인다.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교류가 활발하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이제는 외국인을 나와 다른 외지인으로 볼 게 아니라 함께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류 대표가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강해 안타깝다 했다.

류 대표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도 누군가의 아빠고, 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굶은일 도맡아 해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고마움을 가졌으면 해요”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계를 좁히고자, 가게 안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그 공간에는 외국인들이 만든 작품과 다른 나라의 전통 물품을 전시해뒀다. 각 나라의 자국어로 쓰인 인사말도 붙여 있다. 그는 동상동이 서울의 이태원처럼 다채로운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거리가 되길 바랐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공존은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인사는 곧 의사소통의 시작이죠. 외국인이 한국어로 인사하면 반갑듯이, 한국인도 외국인에게 자국 인사말을 해주면 반기워하죠.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노력이 모여 동상동이 서울의 이태원, 경기도 안산의 외국인 거리처럼 전 세계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사람과 사람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될 거로 생각해요. 저도 힘닿는 데까지 애써보겠습니다(웃음).”





프렌드 여행사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86번길 10
전화 055-324-6885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여행사

김해시 서상동에는 조금 특별한 여행사가 있다. 국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김해 여행지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여행사 업무는 물론, 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돕는 일에도 기꺼이 나서는 1차 가치가게 ‘프렌드 여행사’다. 그 이름처럼 모두에게 편안한 친구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최혜숙 대표를 만났다.

친구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원도심으로 불리지만 한때 김해의 대표적인 시내로 손꼽히던 김해중앙상가 입구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활짝 문 열린 가게가 보인다. 최혜숙 대표가 운영하는 프렌드 여행

사다. 종로길(로데오거리)에서 10여 년 동안 자리를 지켜 온 이곳은 국내외 여행상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항공권, 국내인 대상 골프 여행 등을 취급한다.

“원래 여행사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여행업이 재밌기도 하고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해 여행사 문을 열었죠. 가게 이름은 제가 정했습니다. ‘프렌드’라는 단어가 누구나 알 만큼 쉬운 단어면서 발음도 편하잖아요. 무엇보다 고객들이 친구처럼 오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죠.”

프렌드 여행사는 마을의 외국인들에게는 어려울 때 들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이다. 사소하게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센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부터 행정업무, 은행 업무 등을 돕는다.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그 친구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 항공권을 구매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고객으로 인연을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알게 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된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고,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하기도 하죠.”

이는 ‘사람을 남겨라’라는 최 대표의 가게 운영 철학과도 연결된다. 프렌드 여행사가 단순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유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인도네시아 친구 A예요. 그 친구가 본국에 들어가면서 제 명함을 들고 가선, 거기에 있던 친구 B한테 제 명함을 전해줬나 봐요. 어느 날 B가 제 명함을 가지고 와서 A에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B 친구는 그때가 한국 첫 방문이었는데, 그만큼 A에게 제가 힘이 됐으니 B에게도 소개한 거겠지요? 참 감동이었고, 보람 차는 일이었습니다.”



함께라는 가치를 위해

프렌드 여행사는 2020년 선정된 1차 가치 가게다. 가치가게를 모집하던 당시, 프렌드 여행사가 속한 로데오상가변영회 차원에서 가치가게를 활용해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가게들이 모인 특별한 상가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였다.

“프렌드 여행사의 가치는 예술과 다양성이었어요. 세계 각국 여행자들의 문화예술이 담긴 관광상품을 가게 내에 전시하고, 김해의 문화예술 유적지나 공간 사진 등을 벽에 걸어 방문객에게 안내했죠. 거기에 더해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방문해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여행 자체가 어려운 시국이 되어 버려서 관광상품이나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대신 프렌드 여행사 곳곳에는 다양성의 가치가 숨 쉬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익숙한 외국 주전부리가 놓여 있고, 안쪽 책장에는 여행을 다녀오거나 본국에

다녀온 외국인 친구들이 선물한 나라별 술병이 서 있다. 친구들이 오가며 쌓아온 흔적이다. 특히, 최 대표가 자랑하는 건 한쪽 구석에 설치된 핀 조명이다. 커다란 거울과 흰색 배경 천까지 조성돼 조명을 켜고 천을 내리면 좁지만 그럴싸한 촬영 공간이 된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어요. 조명에 배경만 있는 건데도 평소에 찍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두셋씩 짝지어 들어가 핸드폰으로 찰칵거리면서 웃는 소리 들으면 저도 좋죠. 여행사에 웹 촬영 공간이나 할 수도 있지만, 방문하는 즐거움을 더하는 거죠.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 공간을 할애해 간단한 전시 같은 거라도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최 대표의 노력은 프렌드 여행사뿐만 아니라 종로길 전체가 방문객들에게 ‘오고 싶은 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닿아 있다. 방문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가에 활기가 돌고, 프렌드 여행을 찾는 친구들도 많아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많고, 풍경도 이국적이어서 종로길을 ‘제2의 이태원’이라고들 해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지요. 실제 창원, 마산 등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명절이나 휴가에 본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김해에 와서 시간을 보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시민 입장에서 외국 음식점, 잡화점 등은 물론, 시장에도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외국 채소들을 볼 수 있으니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외국인 할 것 없이 함께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어, 예전의 활기를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봄 (내 마음의 봄날)

주소 경남 김해시 구지로180번길 25, 308호

전화 0507-1327-4125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violetpupil>



사는 게 '문화' 모든 게 '가치'

'내 마음의 봄날'의 줄임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 예술, 나눔, 환경 세 개의 가치를 선택한 가치가게 마봄. 자칭 마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마봄 대표 박보연 씨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나눔에 의미를 더하다

김해 동상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에 조금 특별한 매장이 하나 있다. 연보랏빛 외관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곳, '마봄'이다. 그런데 가게 이름을 봐도 매장 안을 들여다봐도 무엇을 하는 곳 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제가 마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마음 돌봄 서비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로부터 컬러, 영화, 음식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나다운'을 찾아보는 곳입니다."

박보연 대표의 상담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했으며, 상담 일을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됐다. 마음 돌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그 시절, 그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자신의 경험 때문이다.



"20대 때 조금 긴 시간 동안 힘들었거든요. 멘탈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 했을까 싶었어요."

그는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그들의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눈다. '나눔'이라는 가치를 그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매장 한 편에 전시함으로써 공간을 나누고 있다. 거기에 핸드메이드 제품을 개인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 나눔'도 구상 중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소식이 담긴 책자와 리플릿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비치해 '예술'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으로 '환경'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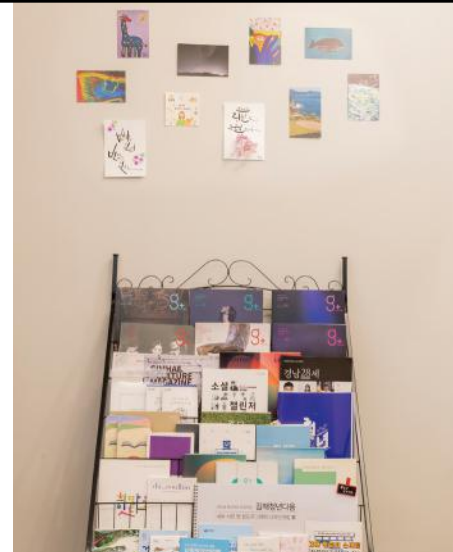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마봄이 청년몰에 입주할 때, 가치가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비수했다. 그걸로 장사가 되겠냐고, 돈은 벌겠냐고, 별걸다 한다고, 그러나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단어의 의미는 달라진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런 공간과 상담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복지라는 개념으로 퍼져나갈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보니, 제가 가치가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 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가치'라는 단어를 봐달라고 했어요."

문화·예술 관련 청년활동가이기도 한 박보연 씨는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사는 게 다 문화'라고, 그리고 그는 가치가게 역시 문화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 다르거든요. 가치가게는 그런 가치들을 존중해주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가치는 주목받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문화



라는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고 가치가게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가치를 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 혹여 그런 기준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자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치가게가 발전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이처럼 박 대표는 어떤 가치들이 있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

마봄으로 활동한 지 어느덧 3년 차, 마음 돌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졌고 그의 활동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하나둘 늘어 나고 있다. 박 대표는 '가치'를 해석하는 자신의 방식이 끼워 맞추기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가치'라는 것이 정형화될 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의 해석이든 그 해석이 이로운 방향이라면 그게 진정한 '가치' 아닐까. ☺





통 주식회사/통 카페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94번길 7



나와 너를 이어주는 공간

‘통하다’라는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통할 통(通)’을 따 이름 지어진 통 카페 역시 그 이름에 걸맞게 너와 나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이어주는 등 많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통 카페의 시작

2012년 1월 문을 연 ‘통 카페’는 ‘통 주식회사’라는 사회적 기업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4호점까지 운영 중이다. 4호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1호점 운영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일 터. 하지만 1호



점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선, 1호점은 서상동 골목에 위치했는데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많이 다녀서) 골목이 무섭다는 이유로 찾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카페는 아무래도 주말에 손님이 많은데, 직원들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에 카페 문을 열지 않았다. 당연히 매출은 안 좋았고 1호점은 시작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여러 이유로 주변 상인들과 갈등까지 있었다는데, 이때 이곳 관계자가 오미숙 씨(현재 통 카페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렇게 2012년 6월부터 카페 운영을 맡게 된 오미숙 대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던 그는 카페 운영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가 카페를 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리 홍보였다. “이 동네에 있는 가게를 알리기 위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근무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가게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도 직원도 고된 일이지만

명절에도 문을 열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명절에 갈 곳이 없다보니 여기라도 와서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날에는 약밥이나 편육을 나눠 먹기도 한다고. 뿐만 아니라 동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체험 코스를 만들어 주는 등 여러 기획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 활동 덕분에 주변 상인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국적이 아니라 고향이 다른 우리

오미숙 대표에게 통 카페 운영 제안이 왔던 것과 제안을 받아들였던 건, 그가 이주여성들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창 우리나라로 이주여성이 많이 왔을 때, 2008년과 2009년에 김해 여성 자치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라는 사업을 추진했다. 말이 잘 통하지도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친정 엄마가 되어 작은 도움이라도 주자는 거였는데, 오미숙 씨는 이 사업을 함께하며 이주여성과 다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됐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때 가족이 된 사람 중에는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통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도 그때 인연이 된 친구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 국인이죠. 고향이 필리핀이고, 베트남인 거예요.” 오 대표는 남편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3년 동안 가족이 떨어

져 살아 봤기에 누구보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티베트,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등 여러 곳을 다녀 본 경험으로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없었다. 그래서 외국인이 무섭다는 말을 들을 때면 들려주는 일화가 있다. “외국인이 삼삼오오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웃으면서 같이 인사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갈 때 똑같이 인사를 하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당연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야기다. 이처럼 그의 행보가 가치가게의 취지와 일맥상통했기에 통 카페가 가치가게에 참여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문화, 다문화 하다가 ‘문화 다양성’, ‘다양성’으로 넘어왔잖아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가 각각 다르듯 포괄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는건데 아직까지 다양성이라고 하면 다문화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 대표는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의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응원한다. ☺





H₂O 가방백화점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 335번길 13
전화 055-321-7894



내일이 더 기대되는 거리

H2O, '물'을 의미하는 원소기호다. 가방 가게 이름으로 기억하기에는 생경할지 몰라도, 로데오거리에 가방백화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곳에 오랜 세월 끈고 굳은 마음으로 거리를 지키고 있는 이충희 대표가 있다.

빛을 보기 시작한 노력

“에이치오? 에이치오투? 단골 중에도 가게 이름은 기억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이름을 바꿔볼까도 했지만 어찌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요.”

H2O 가방백화점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 중 손에 꼽히는 규모다. 그만큼 거의 모든 종류의 가방을 구비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이 대표는 30년 가까이 이곳 한 자리에서 손님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확연히 줄었다. 그런데 상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매장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로데오거리가 더 걱정이다. “저는 로데오거리가 먼 훗날까지 서로서로 잘 어울려 지내고, 사람들로 붐비는 행복하고 활기찬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로데오거리에는 한동안 상인회가 없었다. 15~16년 전 상인들의 친목 모임과 거리 활성화를 위해 ‘로데오 상인회’를 구성했고, 상인회는 로데오거리를 오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 거리의 가로등을 꽃으로 장식하고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를 설치했다. 상인들이 심시일 반 모은 돈으로 거리 안에 작은 공원(일명 쌈지공원)도 만들었다. 이처럼 깨끗한 거리, 안전한 거리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덕분에 거리는 정비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그들의 노력은 거리를 계속 쾌적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로데오거리가 형성되었던 초창기에는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고, 이 대표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으로 이곳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기 상인들을 보면 다 가족 같은 좋은 사



람들이예요. 외국인인 운영하는 가게가 생기기 시작한 초반에는 기본적인 규범 같은 걸 잘 모르다 보니 과도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질서가 많이 잡혔어요.” 그는 가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준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서로가 있어 존재하는 거리

로데오상인회는 김해이주민의집과 협의하여 몇 해 전부터 쌈지 공원에서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가 열리면 음식을 나눠 먹고, 케이크 커팅식과 공연도 한다. “그들을 환영하는 마음도 담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니 보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대표는 가치거리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웃인 외국인들에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규범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인들과 함께 거리 환경미화에도 신경써왔다. 그리고 가치거리에 가기 중 ‘다양성’을 선택했다. 가치거리에 참여한 후에는 ‘함께하는 거리’를 위한 문구를 나라별 언어로 기재한 안내판을 제작해 곳곳에 부착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의 거리를 보여주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달려오면서 지칠때도 있었다. 하지만 로데오거리를 생각하는 마음과 책임감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군대에 갔을 때 빼고는 김해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H2O 가방백화점)가 예전에는 중국집이었어



요. 졸업식 날 여기서 짜장면을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 제가 여기서 가게를 하게 됐네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로데오거리에) 애착이 있죠.” 지금의 로데오거리가 있기 전부터 이곳의 역사를 보고 겪은 그이기에 자신보다 거리가 더 걱정이라는 그의 말이 진심으로 와닿는다.

‘물, 불, 흙, 바람’은 지구를 이루는 제4원소라고 한다. 이 대표가 로데오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로데오거리를 이루는 원소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 대표 못지않게 로데오거리를 지키고 싶은 상인들과 이곳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로데오거리를 이루는 또 다른 원소들이 아닐까.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완전한 로데오거리를 볼 수 있길 바란다. ☺





(주)아이원에셋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335번길 12-1



언어가 달라도 당신을 위한 마음은 같습니다.

“낮선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내국인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원에셋 강기현 대표가 말했다. 25년 전 내국인을 위한 보험 가게를 운영해오다 최근 4년 전부터 동상동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자동차보험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국인 자동차보험 수요를 생각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업무를 진행하며, 한국 교통법규로 상세히 알려주는 곳으로 ‘알찬 가게’로 자리매김했다.

한분 한분이 나의 소중한 고객

김해 동상동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게가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업무를 해주고 있는 ㈜아이원에셋 법인 대리점이다. 가게 벽면에 붙은 외국어로



쓰인 전단지들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교통법규들을 외국어로 붙여놓았다. 가게에는 계속 전화벨이 울렸다. 외국인 직원과 한국인 직원이 번갈아 가며 전화응대에 분주했다. 강기현 대표도 핸드폰으로 외국인들의 문의 전화에 응대하느라 바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 업무가 소소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보험 관련 일이 아니어도 다른 개인적인 문의도 많이 해서 전화가 늘 울린답니다.” 강 대표는 보험컨설팅 등 업무를 25년간 해오던 중 외국인들도 자동차보험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외국인 몇 명에게 조언정도로 보험에 관해 이야기 해주다, 4년 전 외국인들을 위한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국과는 다른 한국의 교통문화, 습관, 법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일에 보람도 느꼈다. 강 대표는 “자국이 아닌지라 자동차보험의 절차들이 까다롭습니다. 그 절차들을 저희가 대행해주고 후에 사고 발생이나

문제 발생 시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고마워하지요”라며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예전과는 다르게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다. 강 대표는 자동차보험 가입과 함께 차를 사고, 팔 때 쓰는 이전서류 및 행정업무 서비스도 해준다. 언어는 달라도 외국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업무는 이 지역에서는 아마 저희 가게가 독보적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멀리서도 소개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들과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외국인 직원까지 고용했습니다. 의사소통되니 더 고객들이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에서는 높은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김해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자동차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단순히 자동차보험 업무만 딱 가입해주고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의 교통문화와 법규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강 대표는 이전에 겪었던 일화를 이야기했다. 그는 “제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한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자리를 도망쳐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무섭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달려가서 그 외국인을 안

심시키고 자수시키고 마무리까지 제가 다 해주었습니다”고 회상했다. 강 대표는 보험 업무 외에 사소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외국인의 전화에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힘듦도 잠시, 외국인들을 돕고 난 뒤 보람이 더 크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제는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별하지 말고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인정하며 그들이 한국에서 자국처럼 편안히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 가족같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며 웃었다. 😊





이속토스트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335번길 12-1
전화 055-339-5727



우리 동네 사랑방

삼십 대 초반부터 동상동에서 분식집, 옷가게, 슈퍼 등을 운영했다. 김해 중심지이자 오랜 역사가 있는 동네인 만큼 많은 사람이 머물렀고, 또 떠나갔다. 이곳에서 곳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부, 김정화, 황순옥 대표를 만났다.

동상동 지킴이

김정화 대표가 동상동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는 30년, 이속 토스트를 운영한 지는 12년이 넘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김해에서 제일가는 변화가였지만 신도시들이 생겨나며 많은 사람이 동네를 빠져나갔다.

“이 동네에 있는 저는 30년도 넘었어요. 동네에 정이 들어서 다른 데 갈 생각은 안 했죠.” 사람들이 빠져나간 동네는 정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꽤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었다. 종로난장, 소소한 식탁 등의 행사가 있을 때면 동네는 활기가 넘쳤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면서 모든 행사가 열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고. 이런 상황에 누구를 탓할 순 없지만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다는 김 대표. 상인회에서 활동 중인 그는 동네를 살리기 위한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김해문화재단이 동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을 직접 설득하며 참여를 권하기도 한다. 평소 이속토스트는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러 오는 곳이기도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재단과 인연을 맺었고 가치가게도 참여하게 됐다. “(종로난장, 가치가게 등) 이런 걸 만들어만 놓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하고 싶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김 대표는 축제가 열릴 때면 주최자이기도 하면서, 그 순간을 오롯이 즐기는 참석자이기도 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두배는 더 축제가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셈. 그의 모습에서 다시 축제가 열렸을 때의 동네 모습이 공명해진다.

같이 가는 가치가게

이속토스트의 손님은 90퍼센트 이상이 외국인 손님이라고 한다. 이웃 가게들도 대부분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다국적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김 대표는 자연스럽게 가치가게 가치 중 ‘다양성’을 선택했다. 한글로만 적혀 있던 메뉴판에 밀크티는 짜이(Chiya), 딸기바나나주스는 라씨(Lassi) 같은 단어를 같이 기재해 어떤 메뉴인지 알 수 있게 하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메뉴도 개발했는데 모두 성공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부부가 그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 오는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응원도 보낸다.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의 기꺼이 돕는다. 황순옥 씨는 혼자 병원에 가는 게 힘든 친구와 같이 병원에 가주기도 했다. “정도 주고 그러다 보니 어떤 애들은 집으로 돌아간다고 인사하러 와서는 자기 나라에 오면 연락 달라고 전화번호도 주고 가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가치가게를 응원하는 대학생들이 소파 리폼과 앞치마 제작을 해줬다. 김 대표는 가치가게 참여하게 되어 좋은 점 중 하나가 젊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분리수거, 거리를 청소하는 것 등으로 다툼도 있었다. “가게 앞을 쓸면 복을 쓸어버린다고 안 좋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 앞만 쓸곤 했죠.” 문화의 차이가 발생한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대화로 풀 수 있었고, 지금은 같은 마음으로 동네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가치가게라는 말이 ‘같이 가자’는 뜻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일을 환영하는 건 아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기에 비난할 수도 없다. 다만, 사람들로 붐볐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김 대표로서는 침체되어 가는 동네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결국에는 같이 가야 하는 길이기도 설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일상이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동네를 지키고 있다. ☺

Aesop 이속 토스트	
Toast	Coffee &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 스페셜 토스트 (Ham Special) 2,800 (햄 + 치즈 + 양파 + 계란) ▶ 햄치즈 토스트 (Ham Cheese Toast) 2,500 ▶ 햄야채 토스트 (Ham Vegetable Toast) 2,500 ▶ 치즈야채토스트 (Cheese Vegetable Toast) 2,500 ▶ 야채 토스트 (Vegetable Toast) 2,300 ▶ 햄 토스트 (Ham Toast) 2,300 ▶ 스테이크 MVP 토스트 (Beef Bulggahe MVP) 4,500 (소고기 + 계란 + 야채 + 치즈) ▶ 불고기 MVP 토스트 (Bulgoggi MVP) 3,500 (불고기 + 계란 + 야채 + 치즈) ▶ 새우 MVP 토스트 (Shrimp MVP) 3,500 (새우 + 계란 + 야채 + 치즈) ▶ 베이컨베스트 토스트 (Bacon Best) 3,500 (베이컨 + 계란 + 야채 + 치즈) ▶ 왕치킨 MVP 토스트 (Hot Chicken MVP) 3,500 (왕치킨 + 계란 + 야채 + 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t / Ice ▶ 밀크 티 (Milk Tea) 2,000/3,000 (짜이-Chiya) ▶ 아메리카노 (Americano) 2,000/2,500 ▶ 핫 초코 (Hot Chocco) 2,000/3,000 ▶ 우 유 (Milk) 1,500 ▶ 사이다 (Cider) 1,000 ▶ 콜 라 (Cola) 1,000 ▶ 아보카도 주스 (Avocado Juice) 4,000 ▶ 망고 주스 (Mango Juice) 3,500 ▶ 딸기 주스 (Strawberry Juice) 3,500 ▶ 딸 · 바 (Strawberry Banana Mix) 3,500
Fresh Juice	





해이담커피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 287-14

전화 055-333-5517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aedam.coffee/



김해다운 아름다움

금관가야의 시조 '수릉왕'이 잠들어 있는 수릉원의 돌담길 끝. 수릉원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카페가 있다. 김해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해이담커피에서 안경현 대표를 만났다.

수릉원 돌담길을 담다

'해이담'은 김해의 돌담길이라는 뜻으로, 해이담커피 대표 안 대표가 고심해서 지은 이름이다. 이름에서부터 김해를 담고 있는 해이담커피는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수릉원 돌담길과 떨어져 떨어 수 없는 사이가 됐다. 해이담커피는 정성껏 내린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는 카페다. 생두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커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렇게 커피만으로도 특별한 해이담커피는 수릉원과 함께 라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일부러 여기(수릉원 앞)에서 카페를 오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걸 좋아하게 됐고, 한국적인 장소를 찾게 됐어요.”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오돌토돌한 질감의 벽과 베이지톤으로 맞춰진 인테리어는 통창으로 보이는 돌담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특히,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바(bar)는 돌담을 연상시켜 바깥 풍경과 카페 안이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벽면에 전시된 작은 도자기들이 눈에 들어온다. “박물관, 미술관 느낌이 나게 하고 싶었어요. 가치가계에 참여한 후 지역 도예가분의 분청사기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지역 도예가의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전시를 할 계획. 하지만 전시와 더불어 기획했던 음악 공연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무산됐다. 안 대표는 가치가계의 다섯 가지 가치 중 ‘역사’와 ‘예술’을 선택했다. 원래 역사를 좋아했던 만큼 최선을 다해 실천할 수 있는 가치를 선택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나갈 예정이다.

아름다운 김해 지킴이

“김해도 경주처럼 역사 도시잖아요. ‘경주’ 하면 신라, ‘김해’ 하면 가야인데 신라에 비해 가야와 관련된 건 남아있는 게 많지 않다보니 (김해가 역사 도시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 대표는 손님으로 카페를 찾던 재단 관계자의 권유로 가치가계에 참여하게 됐다. 가치가계를 통해 구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김해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담당자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한다. 마침내 김해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김해 사람으로서 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더구나 그는 자칭 ‘비공식 김해 홍보대사’로 카페 SNS를 통해 수릉원의 멋진 모습을 공유하며 김해를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뿌듯했다. “이런 돌담길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잖아요. 김해에서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고, 사계절의 변화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많은 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안 대표는 매일 아침 수릉원을 산책하며 수릉원 곳곳을 카메라에 담는다. 또, 해이담커피 2층에서는 수릉원 안을 정원처럼 볼 수 있다. 그만큼 수릉원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각별하다. 그 마음이 수릉원은 물론이고 김해의 역사를 더 오래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김해는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안 대표는 김해를 알리는 데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참여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가치가계 참여를 결정했을 당시 자신에게 감명을 준 담당자에게 법정 문화도시 선정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





김해 다례원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번지 19-2
전화 055-326-3268



차 한 잔에 담긴 종합예술, 느껴보시겠어요?

“차는 종합예술입니다.”

김해 다례원 김명자 원장이 말했다. 다례는 차를 접대하는 의식으로, 차에 대한 예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례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차와 음식, 차와 꽃, 차와 도기 등 다양한 분야와 어울려진 종합예술 이상을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 고유의 전통과 차 한 잔의 여유, 나눔을 배울 수 있는 김해 다례원을 찾았다.

단순한 음료 이상의 가치

김해의 역사가 숨 쉬는 김수로왕릉 돌담길 건너편에 왕릉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잘 맞는 가게 하나가 있다. 김해 다례원이다. 다례원 안으로 들어섰다. 다례원 내부에는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갖가지 다기와 다화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김 원장은 대학에서 차 문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30여 년 동안 다도 교육에 몸담아 왔다. 2014년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 김해 다례원을 열었다. 다식을 준비하는 김 원장의 손길이 분주했다. 김 원장이 건넨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어때요? 김해를 대표하는 장군차입니다.” 이어 김 원장은 장군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해 장군차는 고려 충렬왕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충렬왕이 왜구 정벌을 막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금강사 뜰에 머물렀죠. 그때 충렬왕이 뜰에 있는 차나무를 보고 ‘장군’이라 불러 ‘장군차’란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김 원장은 장군차는 다른 지역의 차와 비교해 감칠맛과 열은 떫은 맛이 일품이라고 극찬했다. 게다가 탄닌 함량이 높



아 차 빛깔이 뛰어나고 발효차 고유의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장군차는 피로회복에 좋을 뿐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몸 속 노폐물이나 유독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도 있답니다. 매일 마시는 장군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육체적 건강을 선물하는 건강 음료입니다”며 칭찬했다. 김해 다례원은 가치가게를 통해 차를 통한 예술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 김 원장은 차를 종합예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가치가게 참여가 차를 대중화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다. “차는 종합예술입니다. 차는 음식이라는 다식, 차와 꽃이라는 다화, 차와 도시, 차와 붓글씨 등 다양한 분야와 어울려져 왔습니다.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 이상의 가치를 가졌죠. 차 속에는 도(道)가 있어요. 차를 마시며 느끼는 평온함 속에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이러한 차의 장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차를 매개로 어울림의 장이 되길

김해 다례원에서는 녹차, 백차, 청차, 황차, 홍차, 흑차 등 세상의 모든 차를 체험할 수 있다. 손에 든 차를 음미하며, 찻잔에 우러난 차에 담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김해의 보물 같은 공간이다. 다도 교실 일일 수업, 어린이 다도 체험 수업, 1년 장기수강 등 참가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다. 참가자가 원한다면 개인 수업도 가능하다. 수업을 신청하면 다도에 필요한 재료와 집기류를 모두 제공한다. 학교나 기관에서 수업 요청을 하면 김 원장이 직접 수업에 나가기도 한다. 다례원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 차

한 잔을 편안히 음미할 수 있다. 다례원은 김해시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이자, 배움의 장소, 쉼의 공간이 되고자 한다. “다도 수업 중에 참가자에게 차를 따르고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숙연한 명상을 10여 분 한 뒤, 제가 참가자에게 인생 조언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참가자 한 명, 한 명의 어깨를 죽비로 내리칩니다. 그러면 참가자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죠. 차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위로죠.” 김 원장은 가치가치 참여를 통해 차 문화의 대중화를 꿈꾼다. 김 원장은 앞으로 다도교실 뿐만 아니라 음악, 시조, 민요,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협업을 통해, 다례원을 다양성이 공존하는 종합예술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는 “차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차는 평등합니다. 힘들 때마다 차가 귀명칭(* 판소리를 감상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 혹은 소리를 잘 듣는 사람) 친구가 되어, 나를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답니다. 이게 바로 차의 힘이예요. 이 힘을 주춧돌 삼아 다례원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공감하고 교감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





잉글랜드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 335번길 10-2

전화 055-336-2196



내 발에 딱 맞춘 세상 하나뿐인 신발을 신다

“장식 하나 고를 때도 신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임영규 대표가 말했다. 그는 40년 간 수제화를 판매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수제화 장인이다. 수제화는 개인의 발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 신발이라 손님의 만족도가 높다. 임영규 대표가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다. 35년째 동상동에서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잉글랜드를 찾았다.

한땀 한땀 정성이 깃든 신발

잉글랜드가 35년 간 동상동을 지키며, 많은 가게가 흥망성쇠를 보아왔다. 동상동 상가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3개 중에 하나다. 10평 남짓한 크지 않은 가게 안은 다양한 수제화가 진열되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 대표는 그



의 나이 스물한 살 때부터 수제화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을 수제화와 함께 해왔다. “제 평생을 수제화에 바쳤지요. 처음에는 수제화 판매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제가 직접 구두 디자인을 합니다. 신발에 손님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발에 맞춤 디자인을 하지요, 그래서 손님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사이즈가 같더라도 발의 생김새와 발가락이 틀어진 정도, 선호하는 신발 스타일이 손님마다 다르다. 수제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까다로운 여러 공정이 들어가는 이유다. 디자인, 재단, 봉제, 바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임 대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힘들어도, 손님이 신발을 신고 보여주는 미소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임 대표는 “구두 디자인을 할 때 최고의 가족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가족이 발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수제화는 기성품처럼 인조가족을 쓰거나, 가격 낮추기 위해 구두 내피와 외피를 다른 재질로 하지 않아요. 저희 가게는 구두의 내피 외피 모두 질 좋은 가죽을 씁니다. 저만의 고집이 지요. 바닥도 우레탄이 아닌 고무창을 써서 손님이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을 높입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단골손님의 추천을 받고 찾아오시는 손님을 만날 때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진심이 손님들께 전해진 것 같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의 구두는 좋은 가죽으로 구두를 고집 때문에 기성품 가격보다 높다. 하지만 때론 구두를 팔아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인정을 베풀기도 했다.

“어느 날 고등학생 3명이 신발을 사러 왔는데 2명이 신발을 고르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이가 망설이더군요. 알고 보니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두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값에 신발을 팔았지요. 아이 기분이 밝아지는 걸 보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제화 부흥기가 다시 찾아오길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제화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값싼 기성화의 범람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수제화가 예전 부흥기와 비교해 많이 위축되었다. 임 대표는 “한때는 하루에 신발이 20~30쪽 이상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값싼 기성화들이 대량으로 팔려나가는 추세다 보니 수제화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지요. 현재 수제화 가게들은 매출에 타격이 큼니다. 얇친 데 댈친 격으로 코로나로 행사나 모임이 줄어든니 소비가 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며 착잡해 했다. 그는 수제화 시장 변화의 바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수제화 시장에도 변화가 필요할 듯합니다. 젊은 감각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니까요”라고 말했다. 임 대표의 바람대로 수제화 시장 곳곳에서 이런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수제화 생산 현장은 사양길로 접어드는 추세다. 젊은이들의 기피로 수제화 후배 양성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제화 기능공 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수제화의 모든 공정이 손이 많이 갑니다. 어느 공정 하나 쉽지 않지요. 그래서 수제화 작업을 3D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기능공이 거의 없어요. 수제화 생산 현장에는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다가 수제화 기능공이 점점 사라질까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공정은 복잡하고 어려우나 주문 제작을 받고 신발을 만들고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신발을 만들어 준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그 값진 경험에 더 많은 젊은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임 대표는 마음을 담아 말했다. “저는 제 가게가 동상동 로데오 상가 거리의 역사 산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자리에서 35년째이니가요. 잉글랜드에는 동상동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합니다.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오랜 시간 함께한 단골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게 자체가 ‘역사’ 인거죠. 앞으로도 큰 욕심 내지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저희 가게에서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





만리향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 335번길 4
전화 0507-1326-8060



만두 한입에 담긴 50년 세월

“만두향이 만 리까지 퍼져나간다.”
‘만리향’ 가게의 의미다. 만리향은 할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사위가 3대째 동상동, 분성로335번길에서 만두향을 풍기고 있는 곳이다. 만두 장인이 만두를 만들어내는 명실공한 김해의 대표 ‘만두가게’다.

물려받은 옛날 조리법 그대로 빚어낸 만두

곡충의 대표가 운영하는 ‘만리향’의 시발점은 김해 최초 중화요리점 ‘경화춘’서부터다. 1945년 중국출신 화교인 ‘곡소득’ 사장은 현재 만리향 인근에 경화춘 문을 열었다. 이 집은 2층 규모의 100석 이상 자리가 마련된 제법 큰 식당이

었다. 경화춘에서 일하던 곡 대표의 부모님은 1979년 경화춘을 나와 만리향을 차렸다. 1980년대 중반에는 오전 6시부터 준비한 200~300인분의 만두가 점심이 되면 2시간 만에 다 팔릴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만두가게였다. 세월이 흘러 곡 대표의 부모님은 힘에 부쳐 더는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웠고, 회사 일을 하던 곡 대표가 회사를 그만두고 ‘만리향’을 이어받았다. 가게는 곡 대표의 누나와 어머니가 함께 일을 돕고 있다.

그는 만리향을 이어받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만두 만드는 법을 배웠다. 만두피를 빚기 위한 밀가루 반죽부터, 피를 빚는 법, 만두 속 재료를 배합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몸에 익혔다. 만리향 만두는 속이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군만두와 얇은 만두피 속에 고기와 육즙이 가득한 찐만두가 가장 대표적이다. 만두는 만두 종류별로 밀가루 반죽 두께가 다르다. 만두소는 보통 돼지고기, 부추, 파, 생강, 마늘이 들어간다. 곡 대표는 매일 오전 찐만두, 군만두 등 만두피를 1천 개 정도 만들어둔다.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 그는 500번 이상 밀가루 반죽을 치댄다. 만리향의 만두피가 쫄득한 이유다. 곡 대표는 “만두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밀가루, 물, 소금의 비율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유일하게 알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반죽을 잘 하지 않으셔서 모르십니다. 만두 만드는 법을 돈 주고 사겠다는 분도 찾아왔지만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가게만 가지고 있는 비법이니까요”라고 말했다.

‘만리향’ 향기가 100년 넘게 이어지길

찐만두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적당히 보드라운 쫄득한 피가 찢어지며 구수한 육즙이 터져 나온다. 만두소는 알차고, 맛은 풍성하다. 자꾸 젓가락질을 부르는 만두에는 머나먼 중국에서 건너와 김해에 자리 잡은 만두가게의 3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곡 대표는 “저희는 새롭게 요리법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귀찮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하시던 방법대로 그대로 만두를 만드는 게 가장 맛있기 때문이에요. 재료도 그때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만두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만두 요리법이 가장 최상의 만두 맛입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만리향은 당일 판매 분량 조리만을 고수한다.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고 최상의 식재료를 만두를 만들기에 항상 변함 없는 맛이다. 이것이 만리향이 3대째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다. 곡 대표는 “손님들이 만두 맛이 오랜 세월 한결같다며 칭찬해주실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메뉴 개발보다는 기본을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그리고 그 자식이 자라나 아이의 손을 잡고 만리향을 찾는 일이 흔하다. 변함없이 깊은 만두의 맛처럼, 만리향의 역사도 깊어지고 있다. 곡 대표는 “만리향은 이미 김해 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됐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 뿌듯합니다”며 웃었다.

3대째 이어온 손맛이 곧 경쟁력

만두는 간편식으로 인기가 많아, 최근 대기업 식품업체 등은 맛 좋은 냉동만두를 개발해, 쏟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에 위기를 느낄 법도 하지만, 곡 대표는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저희 집 만두만 가지고 있는 ‘맛’이 곧 경쟁력이지요. 그 맛에는 3대째 이어온 손맛이 담겨 있고요. 이걸 어느 대기업이든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 외식이 줄면서, 많은 음식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만리향’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최근

삼방동에 ‘만리향 삼안점’ 문을 열었다.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분점을 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영점이 아니면 그 맛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닌 분들이 운영하는 분점이나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달을 시작했지만, 행여 맛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만두를 먹고 싶다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삼방동에 직영점을 열었어요.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도 열어 주문 받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만리향 가게 입구에는 ‘SBS생활의 달인’ 인증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백년가게’, 김해시의 ‘한우물가게’ 명패가 붙어 있다. 30년 이상 지역을 지키며, 만리향의 만두 맛을 지켜온 소신, 변함없는 만두 맛을 사랑하는 손님들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곡 대표는 가게 앞 붉은 명패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만리향의 향기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항상 기본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





선교산업사 (목욕타월)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33



오랜 세월 지켜온 청결이라는 가치

선교산업사 김순자 대표는 '때를 밀 것도 없이 그대로 녹아'라며 오리발 때수건을 선보였다. 목은 때를 깨끗하게 녹여 날린다는 때수건처럼, 날마다 집 앞거리의 쓰레기들을 시원하게 쓸어버린다는 그를 만났다.

35년간 거리를 지켜 오는

봉황동 김해 수로왕릉 앞, 돌담을 따라 유난히 깨끗한 거리를 걷다 보면 목욕 수건이 걸린 가판대가 나와 있는 오래된 가게를 만날 수 있다. 간판이 있을 법한 자리에 옛 흔적만 여러 겹 남아 있는 이곳은 김순자 대표가 35년간 자리를 지켜온 선교산업사다.

"나는 원래 밀양 사람입니다. 56년 전 김해로 왔어요. 첫째를 낳고 두 달 만에 이사했는데, 지금 큰 애가 56살이거든요. 그러니 딱 그만큼 세월이 지났지요. 김해에 막 왔을 때, 여기 김해 수로왕릉 주변은 죄다 논밭이었어요. 우리 가게가 있는 여기도 미나리 밭이었죠. 지금은 말도 못 하게 변했어요, 정말."

본격적으로 가게를 시작한 건 35년 전이다. 처음에는 에어컨이나 식당 냉장고 등을 제작하고 취급하는 가게였다. 이후 지금의 오리발 때수건을 발명하여 목욕 수건을 판매하고 있다. 한자리에서 35년의 세월을 지켜온 것이다. "남편이 전자공학과를 전공해서 기계를 잘 다뤘어요. 김해 정착한 초기에는 기술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라디오나 그런 걸 고치는 일을 했지요. 그러다가 지금 자리에 가게를 열어서 냉장고랑 에어컨 같은 냉방 제품을 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에어컨이나 식당 냉장고 같은 걸 취급하기에는 몸이 힘들어졌죠. 그걸 등에 지고 날라야 하는데, 나이가 드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선교산업사만의 제품 만들어

선교산업사의 새로운 출발은 17년 전이었다. 오리발 때수건으로 특허를 냈다. 1층 가게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2층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김 대표가 가게 안을 빼곡하게 채운 목욕수건 중 하나를 꺼내 자랑스럽게 내보인다. 오리발 때수건은 이름처럼 오리발 모양이다. "이 오리발 때수건도 남편이 만들었어요. 자작나무껍질을 사용해서 만들어 피부에도 좋죠. 거칠거칠한 면과 부드러운 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필요한 상황이나 부위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옷에 뭐 흘리면 힘들게 안 빨아요. 이걸로 살살 문지르면 금방 때가 지거든, 목욕할 때도 마찬

가지예요. 여러 번 때를 밀어낼 필요 없이, 한 번씩 쓱 닦아주기만 하면 때가 녹아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고객이 부족 늘었다.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에서 목욕하는 경우가 많아, 때수건을 찾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코로나19로 덕을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정도면 1년 동안 팔겠다'하고 물건을 빼냈는데, 반 년 만에 다 팔렸어요. 강원도 흥천, 철원,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구매하는 분들만 해도 3천 800명 정도 돼요. 그만큼 제품이 좋으니까, 많이들 찾아주는 거지. 한 번 써보신 분들이 부모님이나 자식에게 준다고 그렇게들 사 겁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 인터뷰 중에도 손님 두 명이 오리발 때수건을 구매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꾸준히 팔린다고 웃었다.



내 집 앞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김 대표는 매일 교회를 다녀온 후 가게 앞과 거리를 청소한다. 가게가 있는 위치가 김해 수로왕릉이라는 지역의 주요 역사자원이 있는 거리인 만큼 깨끗하게 유지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선교산업사만의 가치다. "저한테는 여기가 내 집 앞이나 마천가지잖아요. 집 앞을 청소하는 건 당연하지. 가끔 새벽에 미화원을 마주치는데, 미화원이 '여긴 청소할 게 없네요'라고 말하기도 해요. 가치가 게가 되면서 이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자고 건의했어요. 청소하는 것도 청소하는 거지만, 쓰레기통이 있으면 애초에 더러워질 일이 줄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직 들은 소식은 없네요." 김 대표는 쓰레기통이 설치되고, 꾸준히 거리를 청소할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자작나무껍질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얼마나 더 만들어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팔 수 있을 때까지 가게에 나와야지요. 오랜 세월을 여기에 있었으니까, 세월이 가는 거 보면 시원섭섭해요. 그래도 자신들도 다 잘 컸고 했으니 제게 주어진 하루 하루가 감사합니다." ☺



르안타이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9
전화 055-331-0773



동상동에서 만나는 진짜 태국 맛

포털사이트에서 '김해 태국 맛집' 하면 한 가게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띈다. 바로 동상동에 위치한 르안타이다. 이곳이 태국 음식가게로 확실히 자리 잡은 건, 태국 요리사가 직접 만드는 요리 덕분이다. 태국인들에게도 '현지의 맛'으로 인정받는 태국집(*르안타이' 뜻이 태국어로 태국 집이다) 르안타이에서 꼭민철 대표를 만났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다

르안타이는 2016년 문을 열었다. 당시 르안타이 꼭민철 대표는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태국인 왕수완 소핏나파(Wongsuwan Sophtnapa) 씨를 만나 결혼을 하고 태국 음식가게를 시작했다.

"아내가 김해에서 일하고 있을 때여서 연애하는 동안 제가 김해를 오갈 일이 많았습니다. 동상동도 몇 번 방문했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 동상동의 상권이 괜찮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고, 외국 가게들도 많아서 한번 시작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아내의 장기를 살려 태국 음식가게로 종목을 정했죠."

꼭 대표는 가게 운영을 맡고, 왕수완 소핏나파 씨가 직접 요리를 했다. 전반적인 가게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판 하나까지 부부가 함께 만들었다. 왕수완 소핏나파 씨가 음식 이름을 한국 발음대로 적으면, 꼭 대표가 다듬는 식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르안타이는 곧 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처음부터 저희는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가게였어요. 그래서 태국의 맛을 그대로 살리려 노력했죠. 음식 재료는 동상시장에서 구했습니다. 태국인이 태국 재료로 요리하니, 손님들이 그 맛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태국의 맛을 제대로 구현했다며, 점차 오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왕수완 소핏나파 씨뿐 아니라 태국인 요리사가 한 명 더 늘었다. 그만큼 가게에 손님이 늘었다는 의미다. 서빙을 하는 직원도 모두 태국인이다. '태국집'을 뜻하는 가게 이름처럼 타지에 온 태국인들에게 본국의 맛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다.

"원래는 스무 개 정도 메뉴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혹시 이 메뉴도 돼요?'하고 메뉴판에 없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는 재료만 있으면 그걸 또 만들어 대접하는 거죠. 그렇게 손님들의 요청으로 메뉴가 하나씩 늘어, 지금은 50~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태국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 수원부터 창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

"사실 초기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방문하면, 태국 음식을 낯설어하실 것 같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태국음식점들은 한국화가 돼서 한국인들이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저희는 태국 맛을 고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된 태국 현지 맛', '태국 여행에서 먹어 본 맛'이라며 오히려 더 좋아하시니 감사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능성 열어야

르안타이는 1차 가치가게 선정 시 환경의 가치로 참여했다. 가치를 실현하고자 꼭 대표는 종이류로 만든 포장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음식의 수분 때문에 종이 가 젖어 배달이 어려웠고, 더 튼튼한 포장 용기는 가격이 비싸 꼭 맞는 제품을 찾기 힘들었던 탓이다. "지금은 종이 용기를 계속 쓰진 못하고,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사실, 가치가게 관련해서 처음에는 예술의 가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봉황동에서 동상동으로 이어지는 길부터

종로길까지 형성된 상권은 해가 지면 너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밝은 느낌을 더하기 위해 셔터에 벽화를 그리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은 후에도 볼거리가 될 거라 여겼죠. 하지만 동상동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외부 간판이나 내부 리모델링을 할 때 규제가 까다로워 벽화를 그리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환경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꼭 대표가 가치가게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상권 활성화였던 만큼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 더 나아질 방법을 고민하고, 기회가 되면 의견을 내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봉리단길이나 수로왕릉 주위에 형성된 카페거리는 가게 자체에 개성이 담겨 있다 보니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동상동도 기존의 규제들이 조금 완화되면 가게들도 시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축제나 행사가 열릴 때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외부에서 영입하기보다 주변 가게들과 연계하는 것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죠."

꼭 대표는 이곳 동상동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곳'이길 바란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시간을 보낼 만한 거리가 되면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따라오리라 믿는다.

"저희 가게에 오신 분들이 단순히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종로길 쪽으로 더 들어가서 거리를 둘러보시면 좋겠다 싶죠. 반대로 동상시장이나 종로길에 들렀던 분들이 여기까지 죽 이어서 와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여기 상권에도 지금보다 훨씬 생기가 돌지 않을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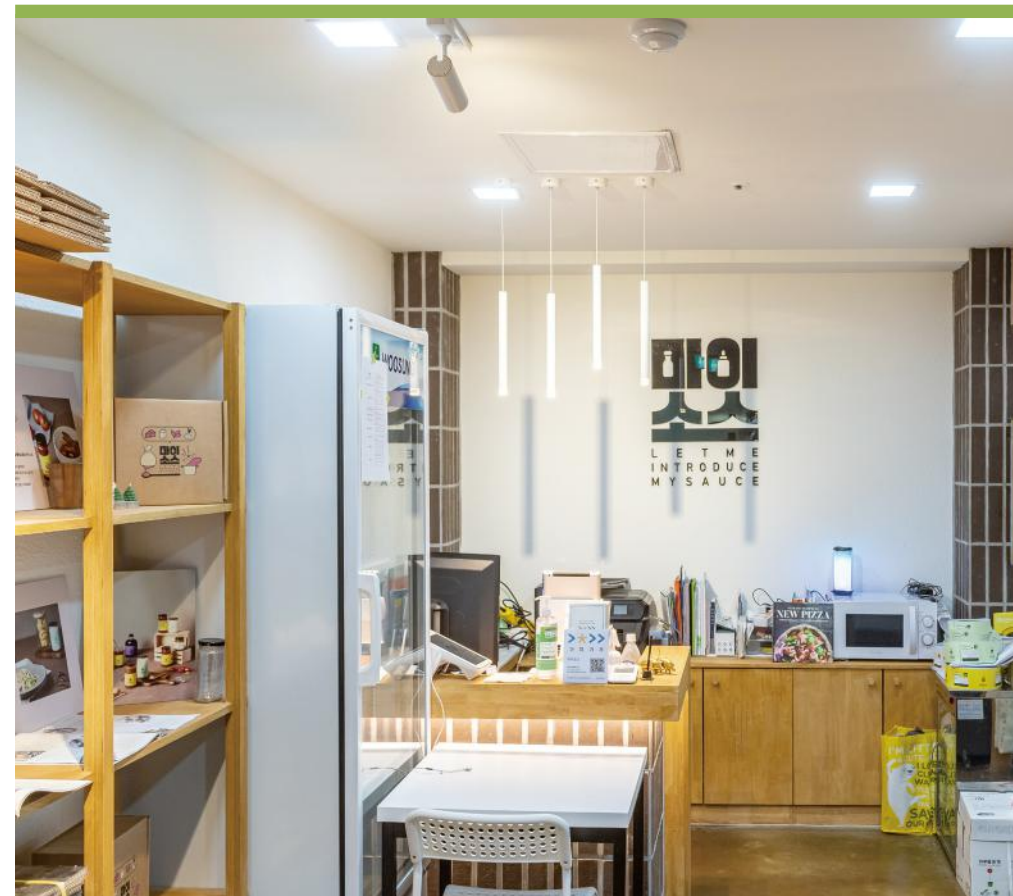


마이소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180번길 25, 3층

전화 055-326-9547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letmeinintroducemysauce



환경은 '지금' 우리의 일

김해 동상시장에는 '동춘씨'가 있다. 동춘씨, 누군가의 이름 같겠지만 음식점, 공방, 네일숍등 청년 대표가 운영하는 매장들이 모여 있는 청년몰의 이름이다. 수제소스 브랜드 '마이소스' 역시 동춘씨에 입점한 개성 있는 매장 중 하나. 청년몰에서 나의 레시피로 나의 길을 걷고 있는 마이소스 이현지 대표를 만났다.

작은 계기, 꾸준한 실천

마이소스는 2020년 3월에 문을 열었다. 동춘씨가 2019년 12월에 문을 열었으니 거의 시작을 같이한 셈인데 사실 마이소스의 처음은 다른 지역이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찮아

문을 닫게 되었고, 고향인 김해로 돌아온 이 대표는 운명처럼 동춘씨를 만났다.

“노력해서 만든 브랜드와 레시피를 포기하려니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마침 청년몰이 생긴다는 현수막을 보았고, 이거다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앞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몸소 느꼈던 그는 청년몰을 발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마이소스는 당일 공수한 재료를 이용해 쓰유소스, 돈



가스소스 등 갖가지 소스를 만든다. 수제소스의 장점은 화학조미료나 방부제를 넣지 않아 재료 본연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대신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 주문을 받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배송한다. 그리고 소스는 조금 특별한 박스에 담겨 배송된다. 바로, 친환경 보냉상자! 소스는 아무래도 신선함이 중요한 제품이다보니 보냉포장은 필수인데 마이소스에서는 스티로폼상자 대신 종이보냉상자를 사용한다. 완충 제도 비닐완충재, 일명 뽕뽕이 대신 벌집 모양의 종이완충재를 사용한다.

“제가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종이완충재를 처음 봤어요. 다음에 포장할 일이 있으면 써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스티로폼상자와 비닐완충재보다 종이보냉상자와 종이완충재의 단가가 높은 편이다. 마이소스는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포장용품을 많이 사용한다. 사용량이 많은 만큼 가격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종이 포장용품을 사용하는 건 '환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환경 문제가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어요. 아이를 낳고는 생각이 바뀌었죠. 지금도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 같은데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더욱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찾게 됐어요.”

이 대표는 가치기계의 가치 중 자신이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치, '환경'을 선택했다. 종이포장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소스 용기도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과 트라이 탄 병(젓병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을 사용한다. 혹시 가게에서



남은 식재료가 있으면 집으로 가져가 활용한다. 당일 공수한 재료로 소스를 만들기 때문에 매일 장을 보는 데 정바구니를 꼭 챙긴다. 그렇지 않을 땐 그냥 손에 들고 올 때도 있다. 청년몰에 있는 식당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 깨끗하게 씻어 재사용한다. 그의 목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습을 배울 아이와 가게에 붙어 있는 가치기계 명패가 환경을 지키는 일에 경각심을 갖게 한다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환경 문제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치기계에 참여한 가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선택한 각자의 가치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이 대표는 가치기계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런 가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각각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가치기계도 더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이다. ☺





피카타임

주소 경남 김해시 구지로 180번길 25 청년몰 3층
 전화 0507-1337-4013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ts.fikatime/



소신, 가치가 되다

‘소신’이란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 파티세로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는 피카타임 박호진 대표, 파티세로서 그의 소신은 무엇이고, 소신이 어떻게 가치가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보자.

동춘씨에서 꿈을 펼치다

“이 일을 하시는 많은 분이 자기 가게를 가지는 걸 마지막 종착지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창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청년몰

이라는 좋은 기회를 알게 돼 시작하게 됐어요. ”피카타임은 김해 동상동에 위치한 청년몰 ‘동춘씨’에 입점해 있는 디저트 가게다. 동춘씨가 문을 열었던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층에 자리하고 있다. 피카타임 박 대표는 다른 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먹거리가 시각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한다. 특히, 화려한 색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색소가 들어갈 때, “먹는 건 어쨌든 맛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맛만 생각하면 색소가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천연 식재료만 가지고도 먹음직스러운 색을 낼 수 있고요.” 박 대표는 망고, 라즈베리, 썬, 초코 등 각각의 재료가 가진

고유의 색을 최대한 활용해 디저트의 맛과 멋을 낸다. 또, 그러기 위해서 10년 동안 쌓인 경험으로 얻은 방법을 응용해 색다른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꾸준히 하고 있다. 무색소, 무첨가를 기본으로 버터, 설탕, 계란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방향성이 있기 마련이고, 첨가물에 거부감이 있는 건 단지 자신의 취향일 뿐이라고 했다.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의 마음은 맛으로 증명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찾는 디저트 가게가 되었다.

용기를 주는 서로의 존재

피카타임은 가치가게의 가치 중 ‘환경’을 선택했다.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로 만든 테이크아웃 컵과 빨대를 사용하고 텀블러를 가지고온 손님에게 음료 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 음료를 제외한 디저트는 모두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택배 포장에 많이 하는데 그때 종이완충재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컵홀더도 친환경제품으로 구매했다. “아무래도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소재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가치소비’를 하기 때문인지 종종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 대표는 가치가게에 참여하기 전부터 소신에 따라 이미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크멘터리를 통해 인간이 만든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동물과 병들어 가는 지구를 본 후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노력을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디저트를 알아본 사람이 있듯 그의 노력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그냥 평범한 플라스틱과 종이로 보이는 친환경제품의 성분까지 알고 있는 손님, 자신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손님을 볼 때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좋은 재료를 쓴 게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 (비싸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걸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소신에 확신도 생기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양한 친환경제품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박 대표는 그중에서도 손님이 이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 나오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 대표는 매달 새로운 디저트를 선보이는 ‘월간 피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만 보아도 그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껏 하던 대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도 이어나갈 예정이라는 말에 더욱 믿음이 간다. “어쨌든 생활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쓰레기를 생성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굳이’, ‘꼭’ 쓰레기를 만들 필요가 없을 때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





솜소미네일

주소 경남 김해시 구지로 180번길 25 청년몰 3층 307호
 전화 0507-1313-5726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omsomi_nail



아름답고 건강하게 손톱을 칠하다

“꼼꼼한 성격을 살려 고객들의 손톱을 ‘솜소미’ 관리하겠다는 의미예요.” ‘총총히’의 옛말인 ‘솜소미네일’을 가게 이름으로 정한 이유다. 김지선 대표는 이름에 걸맞게 세심한 서비스로 모든 고객이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웃었다.

‘무독성’ ‘저자극’ 이유 있는 고집

휴게 공간 테이블 위에는 주전부리와 꽃 화분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십 개의 네일 제품과 직접 제작한 네일 샘플이 줄을 서 있다. 안쪽에는 페디큐어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휴식을 전할 스파 안마의자

가 놓여 있다.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솜소미네일의 내바다. 솜소미네일은 김지선 대표가 일대일로 시술하는 네일전문숍이다. 2019년 12월 말 청년몰 3층에 문을 열었다. 이제는 어엿한 3년 차 가게가 됐다.

“원래는 여러 네일 제품을 사용하고 그 리뷰를 SNS에 올리는데 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중 동상시장에 청년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진 다양한 제품을 활용해서 고객이 셀프로 손톱을 손질하는 놀이터형 공간인 ‘셀프네일공방’을 열까 고민했어요. 이후, 경제적인 부분이나 운영 측면에서 고민의 시간을 거쳐 지금과 같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일숍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후 솜소미네일은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는 김해문화재단의 1차 가치가게에 선정됐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가게로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가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다.

“제품을 고를 때 독성이 없는지, 자극이 덜한지 등 친환경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손톱은 각질화된 죽은 세포라 감각이 없고 잘라도 통증이 없지만 시술을 하다 보면 손톱 주변의 피부에 제품이 닿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피부와 손톱을 상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일아트에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손톱과 피부 건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법도 하지만 김 대표는 솜소미네일을 오픈할 때부터 고수한 ‘친환경적인 좋은 제품 사용하기’를 지금껏 지키고 있다. 그가 스스로 정한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손톱과 손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인 데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제품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구요. 가끔 알아주시는 고객들이 계세요. 종종 고객들이 ‘다

른 네일 가게에서 시술할 때는 손톱이 잘 깨졌는데 솜소미네일에 온 후로 그런 일이 없다. 오히려 손톱이 튼튼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더 나은 네일 아트를 전하는 노력

고객이 편안하게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내부를 꾸미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모두 고객을 ‘솜소미’ 챙기고픈 김 대표의 마음이 담겼다. 그는 이런 노력이 곧 고객의 신뢰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그중 한 예로 김 대표는 최근 한 고객 덕분에 뷰티 강사가 된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날 한 고객 소개로 경남미용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제대에서 방과 후 진로체험 네일 특강을 진행했는데, 그 특강을 본 대표님이 학원에서 수업을 맡아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고사했다가, 다시 권해서서 승낙했습니다. 그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한 원데이 클래스나 일회성 특강을 연 적은 있지만, 전문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처음인데, 지금은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운영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고객을 상대로 네일을 시술하는 것과는 또 다른, 제가 갖고뒀던 기술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알게 됐죠. 나아가 인제대 미래교육원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네일을 받으며 신뢰를 쌓아간 고객님 덕분에 뷰티 관련 강사로서의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죠.”

특히 김 대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고객이 기쁘게 가게를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청년몰 입점을 위한 창업 교육과정을 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가르침이었다.

“결국은 시술과 서비스를 잘해야겠죠. 그러기 위해 늘 제 작

품을 만들고,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샘플도 미리 만들어서 노력합니다. 다행히 단골이 꾸준히 늘어 그저 감사하죠. 가끔 굉장히 섬세하게 평가하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그러면 긴장이 되면서도, 오히려 그분들 덕에 제 기술이 늘기도 하더라고요. ‘사장님 많이 늘었다라거나 ‘사장님이라 늘 믿고 맡길 수 있다’, ‘사장님 정말 실력자 시대!’라는 고객님들의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앞으로도 솜소미네일은 질 좋은 제품으로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며 고객들의 아름다움을 더욱 건강하게 가꿔나갈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꿈꾸고 있다.

“지금은 손톱과 발톱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한씩 다른 미용 분야도 시작해, 토털 뷰티숍으로 거듭날 계획이에요. 그렇게 차츰차츰 가게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저만의 네일 제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네일 제품에 관한 관심으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직접 시술하고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런 경험들이 더 좋은 제품, 피부에 좋은 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미유

주소 경남 김해시 구지로180번길 25 청년몰 3층 306호 미유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rmeyou/>
 네이버 쇼핑 <https://smartstore.naver.com/yrmeyou/>



향기를 선물하는 공간

미유(for me, and for you), 나를 뜻하는 ME(미)와 너를 뜻하는 YOU(유)를 더해 정한 이름이다. 어떤 날은 자신을 위해, 또 어떤 날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 있게 건넬 수 있는 선물 같은 향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장혜빈 대표를 만났다.

고객을 위한 다양한 시도

미유(for me, and for you)라고 적힌 팻말 옆, 문을 열자 은근한 향이 기분 좋게 반긴다. 동상시장 청년몰 3층 석고 방향제, 디퓨저, 캔들 등 향 제품을 판매하고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는 미유다. 은은하게 풍기는 향을 따라 아기자기하게



매대를 채운 제품들을 구경하며 안으로 들어서자, 오늘 치 주문 제품인 석고 방향제를 손수 제작하고 있는 장혜빈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원래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취미처럼 향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홈 공방을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집에서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공간을 열겠다고 결심한 건, 김해시보에서 청년몰 입주 모집 공고를 본 후예요.”

미유는 동상시장 청년몰과 함께 문을 열었다. 청년몰 입주는 장 대표에게 좋은 기회였다.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진로체험, 클래스 연계 등 지원 덕분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다.

“청년몰에 한 가지 아쉬운 건 위치예요. 일부러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아니면,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는 주로 온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방은 원데이 클래스 교육이나 제품을 제작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해 공간을 연 지 3년 정도, 장 대표는 미유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한다. 그동안 그는 미유만의 감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건 손 편지다. 홈 공방을 운영하던 시기에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미유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

“집에서 만들어 판매할 때는 사실 주문이 하루에 1~2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15~20건씩 꾸준히 들어오니 편지를 쓰는 분량도 그만큼 늘었어요. 남들은 ‘힘들지 않

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라고들 하는데 제가 손이 빨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죠.”

미유는 ‘자취 스타트 키트’처럼 콘셉트 별로 여러 향 제품을 세트로 구성해 판매하기도 한다. 고객들이 고민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동시에 제품 간 어울리는 조합을 추천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가치가게를 통해 얻은 것들

가치가게도 장 대표에게 가게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 미유만의 가치 실현을 통해 고객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마침, 장 대표는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차였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미유의 가치를 환경으로 설정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대신 종이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했

니다. 지금도 꾸준히 종이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이 용기가 향 제품들과도 잘 어울려서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종이로 포장을 하니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는 느낌도 더 잘 나고요. 다만 가끔 제품이 파손돼서, 최소한의 비닐 에어캡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미유만의 가치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다. 장 대표가 가치가게를 통해 얻은 건 또 있다.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다. 혼자 가게를 운영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가치가게사업을 통해 다른 가게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업 초기에 가치가게 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다들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간담회 시간도 가게 문을 닫은 늦은 시각에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저는 ‘아 나만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게 운영하고 제품 만들다 보면 바빠서 다른 가게 분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그렇게나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치가게사업을 통해 여러 가게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요.” ☺





동네한바퀴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58

전화 055-327-2780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afe_dongki/



나와의 약속을 지키다

크고 작은 화분들이 가게 앞마당에 나란히 햇볕을 받고 있다. 화분 옆으로 의자도 몇 개 보인다.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얼핏 '꽃집인가?' 착각하기도 한다. 꽃집만큼 싱그러움이 가득한 카페 '동네한바퀴'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방소희 대표를 만났다.

'우연'이 '결심'이 되다

카페 '동네한바퀴' 방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던 당시 수릉원 근처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다. 식사 후 종종 식당 옆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그 카페가 바로 '동네한바퀴'이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카페를 하기로 했어요. 커피를 좋아



해서 다른 지역의 유명한 커피를 마시러 다니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렇게 2010년에 카페를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 2020년 3월에 지금 이곳으로 이사했다.

사실, 동네한바퀴는 김해에서 처음으로 멜론빙수를 판매한 곳이라 빙수집으로 유명하다. 매장 규모가 커지면서 하나둘 디저트가 생겼고, 이 디저트 중 하나가 '나눔'의 시작이 됐다. "대량 주문 받은 디저트가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만든 적이 있어요. 40개가 넘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던 찰나에 '방주원'이 떠올랐어요. 제가 방주원 근방의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방 대표는 곧바로 방주원(아동복지시설)에 문의 후 디저트를 가져다줬다. 그날 이후 방주원에서 몇 번의 감사 연락이 왔다. 그저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나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회가 되면 후원을 더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때마침 2020년 가을쯤 '가치가게' 제안을 받았고, '나눔'과 '예술'을 실천 가치로 선택했다.

"나눔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라 선택했고, 예술은 카페를 꾸밀 때부터 앞마당을 프리마켓 공간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선택 했어요." 방 대표는 가치가게를 계기로 '언젠가 해야지' 라고 생각만 했던 후원을 실천하게 됐다. 그는 직접 만든 간식을 방주원에 후원하고 있다. "대량으로 만드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제 노력이 들어간 걸 해주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후원은 저와의 약속이라 꼭 지키고 싶어요."

가치를 더욱 가치 있게

"가게에만 있으니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가치 가게는 다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한다는 점도 좋았어요." 방 대표는 가치가게 참여로 사람들과의 교류도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은 딱 한 번, 그것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만난 게 전부라 너무 아쉽다고. 대신 가치가게 명패가 붙은 곳을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치가게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눔, 예술, 다양성 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거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가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더라도 웬지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카페에 가치가게 명패를 붙이고 나서 제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졌어요."

방 대표는 이사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이 지역 예술가의 고충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프리마켓도 구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막막했는데 가치가게 관련 활동가로부터 여러 방면의 도움을 받았다. "프리마켓은 몇 명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팁을 얻었어요. 예술을 하셨던 분이라 매대 디자인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이런 도움 덕분에 프리마켓에 대한 가닥이 잡혔고, 매대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며 마켓을 열 수 있는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후원을 시작하면서 방주원 아이들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쿠폰을 가지고 오면 직접 고른 메뉴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상황이 나아져 그가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동네한바퀴를 상상하니 벌써 마음이 따뜻해진다.

후원을 시작했을 때 방 대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다, 대단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감을 전했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좋아할까? 오히려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시작을 망설이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형식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 방 대표의 행보가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아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





E9 Pay 김해대리점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86번길 10-1
전화 055-312-6198



마음으로 밝힌 불빛

경상남도의 이태원거리라고 불리는 김해 로데오거리, 명성에 걸맞게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는데, 바로 이 거리에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E9pay'가 있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E9pay의 인두닐 대표와 송윤희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배려, 나눔이 일상

E9pay 인두닐 대표는 13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김해로 왔다. 처음 김해에 온 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일을 그만 둔 후 대학교를 다니며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E9pay를 운영하게 된 건 인두닐 대표의 영업력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과 그의 교류를 알게 된 E9pay 본사에서 직접 찾아와 대리점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18년 김해대리점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2호점까지 운영 중이다.

“스리랑카 사람들 상담과 통역을 많이 해줘요. 한국어, 한국 법을 모르면 사소한 것도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전화를 24시간 들고 있어요.” 한국 문화와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인두닐 대표는 평소 스리랑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기꺼이 시간을 내준다. 오랜 시간 꾸준히 도움을 준 만큼 스리랑카 사람들 대부분이 인두닐 대표를 알 정도라고, E9pay는 가치 중에서 ‘나눔’과 ‘환경’을 선택했다. “저희는 가게 불을 계속 켜놔야요. 밤이면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다니기 무섭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두울 때는 저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어도 불이라도 밝으면 덜 무섭잖아요.” E9pay가 불을 켜놓은 건 가치기계에 참여하기 훨씬 전

부터다. 인두닐 대표의 아내 송윤희 씨는 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가치기계라는 이름으로 이어가다보니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남편은 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항상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했어요.” 이처럼 누군가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싶어서, 모두가 함께하는 거리가 깨끗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동한 것들이 가치기계와 만나 조금 더 의미 있는 실천이 된 셈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이웃

E9pay는 불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가게 앞에 의자도 내어놓고 물이나 커피도 나누고 있다. 이곳을 지나가는 어르신들의 작은 침트가 되어주고 있는 것. “한 번은 근처에

서 장사하시는 분이 커피를 마시러 오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쉬었다가 가자며 의자에 풀썩 앉으시더니, 본인 자식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저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종종 여기 오시는 분들과 사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간 부부는 그렇게 이웃 사람들과 진짜 이웃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의자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리고 가치기계로 인해 거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들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가치기계가 생긴 후에는 다 같이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에서 뭔가를 제안하면 흔쾌히 응할 생각이라고 한다. 최근 인두닐 대표는 김해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도 참석해 가치기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날씨에 적응을 못해 많이 아팠어요. 이불 살 돈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이불도 갖다주고 다들 잘해주셨던 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스리랑카의 음식, 차, 종교 등의 문화를 알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의 계획이 꼭 실천으로 이어지길 응원한다. 서로의 문화를 아는 만큼 우리는 가까워질 것이고, 그렇게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송윤희 씨는 인두닐 대표와 함께 스리랑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영업을 위해서 또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돕기 위한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처지는 천차만별이었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여기(로데오거리)는 외국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을 떠나서 그냥 사람 사는 곳에 다른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행보가 이러한 인식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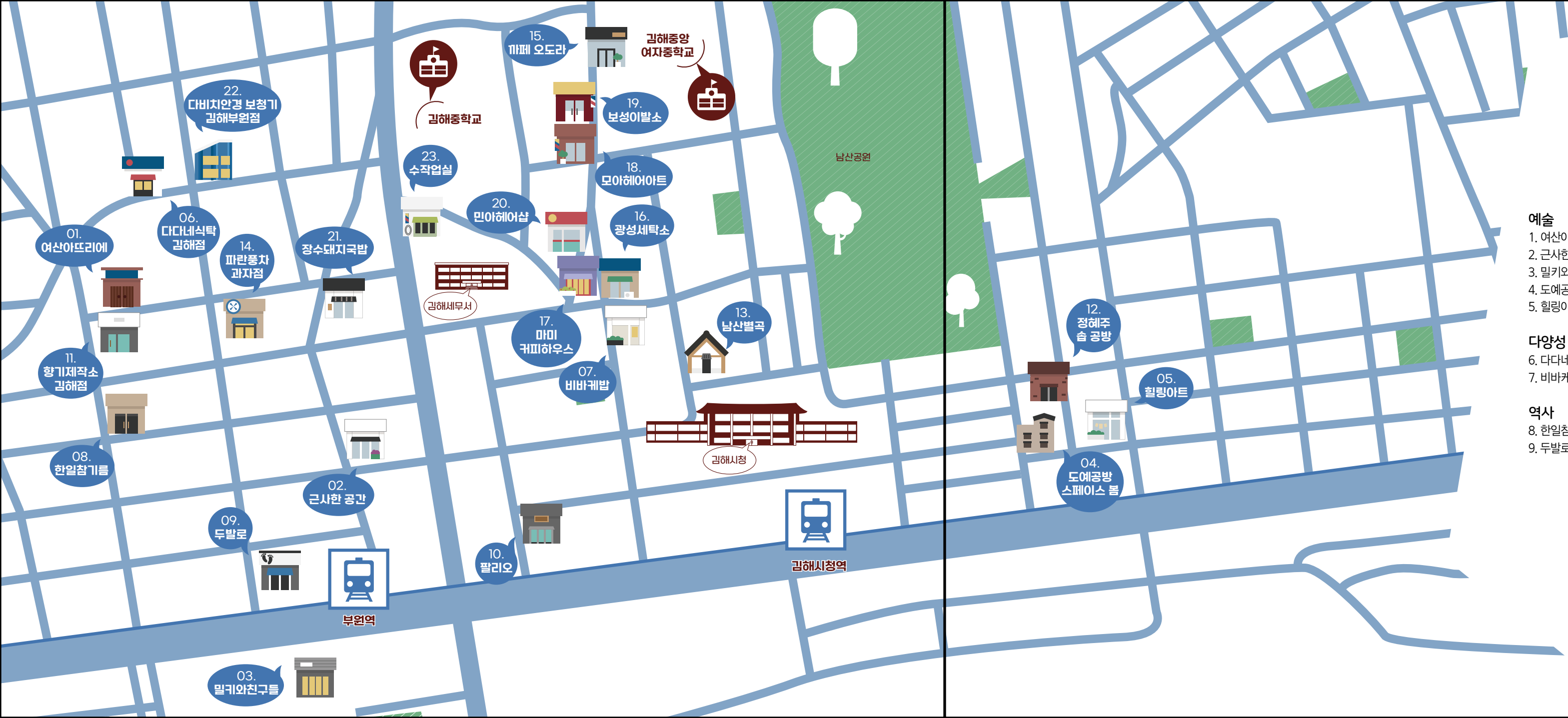


2차 가치가게

김해 부원동 일원



김해 부원동 일원



예술

- 1. 여산아프리에
- 2. 근사한 공간
- 3. 밀키와 친구들
- 4. 도예공방 스페이스 봄
- 5. 힐링아트

다양성

- 6. 다다네 식탁 김해점
- 7. 비바케밥

역사

- 8. 한일참기름
- 9. 두발로

환경

- 10. 팔리오
- 11. 향기제작소 김해점
- 12. 정혜주 슝 공방

나눔

- 13. 남산별곡
- 14. 파란풍차 과자점
- 15. 카페 오도라
- 16. 광성세탁소
- 17. 마미커피하우스
- 18. 모아헤어아트
- 19. 보성이발소
- 20. 민아헤어샵
- 21. 장수돼지국밥
- 22. 다비치안경 보청기 김해부원점
- 23. 수작업실

2차 가치가게



여산아뜨리에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 318번길 40
전화 010-9626-2823



마음을 달래주는 그림, 함께 그려요

부드러운 붓 끝에 물을 적신다. 팔레트에 딱딱하게 굳은 물감이 물을 만나자 제 색을 찾는다. 종이 위 붓이 수십 번 오가더니 다홍색 목단이 곱게 피어났다. 붓을 잡은 작가의 얼굴은 진지함이 묻어난다. 종이 가득 목단 세 송이와 이를 감싸고 있는 푸른 잎사귀가 향기롭게 폈다.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해요.” 여산 조성희 작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여산아뜨리를 운영하며, 수강생들과 함께 그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함께 그리는 공간 '여산아뜨리에'

'여산아뜨리에'는 조성희 작가의 호 여산(如山)과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뜻하는 '아틀리에(atelier)'가 합쳐진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 조 작가가 자신의 수강생들과 함께 그림 작업을 하고 싶어 만들어진 공간이다. 아뜨리에에는 부원동의 한



그는 대학 때 문인화를 접했다. 문인화는 수목화, 인물화, 영묘화(동물화), 초충도(곤충, 식물), 채색화, 시군자 등 한국화의 모든 장르를 담은 그림이다. 조 작가는 “문인화는 선, 먹의 농담(질고 옅은 정도), 여백의 조화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문인화를 그릴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죠. 아주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마음을 달래주는 그림

조 작가는 대학 졸업 후, 경남 거창에서 3년 정도 미술교사로 지냈다. 결혼 후 마산에서 생활하다 1986년 김해로 돌아왔다.

“1986년 현대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에서 작품 ‘국화’로 대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고 고향으로 금의환향했죠.”

조 작가는 김해에서 ‘성신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아이 셋을 키워냈다. 2006년부터 아뜰리에를 열어, 많은 사람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자신의 그림을 그리며 평생을 살아왔다. 이외에도 김해문화원, 김해도서관, 활천동, 동상동, 장유3동주민센터 등에서 문인화를 강의하며 일상을 보내왔다. 그렇기에 조 작가에게 그림은 ‘생명’, ‘보물’로 여겨왔다.

그는 “그림은 저를 살아가게 하고, 삶을 지탱해준 생명력이죠. 저의 재산 1호입니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누구보다 그림, 예술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를 잘 안다. 여산아뜨리를 운영하는 이유도 예술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줘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돈이 많이 드는 활동이죠. 형편은 어렵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아뜰리에에 오셔서 배우셨으면 해요.” 여산아뜨리에의 수강 시간은 자유롭다. 평일 오후, 수강생

주택 골목에 있다. 아뜨리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세 개인 아뜰리에가 나온다. 거실은 여러 개 탁자가 붙어있다. 탁자 옆에는 피아노가 서 있고 그 위에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상패와 위촉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방마다 조 작가의 작품이 걸려있다. 소파 뒤편, 쿠션 걸싸개 등 그림 모두 조 작가의 작품이다. 벽에 걸린 작품에는 연분홍색 연꽃이 피었고, 다른 작품에는 보랏빛으로 영근 포도가 나무에 달렸다. 조 작가와 수강생들은 온 종일 꽃과 나무에 둘러싸여 목단, 연꽃, 난, 대나무 등을 종이 위에 피워낸다. 평생을 그린 그림이지만, 조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말한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초등학생 때부터였다. 조 작가는 김해 한림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해여자중학교, 김해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가락문화제가’ 열렸어요. 거기에 참석해서 큰 상을 받았죠. 초등학교 시절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머니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덕분에 대학서 미술을 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유로운 시간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만큼 그렸다 갈 수 있다.

'마음의 휴식처' 되고파

조 작가는 86년부터 지금까지 김해 전역에서 그림을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셀 수 없이 많다. 그에게 그림을 배웠던 제자는 많지만, 조 작가가 잊을 수 없는 제자들은 만학도들이다. 그는 “지금도 일흔아홉에 수강생이 저희 아뜰리에에 오셔서 그림을 그리세요. 만학도를 보면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워요. 예전에 어떤 분은 아주 열심히 그림 공부하시더니, 각종 미술대회에서 수상하시고 작가로 데뷔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보람이 생기죠”라고 웃었다.

조 작가는 여산아뜨리에가 찾는 이들의 '마음의 휴식처'가 되길 바랐다. 그는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누구든지 부담 없이 여산아뜨리에를 찾아왔으면 해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여산아뜨리에가 마음 편히 마음껏 그림 그리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





근사한 공간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16번길 15
 전화 010-8689-3919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tswonderfulplace



꽃 한 송이로 근사해지는 공간

‘근사하다’는 형용사로 ‘그렇듯하게 괜찮다’는 뜻이다. 부원동의 한 골목길, 새하얀 외관에 꽃집이 있다. 꽃집을 들락거리던 사람들의 손에는 작약 꽃 한 송이, 튤립 한 다발이 들려있다.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골목길에서 꽃 한 송이를 든 사람은 그 자체로 근사해진다. 가게 이름처럼, 가게를 들렀다 나오면 근사한 사람으로 변하는 ‘근사한공간’을 찾았다.

마음이 담긴 꽃다발

네모난 창틀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공간을 사선으로 가로지른 빛은, 고개를 쪽 내민 초록 잎사귀 위로 내려앉았다. 몬스테라, 홍콩야자, 애드시나, 극락조. 근사한공간은 아프리카, 유럽, 서아시아 등 각국에서 모여든 식물의 초록 물결로 생기가 가득했다.



로 손질해 시원한 냉장고에 넣어둔다. “저기, 꽃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근사한공간을 찾는 손님들은 가게 문 열고 들어온 손님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말한다. 박 대표는 꽃을 꺼내 색색별 포장지로 꽃을 감싸, 손님에게 건넨다. 꽃은 선물하는 사람, 선물 받는 사람 모두 웃게 하는 마법을 지녔다. 이 때문에 박 대표는 꽃은 ‘마음’이라 정의한다. “꽃다발에는 여러 의미가 담겼죠. 축하, 프러포즈, 설렘, 위로 등 말이예요. 꽃은 꽃을 선물한 상대방에게 힘이되지 않고 마음을 전해요. 그게 꽃의 매력이지요.”

예술이란 기쁨

박 대표는 ‘예술’의 가치를 근사한공간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는 예술을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박 대표는 “길거리에서 꽃을 사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예술은 어려운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영감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예술이 아닐까요? 꽃 한 송이만으로 평범한 일상이 근사하게 바뀌잖아요”라고 말했다. 근사한공간은 단순히 꽃과 식물만 사 가는 공간이 아니다. 꽃꽂이를 배우는 일일 수업, 취미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수강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취미반은 봄과 가을,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8주 구성으로 진행된다. 박 대표는 “근사한공간에서는 꽃다발, 꽃장식 등 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근사한공간에서는 파티, 브라덜샤워 등 공간대여도 진행하

이곳은 2017년 12월 문을 열었다. 박상희 대표는 대학시절 서양화를 전공했다.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인가를 고민하던 20대.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박 대표는 언니 회사의 동호회에서 우연히 꽃 수업을 듣게 됐다. 그 기회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꽃시장을 쓰다녔다. 그는 꽃꽂이하며 꽃과 사랑에 빠졌다. 취미로 시작한 꽃은 박 대표의 미래를 함께하게 됐다.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했어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은 한정적이었죠. 우연히 꽃 수업을 듣고, 흥미가 생기면서 꽃집 아르바이트까지 이어졌죠. 꽃을 만지고, 꾸미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지 싶어 화훼 장식기능사 등 꽃과 관련된 자격증도 땀어요. 결국 꽃집까지 열게 됐죠.” 박 대표는 일주일에 서너 번 부산 사상구 엄궁동 화훼시장에 들려, 작약, 스위트피, 장미, 튤립 등 꽃을 한 아름 안고 가게로 돌아온다. 꽃줄기에 붙은 입을 떼 내주고 꽃을 가위

고 있다. 꽃과 식물이 가득한 공간과 분리된 중간 문을 열면, 가게 안쪽으로 커다란 식탁과 소파가 마련돼 있다. 공간대여 공간은 솟대에 꽂힌 초, 아기자기한 도자기, 금테를 두른 전신거울 등으로 꾸며져 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약속된 시간 동안 친구들과 다과를 나누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사진으로 남긴다.

‘진짜’ 근사한공간

근사한공간이 있는 부원동은 김해세무서, 김해시청 등 관공서, 빌라 등 주택이 들어선 곳이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 덕분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근사한공간의 문을 연다. 근사한공간이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딸과 아버지가 함께 이곳을 찾아 결혼기념일 꽃다발을 고르기도 했다. “당시 가게를 찾은 손님 중 아버지가 딸에게 ‘너도 꽃 하나 골라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어릴 때를 떠올려보면 아버지가 저에게 꽃을 사주신 적은 없거든요. 내심 부럽기도 했죠.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 만나,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부원동의 매력 같아요.” 박 대표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근사한공간이 편안한 사랑방이 되길 바랐다. 그는 “이곳이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더불어 일상이 지루하고 평범한 분들이 꽃 한 송이로 미소 짓게 만드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





밀키와 친구들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1층 d129호
 전화 010-4502-4698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milkyandfriend



내 생각이 실현되는 공간, '밀키와 친구들'

곰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동그란 눈의 치와와 '밀키'는 커피 공화국에 산다. 밀키 옆에는 카페오레를 떠올리게 만드는 보스턴테리어 '오레', 보글보글 올라온 카푸치노 우유커피를 담은 푸들 '치노'가 함께 있다. 밀키와 친구들은 커피공화국에서 바다 옆 모래성을 쌓고, 동백나무 밑 동백꽃을 주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김해 아이스퀘어몰 1층 '밀키와친구들'공방에는 밀키와친구들의 모습이 캔버스, 도화지에 담겨 사람들을 맞이한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밀키와친구들처럼 이 공방에서는 가죽공예, 수채화, 미싱 등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밀키와친구들, 세상에 나온다

'밀키와친구들'을 운영하는 윤연희 대표는 일본에서 10여 년 넘게 직장생활 했다.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1997년 일본 디자인회사 ㈜르쁘라에 디자이너로 입



사했다. 르쁘라에는 홈 인테리어 소품 제작 회사였다. "한국의 디자이너는 캐릭터 개발만 하면 됩니다. 일본은 캐릭터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모든 일을 디자이너가 담당해요. 머릿속에 있는 캐릭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디자이너의 몫인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 재봉틀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원단 소재를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죽도 보고 제작할 수 있게 됐죠."
 윤 대표는 결혼 후 ㈜이마이베이비, ㈜카가쇼카이에서 10년간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밀키와친구들은 2008년 그가 일본 ㈜카가쇼카이에 다녔던 시절 개발한 브랜드다. ㈜카가쇼카이는 유명 캐릭터를 차용해 문구제품을 제작하던 곳이다. 당시 회사 대표는 윤 대표에게 자체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키웠던 치와와 '파티'를 모델로 캐릭터 '밀키'를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밀키는 상품화까지 되지 못했다. 그러다 윤 대표는 아쉬운 마음에 밀키와친구들을 그려 넣은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경매 온

라이사이트에 올린 작품은 원화로 70~80만 원까지 오르더니, 거래가 성사됐다. 그는 이에 힘입어 2008년 온라인쇼핑몰을 열었다. 1인 1펫 시대라고 불렀던, 당시 일본에서는 자신 키우는 반려견과 비슷한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주문했다. "물량이 늘면서 직원도 채용하고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담요, 시계 등 생활용품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했죠. 하루에 세 시간씩 자고 일했던 시절이었어요."

예술, 마음을 매만진다

일본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던 2017년 윤 대표는 정신없이 보내는 시간에 대해 허무함이 밀려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계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다. 윤 대표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깊어졌다. 윤 대표는 홀로 귀국해 김해에 자리 잡았다. 일본에서 있던 시절 쌓아둔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2018년 '밀키와친구들' 공방 문을 열었다. 공방은 염서, 수건, 파우치, 에코백, 가죽가방, 컵을 만들어 판매한다. 이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죽, 재봉틀 등을 배우고 싶고 만들고 싶은 수강생들이 밀키와친구들을 방문한다.
 윤 대표는 "예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반려견을 보고 만든 캐릭터가 곧 작품이 됐잖아요. 공방에 직장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와요. 다들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하며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공예를 시작하죠. 저는 수강생 옆에서 제가 배웠던 걸 알려줄 뿐입니다. 수강생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던 걸 만들면서 행복해

하죠. 덩달아 자존감도 올라가요"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감정이 메마르면 마음의 병이 든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돌봐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방에서 수강생들은 가죽, 천, 붓과 물감 등 재료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잖아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 그 결과가 모두 예술인 거죠"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

밀키와친구들을 찾는 수강생은 20대 직장인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하다. 수많은 수강생이 밀키와친구들을 오갔지만, 윤 대표는 열정 가득했던 한 어르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70대 어르신이었어요. 저한테 '나는 나이가 칠십도 넘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바늘도 못 꿰지만, 미싱 공예에 한번 도전하고 싶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입으셨던 20년 정도 된 가죽 재킷을 가져오셔서, 직접 분해해 가방을 만드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도전에는 나이가 상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했죠."
 윤 대표는 밀키와친구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랐다. 그는 앞으로 김해를 넘어 창원에서 밀키와친구들의 공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일 내내 업무에 치여 있다가 오신 수강생들은 이곳에서 재충전한다고 많이 말해요. 재충전과 동시에 자신이 숨겨진 재능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저는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오는 7월쯤 창원의 한 카페를 운영하며 공방을 새롭게 문을 열 생각이에요. 창원에서도 '밀키와친구들'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





도예공방 스페이스 봄

주소 경남 김해시 활천로5번길 6-14 1층
전화 010-2623-6061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j6062>



긴 호흡으로 천천히 만드는, 나만의 도예 세계

황톳빛 흙덩어리가 덩어리 채로 작업대 위에 오른다. 다섯 손가락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며 흙을 매만진다. 조각칼로 흙이 잘리고, 덩어리였던 흙은 만지는 손길에 따라 컵, 화병, 접시 등이 된다. 만든 이의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은 손을 거쳐, 하나의 작품이 된다. 도자기로 유명한 김해 진례면을 가지 않고도, 도심에서 흙을 조물거리며 도예 세계에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부원동 '스페이스 봄'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2018년 문을 연 '스페이스 봄'은 창작스튜디오이자, 이해정 작가의 첫 개인 작업 공간이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이 작가는 결혼, 육아하며 흙을 만지거나, 조각을 다시 할 여유



가 없었다. 그는 대학 시절 흙과 마주하며 작업하던 시간은 그저 추억으로 마음에 새겨둬야 했다. 이 작가의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그는 자신의 봄날을 찾기 위해 나섰다. 그렇게 문을 열게 된 게 스페이스 봄이었다. "도자기 작업을 할 개인 작업실이 필요했어요. 결혼 후 작업실을 마련하기까지 15년이 걸렸네요. 매일 이곳에 출근해 손을 풀고, 즐겁게 작품 활동하고 있죠. 개인 전시회를 거창하게 열기보다는 현재 작품 만드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봄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흙냄새가 물씬 풍긴다. 컵, 접시, 화병, 그릇 등이 선반 곳곳에 전시돼 있다. 스페이스 봄 안쪽 작업 공간에는 작업대 위 조각칼과 흙덩어리가 올라가 있다. 작업 공간 한쪽에는 수강생들의 작품들이 건조되고 있다. 이곳은 도자기, 테라코타(*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을 의미한다. 점토를 말리고 조각하고, 굽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만든 입체적인 조소와 조형물 등이 속한다), 입체 조형 등을 작업할 수 있다. 평소 생각을 흙을 재료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강생은 일주일에 한두 번 스페이스 봄을 찾는다. 수업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작가는 "처음 오는 분에게는 손으로 흙을 빚은 기법을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중급, 고급반으로 가면 물레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자유 창작 수업으로 수강생이 자유롭게 작품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예술'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예, 그림그리기 등 미술 활동을 시작하는

데 주저한다. 이 작가는 이러한 생각들이 평가받던 교육 시스템에서 온 편견이라 말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미술은 과목의 하나로, 학교에서 평가받아왔잖아요. 미술, 예술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집중해서 연습하고 표현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작업이 생겨 '완성'되어 감을 느낄 겁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예는 생활 물품을 많이 만들지만, 이 또한 예술 활동이죠. 많은 사람이 예술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즐겼으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였다.

선한 즐거움, 느낌의 미학이 공존하는 공간

흙을 만질 때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허용되지 않는다. 손은 흙을 매만지고, 정신은 오로지 흙에 향해 있어야만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흙을 만지는 순간엔 회사, 집안일 등에 온전히 벗어나 흙과 나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오는 차분함과 안정감은 도예만이 가지는 매력이다. 이 작가는 "도예 작업은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작업이 부러워 빠른 호흡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작품에 금이 가거나 결과물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작업을 할 때는 자신의 호흡에 신경 쓰면서 천천히 만들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도예는 천천히 자기 호흡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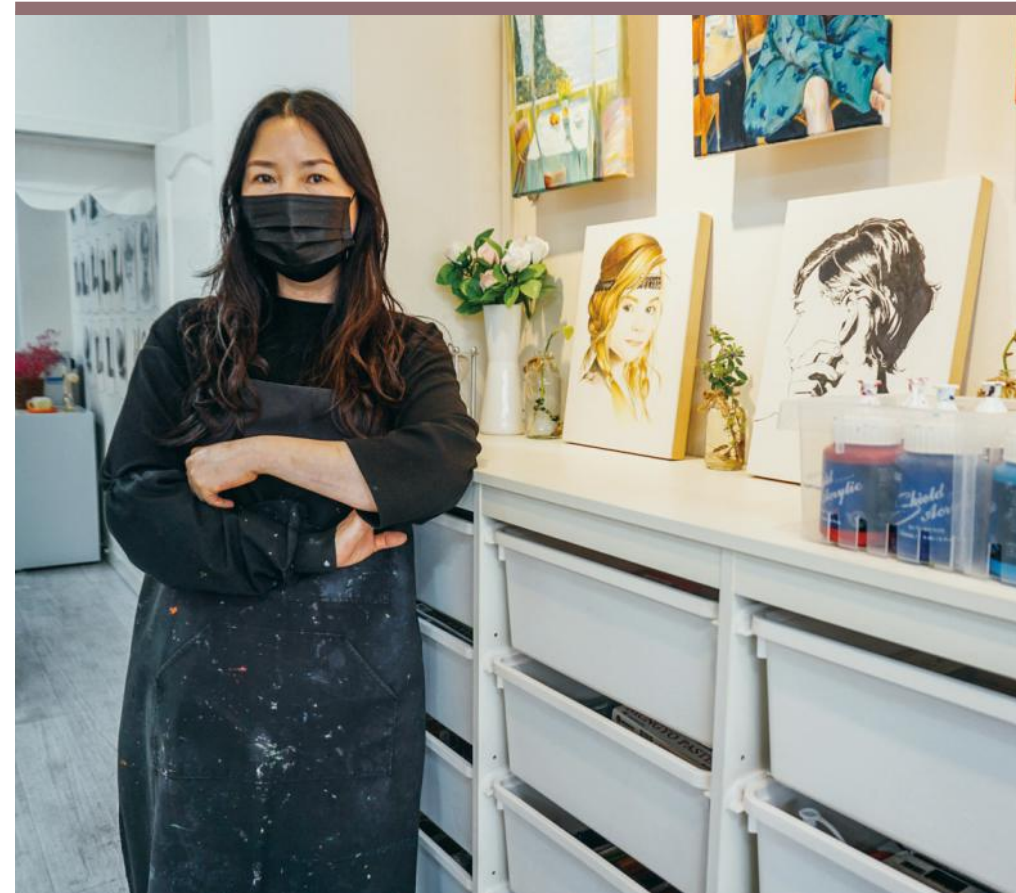
'선한 즐거움과 느낌의 미학이 공존하는 공간.' 이 작가는 스페이스 봄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가 말하는 선한 즐거움은 흙 자체가 주는 기쁨이다. "흙"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은 순수함이라 생각해요. 자연에서 온 흙은 손으로 만지는 대로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는 흙 자체의 이미지가 '선함'이라고 생각해요. 흙을 만지는 사람들은 어릴 적 모래놀이, 흙장난하듯 동심으로 돌아가지요. 가치기계에 참여하는 '예술'의 가치가 이런 것 같아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흙을 만지며 예술을 즐기는 것이요." 스페이스 봄이 이 작가에게 새로운 봄날이 되었던 것처럼, 그는 이 공간이 많은 이들에게 봄날 같은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랐다. 이 작가는 "사람마다 다양한 창작의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잘 몰라 경험하지 못하죠. 작업실을 만들기 전에 저도 여러 작업실을 전전해 봤지만,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 스페이스 봄이 그런 공간이었으면 합니다"며 웃었다. ☺





힐링아트

주소 경남 김해시 활천로 11 (부원아파트 상가101호)
 전화 010-2468-2230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ealing_art_



지친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하다

새하얀 도화지 위 연필이 좌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니 나무 한 그루가 완성된다. 물에 붓을 적신 뒤, 수채화 물감을 붓에 칠한다. 도화지가 초록색 물감을 머금더니 연필로 그린 나무 위에 잎사귀가 피어난다. 연필과 붓을 손에 든 순간, 세상에는 나와 도화지만 있다. 선을 긋고 색칠하는 순간마다 일상은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 '힐링 아트(healing Art)' 단어 뜻 그대로 지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예술로 치유하는 공간, 삼정동 '힐링아트'를 찾았다.

마음 편히 그림 배우는 공간

“언니한테 미술 배우러 가면 안 돼요? 어른들이 그림을 배울 미술학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힐링아트 오선미 원장 지인들에게 종종 ‘미술 지도’를 요청



받았다. 취미로 미술을 배우고 싶은 어른들이 마음 편히 미술 지도를 받을 학원을 찾기는 어려웠다. 미술학원 대부분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오 원장은 “지인들이 취미 활동으로 미술을 학원에 배우러 가면, 학생들에게 치여 늘 뒷전이 된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곳이 잘 없었어요. 수도권은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학원이 있지만 경남권에서는 잘 찾기 힘들더라고요. 제 작업실 겸 취미 미술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했습니다”고 말했다. 2019년 힐링아트가 문을 연 뒤 20대부터 80대까지 많은 사람이 힐링아트를 찾았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비어있던 벽면은 수강생의 작품으로 채워졌다. 일러스트, 수채화, 유화, 팝아트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벽면에 수강생 작품이 하나씩 걸리는 동안, 수강생들은 그림 그리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했다. “저는 이런 거 해 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처음 방문

한 수강생들은 저랑 상담하면서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체능은 억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림에 관심은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미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던 분이죠. 단지 그동안 그리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림을 그릴 계기가 없었을 뿐이죠. 제가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결국 해내십니다.” 힐링아트 수강생들은 누구보다 그림 그리는 시간을 즐긴다고 한다. 그림을 그리다 ‘만족감’을 느낀 수강생은 행복에 젖는다. 오 원장은 수강생들이 그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행복을 느낀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힐링아트에서는 수강생도 원장도, 서로서로 마음을 치유한다.

작품 완성과 함께 올라가는 성취감

힐링아트는 수강생의 시간에 따라 주 1~3회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미술을 처음 배우는 수강생 대부분은 석고 원, 원뿔각을 그리며 선 연습을 하는 기초 과정을 넘기 어려워한다. 오 원장은 이런 점을 감안하며, 수강생들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며 미술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수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기초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강생이 지루해하는 과정이죠. 작품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에 필요한 기본기를 알려드려요. 작품 하나를 완성하며 성취감도 높고, 실력도 느는 거죠. 다들 뿌듯해하십니다”고 말했다. 힐링아트 입구에는 ‘재료 무상 일체 지원’ 문구가 쓰여 있

다. 연필, 붓, 물감 등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재료 모두 수강생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다. 이는 오 원장의 배려다.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오 원장은 “저는 미술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술을 대학에서 전공해야지만 작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술을 진지하게 취미 생활로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가가 될 수 있어요”라며 웃었다.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림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 이미 힐링아트는 많은 수강생의 치유 공간이 됐지만, 오 원장은 앞으로도 힐링아트 단어 그대로의 공간이 되길 바랐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치유’예요. 제 공간에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어 기쁩니다. 정말 그림 그리는 게 좋으신 분들은 굳은 날씨에도 힐링아트에 그림 배우러 오시기도 해요. 미술을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하시죠. 미술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웃고 즐기며 지친 마음을 다독였으면 합니다. 이 공간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애쓰겠습니다.”





다다네식탁 김해점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49번길 6-1
 전화 010-9862-7200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adane_table_gh



정직함 담은 덮밥 한 그릇

이른 아침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가게에 도착해 그날 판매할 재료를 손질한다. 오전 11시 30분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손님을 맞이한 뒤, 매장을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는다. 다다네식탁 김승표 대표의 하루다. 가게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맛있다'며 꾸준히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정직한 한 끼를 전하고 싶다는 다다네식탁을 다녀왔다.

다다네식탁, 새로운 시작

다다네식탁은 부원동 가락로49번길, 일명 '수로왕길'에 자리하고 있다. 2019년 말 '수로왕길 조성 프로젝트'로 지원 받아 문을 연 연어장덮밥·새우장덮밥 가게로, 김승표 대표

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 공간이기도 하다. "수로왕길 조성 프로젝트에 창업 지원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식당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당시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퇴사를 결심하고 다음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지원 사업은 소자본창업이 가능했으니 제겐 좋은 기회였습니다. 덮밥으로 메뉴를 정한 건, '다다네식탁' 본점 격인 창원점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어서 레시피 등을 배울 수 있었고, 김해에는 연어장과 새우장을 판매하는 가게가 적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죠."

여러 우연과 기회들이 닦아 2020년 2월 '다다네식탁'을 오픈했지만, 출발이 쉽지는 않았다. 때마침 코로나19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잘 운영되던 가게들도 어려운 시기였으니, 이제 막 문을 연 김 대표에게겐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 한 그릇 팔던 날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기껏 제 조해둔 장들을 버리기도 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모든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 몸이 힘든데, 장사가 잘 안되니까 마음도 힘들었죠. 그래도 다행히 배달을 시작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 만든 음식

다다네식탁은 손님이 물리는 점심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김 대표가 재료 준비부터 손질, 음식 제조, 내부 관리 등을 도맡아 한다. 김 대표는 홀 내부 청소도 손수 하는 편이다. 자신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한 번 더 가게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바쁠 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청소를 맡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청소하면서

식당의 청결도를 한 번 더 체크할 수도 있고요. 재료도 일일이 제가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음식이기도 하고 특히 장류 다 보니 언제 만들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객에게 낼 때 가장 좋은 상태의 음식을 내보내기 위해서죠."

무엇보다 다다네식탁을 운영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김 대표에게 식당의 원칙은 밥값 하는 한 끼를 고객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고객이 음식을 다 먹은 뒤 '값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한 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어장이나 새우장이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태지만 제 눈에 신선도가 떨어지면 고민하지 않고 버리거나 제가 먹어서 소진합니다. 아까워도 그렇게 지켜온 원칙 덕분에 조금씩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양성, 함께하기 위한 마음

다다네식탁이 위치한 부원동 가락로49번길은 외국인들이 많은 원도심과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카페와 식당이 자리 잡으며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붐비단길을 잇는 길이다. 그 덕분인지 다다네식탁에도 외국인 손님이 드물지만 방문한다. 김 대표가 가치기게사업을 신청하면서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기로 결심한 이유다. "가치기게사업에 참여하고 다다네식탁이 어떤 가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외국인 손님이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메뉴판이 한국어로만 적혀 있는 게 다였기 때문에, 동행한 한국인이 하나하나 메뉴를 설명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메뉴를 영어로도 적고 그림을 함께해 놓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죠."

나마 이곳 거리의 활성화나 가게 홍보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사실 아직 제가 가게 홍보에 적극 나서질 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가게에 도움이 된다면 참여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가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있어요. 사실, 거리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하면 버스킹 공연 등 단발성 행사가 열리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실제로 이 거리에서도 진한 적이 있고요. 하지만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분들이 가게에 들어올 확률은 더더욱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쿠폰북 같은 걸 만들어서 할인된 금액 만큼 가게에 보전해 주는 식의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김 대표는 이 거리에 더 많은 식당과 카페가 생길길 바란다. 누군가는 경쟁업체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는 가게가 많아져야 거리에도 활기가 들고, 방문객들이 늘어 결국은 다다네식탁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 거라고 기대한다. "아직은 다다네식탁을 운영하는 데 집중해서 매출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후에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지만, 식당이 잘 운영되면 온라인 마켓이나 사업 컨설팅으로 확대해가고 싶습니다." ☺





비바케밥

주소 경남 김해시 호계로438번길 22
전화 055-313-0233



다채로운 맛,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비바케밥'

케밥(Kebab)은 작게 썬 고기 조각을 구워 먹는 요리다. 양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에 파프리카, 양파, 토마토 등 각종 채소를 더해 만든다. 유럽 터키에서 시작된 이 요리는 7천785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됐다. 고기와 야채가 소스와 어우러진 케밥은 한 입 베어 물면 새콤달콤, 매콤한 맛에 자꾸 먹게 된다. 다양한 재료가 어울려 다채로운 맛을 내는 케밥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어우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비바케밥을 찾았다.

'먹는 즐거움'이 알려준, 새 시작

김해시 호계로438번길, 김해시청으로 가는 길목에 하얀 외관의 비바케밥이 있다. 비바케밥 김수정 대표는 지난해 7월 이곳의 문을 열었다. 그는 10년 전까지 병원에서 근무했다. 김 대표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떠올랐던 생각들이 지금 케밥 가게를 열게 이끌었다.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은 식사 시간이에요. 원하는 반찬을 손가락에 올려 맛있게 즐기는 시간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먹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서른여덟이 되던 해, 인생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년’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끝자락이었다. 김 대표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청춘 푸드트럭’ 사업에 신청했다. 김 대표는 “부모님이 음식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을 지켜 보면서 음식 장사가 매력 있다고 생각했죠. 때마침 김해시에서 푸드트럭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더라고요. 운 좋게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남도 내를 오가며, 푸드트럭을 운영했습니다.” 김 대표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한식, 중식, 양식 등 각종 요리를 푸드트럭을 찾는 손님에 내어줬다. 덕분에 그의 음식습씨는 나날이 발전했다. 청춘푸드트럭사업이 끝나면서, 김 대표는 부원동 호계로에 ‘케밥’을 주 메뉴로 한 음식점 문을 열었다.



전 세계 문화가 어울리는 공간

비바케밥은 푸드트럭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김 대표가 조리법을 개발해, 완성한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는다. 케밥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다. 간단하고 배부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김 대표는 “한식과 비교해 케밥은 맥도날드, 롯데리아와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감자튀김처럼, 보편적인 맛의 기준이 있는 음식이다. 사람 입맛과 기호에 따라 ‘짜다. 싱겁다’라고 평가되는 한식과 비교하면 일정한 맛을 낼 수 있어 사람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비바케밥은 ‘멕시코산칠리포크케밥’, ‘그릴치킨케밥’, ‘에그베이컨케밥’, ‘타코(토르티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먹는 멕시코 전통요리)’ 등을 판매한다.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멕시코산칠리포크케밥’과 ‘그릴치킨케밥’이다. 김 대표는 “저희 가게 케밥에 들어가는 고기는 전체적인 맛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기 자체를 양념에 숙성시켜 조리합니다. 멕시코산칠리포크케밥은 고기만 먹어도 ‘아! 멕시코’ 넘도록 배려한 것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주말과 휴일 많은 외국인이 가게를 찾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외국인들은 종종 다른 음식도 들고 와서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공유해요. 옆에서 보면 음식 문화를 즐긴다는 느낌을 들어요. 메뉴판에 영어를 추가했을 뿐인데도, 가게 안은 전 세계의 문화와 언어가 섞여서, 다채로운 색을 가진 공간이 돼요.”



또 먹고 싶은 케밥, 만들고파

“정말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가게를 찾는 손님의 말 한 마디, 음식 한 점 남김없이 깨끗한 빈 접시는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다. 김 대표는 비바케밥의 음식이 맛있다고 다시 찾아주는 손님들 덕분에 요리한다고 기뻐했다. 김 대표는 “한 번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이 배달앱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또 주문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 지인을 모셔 와서 저희 음식을 맛보라고 소개해주고, 알려줄 때 ‘음식장사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하며 웃었다. 그는 “한 번은 음식점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일전에 저희 가게에서 케밥을 한 번 먹었는데, 먹다 보니 이 맛있는 걸 엄마한테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신 거죠.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어서 주문하신다고 하더군요. 이 맛에 음식장사 하나 봐요”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비바케밥이 누구나 부담 없이 찾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비바케밥이 사람들이 오며 가며,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며 찾는 곳이었으면 해요. 케밥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 에이드 등 음료도 팔고 있어요. 국적, 인종에 상관 없이 모두가 함께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비바케밥이 되고 싶어요.” ☺





한일참기름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25번길 24
전화 055-336-5641



참기름 한 방울에 담긴 '신뢰'

1986.
‘한일 참기름’이라 써진 파란 배경의 간판에는 한일참기름이 문을 열었던 그 시간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커다랗게 적혀 있다. 밤갈색의 낫은 새시, 매일 씹 없이 기름을 짜내고, 통깨를 볶음 기계들은 가게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가게의 문지방은 드나든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반들반들하게 닳았다. 가게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인 ‘한일참기름’을 찾았다.

하루 1만 5천보와 맞바꾼 기름
한일참기름은 한경덕 대표의 어머니 권옥진 씨가 매일 참기름, 들기름 짜냈던 곳이었다. 한 대표는 권옥진 씨의 대를 이어 2대째 이 가게를 운영 중이다. 한 대표의 일과는 쳃바퀴 돌듯 비슷하다. 오전 7시 가게 문을 열고, 커피믹



스를 한 잔 타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식당 등지에 참기름 납품 주문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통깨 자루에 통깨를 퍼 담고, 통깨를 물에 씻는다. 바람에 잘 말려진 통깨를 기계에 넣어 볶는다. 160도 온도에서 볶아진 통깨를 소쿠리에 퍼 담아 한소끔 식힌 뒤, 기름 짜는 기계에 통깨를 담는다. 통깨를 넣은 뒤 몇 분이 지나면 압착된 통깨에서, 갈색빛 기름이 주르르하고 흘러나온다. 기름받이 통에 채워진 기름은 다시 ‘한일참기름’ 상호가 적힌 빨간 스티커가 붙여진 기름병에 나눠 담근다. 글만 보면 간단한 작업 같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한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다. 그의 손은 볶아진 통깨 안에 너무 타버리거나, 불량인 통깨를 일일이 솟아낸다. 통깨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 기계 안에 통깨를 담고, 기름을 일일이 기름병에 나누는 일을 부지런히 해내고 있다. 정오가 되기 전, 납품할 기름을 다 짜내면, 한 대표는 여름이면 미숫가루를 볶고, 가을이면 고춧가루를 뺀다. 봄에는 파릇파릇 돋아난 봄나물을 참기름에 무쳐 먹는 일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봄이 오면 한일참기름의 문지방은 손님들의 발걸음으로 더 반질반질해진다. 한 대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2시간을 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을 오간다. 그가 가게에서 걷는 걸음만 1만 5천 보가 넘는다. 한 대표의 부지런함 덕분에 가게 안과 가게 앞 골목은 매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끊이지 않는다.

‘한일참기름’만의 자부심
오래된 가게의 역사만큼 한 대표의 기름 철학과 자부심은 남다르다.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기름은 깨를 분쇄한 ‘깨분’을 가지고 기름을 짜내지만, 저희 가게는 통깨를 압착해 기름을 만들어내지요. 저희 어머니가 2003년 돌아가시기 전부터 함께 일하며 기름 짜는 노하우를 배웠어요. 가게서 만들어내는 기름은 (사)한국식용유지추가공업협회의 ‘자기품질위탁검사’를 진행해 벤조피렌(발암물질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꼼꼼한 관리와 부지런함 덕분에 멀리서도 한일참기름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그는 “단골은 부원동을 떠나 이사를 가셔도, 우리 집 기름을 사러 찾아오십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한일참기름, 기름 맛있다’고 소개해 주시고요. 기름 맛있다 소문 듣고 찾아오는 손님도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 매일 부지런히 일한 보람이 있죠”라며 웃었다. 그는 ‘한일참기름’의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비법을 알려줬다. 통깨를 압착해 만든 참기름은 상온 보관해야 한다. 참기름은 보관을 하다가 보면 깨분이 가라앉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깨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깨분 위에 뜬 기름만 먹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참기름을 쓸 때 꼭 흔들어서 가라앉은 깨분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세요. 그렇게 먹어야 더 고소합니다”고 강조했다.

들기름은 오메가 3가 들어있어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산패되기 쉽다. 소비기한을 기름을 짠 날에서 2개월 정도로 본다. 이 때문에 들기름은 꼭 냉장 보관해야 한다. 처음 들기름을 쓰고 난 뒤, 들기름병에 참기름을 기름병의 6분의 1정도 부어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손님과의 ‘신뢰’ 지킬 것
한 대표는 최근 중국의 참깨, 들깨 농사 면적이 40% 준 탓에 참깨와 들깨 값이 꺾중 뒤편이라고 한다. 그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원재료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기름과 들기름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진열된 참기름병 옆에는 가격 상승을 알리는 공지문이 놓여 있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깨 농사 면적을 줄이고, 거기에 콩과 옥수수를 심었답니다. 원재료가 오르면 저희도 올려겨자 먹기로 기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네요. 그 점이 손님들한테 참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한일참기름의 맛이 30년 넘게 변함없는 건, 한 대표가 매일 꾸준히 반복된 일을 하는 덕분이다. 그에게 ‘한일참기름’의 공간은 손님과의 신뢰의 공간이자, 약속의 공간이다. ☺





두발로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4
전화 010-6222-8470



좋은 신발과 함께 '역사'도 봉투에 담아 가세요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요즘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국산 신발'을 판매해, 고객에게 '좋은 신발'을 알려주는 가게가 있다. 잊혀 가는 국산 신발의 오랜 역사도 함께 담아갈 수 있는 부원동 '두발로'다.

김해서 만든 신발, 아시나요?
부원동 두발로 가게 입구에는 장화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손님을 맞이한다. 장화를 비롯해 털신, 우의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 거리를 오가는 손님의 눈길과 발길을 붙잡는다. 두발로 가게 안은 신사화, 여성화로 구분된 각종 구두와 운동



화 등이 찾아온 손님을 반긴다. 이곳을 찾는 손님은 60대 이상의 어르신이다. 두발로 김동위 대표는 "저희 가게가 위치한 거리에는 한의원, 정형외과 등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에게 이 거리가 핫플레이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저렴하고 튼튼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고 소개했다. 한때 부산과 김해는 한국 신발산업의 전성기를 누렸던 도시다. 한국 신발산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신발산업은 1919년 서울 '대륙고무공업'이 만들어지며 시작됐다. 4년 뒤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일영고무공업사'가 세워졌고, 이후 삼화고무, 태화고무, 국제고무 등 부산을 중심으로 신발공장이 대거 설립됐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고무신은 미국에 수출되는 유망 수출품이었다. 1972년 '국제상사'가 부산 사상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발공장을 만들면서, 부산은 신발산업의 중심이 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프로스펙스(PRO-SPECS)'는 1981

년 국제상사가 만든 신발 브랜드였다. 국제상사는 1990년대 김해 안동에 1만 4천800여㎡(4만 5천 평) 공장을 지어 월 60만 켈레의 신발을 생산해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은 국내보다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에 생산을 맡기게 되면서 한국의 신발산업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많은 김해의 신발공장들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신발산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업체들이 있다. 유명브랜드 나이키와 신발 생산계약을 맺어 글로벌 신발제조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온 '태광실업(현 TKG태광)', 실내화 베스트셀러 '삼선슬리퍼'로 자리매김한 '선업', 질기고 튼튼한 장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해 온 '금해울트라장화' 등이다.

지역사회에 보탬 되고요

김 대표는 "옛날에는 부산과 김해가 신발 산업의 중심이었죠.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발 공장 사장님도 많이 돌아가시고, 공장 문도 닫으면서 국산 신발을 찾아보기 힘들죠. 손님들에게 좋은 신발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김해와 부산 신발공장에서 나오는 신발을 매입해서 팔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라며 씩씩했다. 한국 신발산업의 전성기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국산 신발을 판매하며 손님들이 좋은 신발을 살 수 있도록 애쓴다. 그는 "금해울트라장화는 1989년부터 김해에서 장화를 만들어 온 신발공장입니다. 금해는 김해(金海)의 한자어 쇠: 김(金)에서 온 말이지요. 금해가 곧 김해를 말합니다. 저는 금해울트라장화에서 생산된 장화를 최대한

많이 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튼튼한 장화 한 켤레 사러 오시는 거지만, 저는 잊힌 김해의 신발산업의 역사를 봉투에 함께 담아드리는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김해의 신발산업을 알리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곳에 오직 국산 신발만 있는 건 아니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찾는 손님을 위해 중국산 제품도 구비돼 있다. 김 대표는 "가격이 싼 제품을 찾는 손님도 많아서 중국산을 안 들여올 수는 없어요. 좋은 걸 알아보시는 손님은 국산 신발 보여 달라고도 하십니다. 국산 신발을 판매할 때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고 웃었다. 그는 '두발로를 찾는 것이 곧 김해 신발산업이 잘 되는 일'이라며 두발로를 많이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최대한 좋은 가격의 국산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은 모두 연결돼 있어요. 두발로가 잘 돼야 공장들도 잘 되고, 도매상도 잘 되거든요.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늘었죠. 식당이 잘되어야, 저희 가게 장화도 많이 팔립니다. 식당도, 저희 가게도 많이 찾아주세요!"





팔리오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8 로얄빌상가 1층
 전화 055-325-8258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parlio825



매일 '설렘'이 가득한 카페

14세기부터 매년 여름이면, 이탈리아 시에나는 '팔리오(Palio)'라는 큰 경마 축제가 열린다. 시에나 전역은 3월부터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설렘으로 가득하다.

"매일 축제 같은 날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름 지었어요." 부원동 '팔리오'는 찾는 이들이 설렘을 안고, 카페 찾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2019년 문을 열었다. 달콤한 수제청, 입에서 살 녹는 마카롱 한 입을 베어 물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곳, 팔리오를 찾았다.

'정성을 팝니다'

2019년 8월 25일, 카페 팔리오가 문을 여는 날, 우연히 날짜도 8(팔),2(이),5(오)였다. 팔리오 한미진 대표는 5년간 꽃집을 운영하다, 남편 정진욱 대표와 함께 카페를 시작했다.



팔리오의 대표 메뉴는 수제청 음료와 마카롱이다. 부부의 하루는 카페로 시작해, 카페로 끝이 난다. 오전 8시 한 대표가 카페 문을 열면, 약 2시간 동안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한다. 이 시간은 한 대표가 매주 세 번 수제청을 담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몽 20~30개를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가 정성껏 껍질을 씻는다. 칼을 들어 자몽을 일일이 작게 손질하고, 설탕과 버무려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낸다. 월요일은 자몽, 수요일은 레몬, 금요일은 패션후르츠 수제청을 담는다. 매주 3번 일주일치 판매할 양만 만들어 손님에게 낸다.

한 대표는 "가족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수제청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시판하는 수제청 음료보다 과일 맛이 더 잘 느껴지죠. 카페 인근에 관공서가 많은데요, 손님들이 저희 가게 수제청을 먹고 깜짝 놀라세요"라고 말했다.

"원래 패션후르츠가 이런 맛이었어요?", "다른 곳 발령 나도 여기 수제청 먹고 싶어서 다시 올 것 같아요."

한 대표가 만든 수제청 음료를 마신 손님들은 '팔리오'의 단골이 된다. 그의 정성이 담긴 맛은 다른 카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온 마음을 다해 수제청을 만드는 동안, 정 대표는 매주 종류만 100여 개 가 넘는 마카롱을 만들어낸다.

팔리오가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오후 5시가 되면 정 대표는 한 대표보다 일찍 퇴근해 마카롱 반죽을 만들어 숙성시킨다. 정 대표는 숙성된 마카롱 반죽을 가지

고 매일 맛이 다른 마카롱 12개를 유리장에 진열한다. 한 대표는 "마카롱 선물 받고 맛있어서 왔어요." 저희 카페 마카롱을 선물 받고 난 뒤, 선물 받은 손님이 다시 찾아올 때 제일 보람돼요. '맛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힘내서 카페 운영하는 것 같아요"라며 웃었다.

환경을 지키는 팔리오만의 실천

가치가게 참여는 '우연'이었다. 팔리오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가치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한 대표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팔리오는 참여하는 가치는 '환경'. '카페'라는 매장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 한 대표는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비싼 종이컵에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팬더믹 이후 외식이 줄었잖아요. 저희 가족도 외식을 못하다 보니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죠. 음식은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데, 먹고 난 뒤 엄청나게 쏟아지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발병 후 음식 배달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 카페 음료부터 디저트까지 배달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못 먹는 음식이 없다. 하지만 팔리오는 배달 서비스하지 않는다. 한 대표는 배달 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는 게 탐탁지 않았다. 그는 "배달 서비스를 하면 돈은 더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배달을 위해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을 가게 한 편에 쌓아 두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팔리오는 음료를 가져가는 손님에게 음료를 3종으로 만들

어진 종이컵에 담아드린다. 뜨거운 음료, 차가운 음료를 가득 담아도,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튼튼한 종이컵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환경을 덜 파괴하는 제품을 쓰고 싶었어요. 요즘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 한 분은 늘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주세요. 손님들이 높아진 환경 인식을 보고 저희도 환경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내 집에서 만든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곳.'

한 대표는 '팔리오'가 손님들에게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했다.

그는 "음료 한 잔을 마시더라도, 손님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걸 드셨으면 해요. 팔리오는 정성을 다해 음료와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찾아주세요"라며 미소 지었다. ☺





향기제작소 김해점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37번길 9 1층
전화 010-6548-4002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g2_4002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향을 만들어드립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마들렌 향기로 시작됐다. 그는 어느 겨울, 흥차에 마들렌 과자를 적셔 한 입 베어 문 순간, 어릴 적 고향에서 숙모가 내어주던 마들렌 향기를 떠올렸다. 향기가 불러일으킨 고향의 기억은 그를 책 집필로 이끌었다. '프루스트 현상' 사람들은 향기가 기억을 이끌어내는 걸 이렇게 불렀다. 사람들은 향수를 뿌린다. 몸의 체취를 가리기 위해 혹은 나만의 향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 나만의 향기를 찾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하자. 부원동 '향기제작소 김해점'이다.

향과 추억을 담아주세요

하얀 외관의 '향기제작소 김해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갈색 병 100~150여 가지가 진열돼 있다. 갈색 병 안에는 각각의 향을 지닌 향료가 담겨있다. '설렘', '사랑', '추억' 등 단어의 추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도, 향을 배합해 나만의 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다. 나만의 향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성은 대표는 조향사이기도 하다. 누구나, 언제든지 변 대표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조향사 자격증 한번 따볼래?”

변 대표가 가게 운영을 시작하게 된 건, 언니의 권유였다. 대학 시절 변 대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향기제작소'를 운영하던 언니의 가게 일을 도왔다. 대학 졸업 후 언니는 조향사 자격증 취득을 권유했고, 변 대표는 조향사 자격증을 따 언니와 함께 향기제작소를 운영하게 됐다. 2020년 9월 그는 김해 부원동에 자신의 가게를 차려 '향기제작소 김해점'을 열었다.

“조향사 자격증을 따려면 80개가 넘는 향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요. 수백 번 향 맡기를 반복하다 보면, 향에 익숙해지더라고요. 향은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와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람들 이미지에 맞는 향을 추천해주고, 추상적인 단어나 생각을 향수로 표현하도록 돕는 일이 정

말 재미있더라고요.”

향기제작소는 어린이, 친구, 연인, 가족 등 많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자신만의 향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 선물할 향초를 만들고 싶은 사람 등 방문 이유도 다양하다. 그들은 다채로운 향을 맡으며, 자신이 만든 향수와 향초에 향기제작소의 추억도 담아간다.

건강도 환경도 지키는 '원데이클래스'

향기제작소는 향수, 향초, 립스틱, 차량용 방향제 등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은 '인스타그램(@hg2_4002)'이나 카카오톡채널 '향기제작소 김해점'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변 대표는 “방문하시는 분의 요구에 따라 향을 제작해요. 어떤 분은 '사랑'을 세 단계로 나눠 향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만족스러운 향을 찾아, 향수를 만들어가셨어요. 우울, 설렘, 열정 등 추상적인 주제도 저와 함께 얼마든지 향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향수는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지가 아닌 종이 포장지에 곱게 포장돼 손님 손에 쥐어진다. 포장지 교체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쓰레기 줄이기)에 관심이 많은 변 대표의 생각에서 시작했다. 그는 “저희 가게에서도 선물 등을 포장할 때 비닐포장지나 플라스틱을 많이 쓰게 됐어요. 쓰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환경'을 주제로 가치가게에 참여하면서 포장지를 바꿔게 됐어요. 향수를 다 쓴 후 향수가 담겼던 유리공병을 다시 가져오시면 세척, 소독 후 다시 제작한 향수를 담아드려요. 공병 할인도 해드립니다”고 설명했다.

값이 저렴한 디퓨저와 향수는 향의 확산력, 지속력을 위해 유화제, 벤조페논 등 화학물질이 첨가돼 있다. 이런 화학물질은

사람의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향수를 만드는 게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기도 한다. 변 대표는 “향 제품들의 부작용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형 제품에는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가게 제품은 유해 물질을 뺀 수제 향료만 사용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향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손님은 한 분은 저희 가게에서 산 향수를 사용해보시고, 꾸준히 재방문하세요”라고 말했다.

향기로 행복해지는 순간

“새싹이 돋아나는 봄은 '프리지아', 초록 잎의 풍성함 가득한 초여름은 '장미꽃향'이 좋아요.” 변 대표는 계절에 따라 쓸 수 있는 향수를 추천하며, 프리지아 향을 시향지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프리지아 향을 맡는 순간 봄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느껴졌다. 프리지아 향은 변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다. 변 대표는 “저희 어머니가 봄이 되면 프리지아 꽃을 사서 향상 집에 뒀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지아향을 맡으면 봄 풍경이 떠올라요”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과 향을 맡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지는 순간을 즐긴다고 했다. 변 대표는 “향기제작소는 향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공간이 됐으면 해요. 20~30대 젊은 사람만 찾는 곳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갔으면 합니다”며 웃었다. ☺





정혜주 솥 공방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15번길 5, 3층
전화 010-9818-1956
블로그 <https://blog.naver.com/jeong5235>



건강도, 환경도 챙기는 공방

‘고체 비누로 환경을 보호한다?’
클렌징오일, 클렌징폼, 샴푸, 린스, 바디워시,
샤워부스를 둘러보면 온통 액체비누가 담긴 용품들이다.
‘고체 비누는 비위생적이고, 세균이 잘 자란’다는 편견이
퍼지면서, 일상에는 점차 고체 비누가 사라져갔다.
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체
비누는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통 배출이 없으면서 독성이 적다는 게 이유였다. 덕분에
비누를 만드는 공방을 찾는 이도 늘고 있다. 부원동 한
주택 골목, 고체 비누를 만들어 환경을 지키는 ‘정혜주 솥
공방’ 정혜주 대표를 만났다.

천연제품, 나와 자연을 위한 선택
‘정혜주 솥 공방’의 문을 열자 향긋한 비누 향이 먼저 반긴다. 공방 안은 석고 방향제, 비누, 향초가 선반 곳곳에 놓여 있다. 공방 작업실 안은 수납장 가득 비누, 향초, 화장품 등 제품을 만드는 재료들이 채워져 있다.

“자연에서 온 천연 재료들이예요. 이곳에서는 천연재료를 화장품, 디퓨저, 향수 등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정혜주 솥 공방은 2019년 2월 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공방을 운영하기 전, 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점을 학생에게 알려주는 특강 강사였다. 특강은 이론과 체험 수업으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생태계의 순환과 연결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화학 재료로 만든 비누는 거품이 엄청 풍부합니다. 게다가 피부 자극도 심하죠. 우리가 만들어낸 비누 거품은 개수대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처리를 거친 물은 강으로 바다로 흘러보내지죠.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결국 비



누에 있던 성분은 물고기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바다, 민물 고기를 잡아먹는 건 사람이잖아요. 결국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정 대표는 자연에 유익한 천연비누 만들기를 학생에게 알려주기 위해 배웠다. 천연제품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는 “천연 비누 만들기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장품, 생활용품 만드는 것까지 배우게 됐어요. 천연 제품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제게 손재주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직접 천연 화장품을 써보니깐 피부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천연 제품을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정혜주 솥 공방은 아로마요법, 천연 화장품, 천연 비누 등을 배울 수 있는 일일 체험수업, 전문가 수업, 취미 수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일일 체험수업은 3~5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한다. 정 대표는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수업 연락이 오면 출강도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는 공방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왔지만, 수업에 진지한 얼굴로 집중하는 수강생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향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세 분이 참여했는데, 향수 향료 50종 중 선택해서 향수를 만들어야 했죠. ‘나는 달콤한 향이 좋아’, ‘나는 우드 향이 좋아’하면서 세 분이 각자 좋아하는 향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분들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생각했어요.”

느리고 불편한 삶에 익숙해야
천연제품은 특성상 피부에 흡수되는 속도가 더디다. 시중에 파는 화장품과 달리 화학성분이 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느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 강조했다.

“처음 천연 화장품을 써보시는 분은 피부 흡수가 일반 화장품보다 느리다고 불편해하세요. 이는 우리가 빠르고 편리한 일상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저는 조금은 느리지만, 불편한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품이 나오는 액상 비누보다, 물을 묻혀 직접 거품을 내 쓰는 천연 비누를 써야 하는 이유죠.” 천연 재료로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나의 건강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일. 정 대표가 ‘환경’을 가치로 가치기계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공방이 편안하게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랐다.
“저는 이곳이 꼭 무엇을 배우기보다, ‘언니, 커피 한 잔 줘요’ 하고 누구나 와서 이야기 나누고, 천연 제품도 만들어보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정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이에게 천연 제품을 장점을 알리고, 천연 제품을 만드는 일을 경력중단 여성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그는 “경력중단 여성은 육아를 결국 계속해야 하므로, 짬짬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천연 제품을 만드는 일은 재료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경력중단 여성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곳으로 발전하고 싶어요”라며 포부를 밝혔다. ☺



남산별곡

주소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38-10
전화 055-335-2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msan_byeolgok



커피 한 모금에 담긴 '가야왕도의 사랑 이야기'

고소한 향을 풍기는 커피콩을 그라인더(*커피 원두를 잘게 부스러뜨리는 기계)에 넣었다. 그라인더를 돌리자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커피콩이 갈렸다. 가루로 부서진 커피콩을 드리퍼(*커피잔에 커피를 직접 내릴 때 쓰는 깔때기 모양의 기구)에 쏟아부은 뒤,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다. 이슬비가 내리듯 드리퍼 아래로 떨어지는 커피를 모아 머그잔에 담아냈다. 머그잔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커피를 만드는 이의 정성이 담겨있다. 온기 가득한 커피처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이 있다. 부원동의 가치가게 '남산별곡'이다.

'커피'를 통한 나눔 실천

김해시청 뒤편, 주택 건물 사이로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한옥 건물 한 채가 있다. 김해의 이야기를 담은 커피를 내리는 '남산별곡'이다. 이곳은 2021년 1월 문을 열었다.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어졌다. 남산별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임명)이 운영하며, 가야왕도 김해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김해 스토리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남산별곡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김보현 씨는 "남산별곡의 시작은 봉황동 회현당의 자원봉사자 모임이었다. 회현당은 회현동 일대 폐지 등을 주워 어렵게 사시는 홀몸 어르신의 사회안전망 확보,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회현마을공동체였죠. 그곳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으로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남산별곡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우리 협동조합은 커피를 통해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소개했다.

남산별곡은 커피 판매뿐만 아니라, 꾸준히 커피를 통한 나눔을 해왔다. '나눔'의 가치로 가치가기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시민과 어르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 부산 등 경남 일대 커피 관련 단체를 초청해, 봉황동 등지에서 '바리스타 대회'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는 대회를 중단한 상태다. 김 씨는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꾸준히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어요. 모두 한 마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였죠. 어르신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 수업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시기도 하셨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향한 어르신들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라고 회상했다.

가야왕도를 품은 커피

남산별곡에서 판매되는 김해 스토리 커피는 '수로디아', '프린세스유', '봉황대연정' 등 세 종류다. '수로디아'는 금관가야 제1대 왕인 김수로와 인도의 공주 허황옥의 인연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수로디아는 김수로왕의 이름 수로와 허황옥의 고향 인도 아요디아(Ayodhya) 지명을 합성해 이름을 만들었다. 수로디아 커피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예가체프 첼바, 코체레, 케냐 AA 커피콩을 추가해 신맛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다. '프린세스 유'는 금관가야 제9대 경지왕의 외동딸 유민공주의 진취적인 삶, 자유, 그리움이 주제다. 달콤한 과일과 꽃향이 조화롭게 풍기는 매력적인 커피다.

'봉황대연정'은 경지왕 시절 황새와 여의의 '뫄다 한 사랑' 이야기를 커피에 담았다. 장군차를 베이스로 만들었으며, 인도 '마이스르너넛'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다. 김 씨는 "김해 스토리 커피는 남산별곡과 김해시립도서관 내 김해시니어클럽 '달보드레카페', 김해자활사업단의 '이든카페' 등에서 맛볼 수 있어요. 변함없는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커피콩도 스페셜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좋은 커피를 손쉽게 낸다는 자부심이 있죠"라고 말했다. 스페셜티 커피는 스페셜티커피협회(SCA)의 품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긴, '상위 7% 원두'이다. SCA는 2017년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와 유럽스페셜티커피협회(SCAE)가 합쳐져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다.

찾는 이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길

남산별곡의 좋은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건 커피에 담긴 김해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남산별곡사회적협동조합 김임명 이사장은 변함없는 커피 맛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고 있다. 김 이사장은 "남산별곡 커피를 한 번 드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주셨을 때 보람을 느껴요. 사실 커피콩 등 원재료가 올라서, 가격 유지가 쉽지는 않지만, 찾는 분들을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고 말했다. 조합원 김보현 씨는 남산별곡이 많은 이들이 찾는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랐다. 김 씨는 "커피 하나에 김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참 재미있지 않나요? 많은 분이 저희 커피를 마시며, 편히 쉬다 갔으면 합니다"며 웃었다. ☺





파란풍차 과자점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38

전화 055-332-7874



기술도 마음도 아낌없이 나누는 빵집

‘배워서 남 주자.’

이 문장은 명료하지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익혀온 기술을 남에게 알려주는 일은 ‘배려’가 몸과 마음에 익을 때나 가능하다. 파란풍차과자점 이주영 대표는 빵을 배우고 하는 사람에게 기술을 전수할 뿐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등에 한 달에 한 번 빵 나눔을 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기술, 남을 위한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는 ‘파란풍차과자점’을 찾았다.

맛도 좋고, 몸에도 건강한 빵

‘경남 1호 부부제과기능장의 집.’ 파란풍차과자점 앞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낀다. ‘하늘에서 빵 따기’ 정도로 어렵다는 제과기능장을 이주영 대표는 2013년, 박효순 대표는 2016년에 합격해 얻은 성과다. 제과기능장은 현장서 9년 이상, 제

과기능사를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합격률은 불과 20퍼센트. 제과 분야의 최고 자리에 올라야지만 거머쥘 수 있는 ‘자격’이다. 이 때문에 ‘부부제과기능장’은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걸어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파란풍차과자점은 김해 내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했다.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 빵을 만들던 이주영 대표는 자리를 세 번 옮긴 뒤, 가락로 38에 자리 잡았다. 올해로 ‘파란풍차과자점’이 설립된 지 26년이 됐다.

26년째, 이 대표는 매일 쉬지 않고 빵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계란 등으로 반죽한 뒤 냉장에서 발효를 거친다. 발효는 빵의 풍미를 높이고, 가벼운 식감 등을 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때 발효를 위해 반죽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트’인 효모균이다.

파란풍차과자점의 빵은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종으로 만들어진다. 천연발효종은 인위적으로 배양한 이스트와 달리 자



연 상태로 생성된 효모로 만든 것이다. 천연발효종은 써 만든 빵은 빵의 풍미를 더 해주고, 빵의 소화는 돕는 장점이 있다. 파란풍차과자점은 유산균종, 화이트사워종, 치아바타종, 포타차이종 등 빵 종류만큼 다양한 발효종으로 빵을 굽는다. 몸에 좋은 빵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본다. 다양한 빵 중 ‘쌀’ 스티커가 붙은 빵은 손님의 지갑을 자주 열게 한다.

이 대표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빵을 만들고 싶었어요. 꾸준히 천연발효종으로 빵을 굽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저희 가게를 찾는 단골은 저희 빵에 익숙해져서, 프렌차이즈 빵집 빵을 먹기 어렵다고 합니다. 손님의 이런 말 한마디가 제가 건강한 빵을 꾸준히 만드는 이유죠”라고 말했다.

‘배워서 남 주자’, 나눔의 기쁨

파란풍차과자점의 인기 빵 중에는 경남제과협회 ‘빵 개발팀’과 만든 빵도 있다. ‘단호박쌀빵’은 과거 협회 회장이었던 이 대표와 빵 개발팀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 레시피는 제과협회 소속 경남 지역 빵집에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된다. 이 대표는 자신만의 빵 레시피를 문화센터 수강생들에게도 알려준다.

“예전에는 고지식해서 자기 기술을 남에게 전수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기술 공유는 곧 제과제빵 업계가 활성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프렌차이즈 빵집과 경쟁에 ‘원도우베이커리(개인이 운영하는 빵집)’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창원 진해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교육을 시작했다. 한 달에 두 번 직접 오븐을 차에 싣고 찾아가 빵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 제과제빵 교육이 있는 날에 장애인인 직접 구운 빵을 봉투에 담아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누군가 행복해하는 ‘미소’는 이 대표가 재능을 나누는 큰 힘이 됐다. 현재는 진



해장애인복지관, 김해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간 배움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과제빵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부원동 결손가정, 저소득층에게 빵 나눔 활동도 진행해 왔다. 김해노인복지관을 통해 홀몸 어르신에게 매달 한 번 빵을 나누는 일도 10년째다. 이 대표는 봉사의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빵을 드리고자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에 가입했다. 이 대표는 김해시로부터 받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를 액자에 넣어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놔뒀다.

이 대표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분이 밀반찬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반찬 꺼내서 일일이 밥 차리기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빵은 봉지만 뜯으면 쉽게 배를 채울 수 있죠. 이렇게 빵 나눔을 한 지도 15년이 됐네요. 꾸준히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며 웃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기술도, 빵 나눔도 계속할 예정이다. “나눔은 결국 제게 기쁨이던, 보람이던 어떤 형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항상 아낌없이 나누는 빵집이 되도록 할게요.”





카페 오도라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376번길 21 1층

전화 010-2528-055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afe_odora



커피 향에 실어 보내는 마음

카페 오도라는 부원동의 한적한 골목, 부원로376번길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 골목을 따라 카페에 가까워지자 고소한 커피 향이 먼저 반긴다. 꽃이 피면 그 꽃향기가 천 리를 간다 하여 이름 붙은 '천리향*' 서향나무라고도 한다. 카페 오도라는 서향나무(천리향)의 학명인 다프네 오도라(Daphne odora)에서 따왔다)에서 따온 이름처럼, 골목 구석구석 커피 향에 마음을 담아 실어 보내는 카페 오도라의 김나희 대표를 만났다.

좋아서 시작한 카페

아침 8시, 아직 골목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카페 오도라의 하루는 시작된다. 김나희 대표는 카페 내부를 청소하고 커피 머신과 기구를 정리하며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이른 시간이지만 고객에게 인사를 건네는 김 대표의 얼굴에는

맑은 웃음이 맺혀 있다. 자신의 밝은 인사가 고객의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카페 주변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주문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골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이 필요하네 일찍 열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들은 적도 있어요. 오후에는 학생들도 제법 오고, 저녁에는 주민들도 들려주세요.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오도라는 2021년 9월 문을 열었다. 문을 연 지 7개월 차, 신상 카페인 셈이다. 원래 커피를 좋아하던 김 대표는 카페를 열기 전부터, 시간이 나면 유명하거나 커피가 맛있는 카페에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지금의 오도라 자리에 빈 점포가 났으니 카페를 열어보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권유로 카페 준비를 시작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제 직업이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나는 10년 정도 일 열심히 해서, 내 카페 차리는 게 목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패기만 넘치는 말이지만, 결국은 부모님이 ‘한 번 해봐’라고 믿어주시고, 카페를 열게 됐으니 목표를 이룬 거죠.”

머무르고 싶은 공간

좋아서 시작한 만큼 카페 오도라 구석구석에서 김 대표의 애정이 묻어난다. 이름부터 메뉴, 가게 인테리어까지 꼼꼼하게 발품을 팔아가며 부모님과 상의해가며 골랐다. 그 과정에서 김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마음은 메뉴를 정할 때도 반영됐다. 카페 오도라의 주력 메뉴는 커피와 허니그릭요거트다. 카페로서 커피가 맛있는 것이 기본이라면, 허니그릭요거트는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김 대표

가 준비한 메뉴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도, 커피를 못 마시는 분도, 누구나 편하게 들러서 차 한잔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어 카페 곳곳에 다양한 공간을 꾸렸다. 먼저, 카페 입구와 측면 밖에 간이 의자를 놓았다. 주문을 기다리는 고객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입구 안쪽으로는 거울과 벤치로 꾸민 간단한 포토존도 만들었다.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만은 아닌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큰 장도 고객들을 위해 고민한 부분입니다. 상단에는 판매하는 상품들이지만, 하단에는 고객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카드게임이나 보드게임 등을 모아놨습니다. 처음에는 도자기 같은 전시품을 올려둘까 했지만, 그보다 고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채우고 싶었어요. 일부러 책이나 할 거리를 들고 오지 않아도, 그냥 오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치를 지켜가는 곳

김 대표에게 카페 오도라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물었다. 그는 맛, 위생, 분위기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다며 웃었다.

“카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맛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더라도 더 맛있고 좋은 원두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직접 만들고 있어요. 유청이 없어 맛도 있으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먹는 것을 취급하는 곳이니 위생도 철저해야죠. 내부가 하얀색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한 색이기 때문에 더러운 부분이 쉽게 눈에 띄어, 한 번이라도 더 닦고 쓸게 되더라고요. 또, 언제나 웃는 얼굴로 고객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사장님 덕에 나까지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

셔서,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죠.”

여기에 더해 김 대표는 가치기게로 참여해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카페 오도라가 막 오픈했을 때,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가치기게라는 사업을 한다고 참여할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오도라는 ‘친환경 용기 사용’, ‘텀블러 할인’ 등 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참여했어요. 그 이후로 커피박람회 등에 가서 다양한 친환경 제품 등을 살피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김 대표는 계속해서 카페 오도라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게 곧 카페 오도라만의 향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어려모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공부도 더 많이 할 거고요. 후에는 카페 오도라만의 시그니처 메뉴도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도라’라는 이름처럼 천 리 밖에서도 저희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광성세탁소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32
전화 055-334-6130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바래지 않도록

“10~20년 된 단골들이 초창기에 들고 왔던 옷을 아직도 맡겨요. 오랜 세월 입었는데, 낡지 않은 옷을 보면 세탁을 잘한 것 같아 뿌듯하죠.” 광성1급컴퓨터세탁 김범석 대표의 얼굴에 자부심이 담겼다. 1997년 문을 열어 26년째, 오랜 세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고닦았기에 가능한 자신감이다.

김해에서의 새로운 시작

광성1급컴퓨터세탁 김범석 대표는 원래 경기도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했다. 그런 그가 김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사업이 잘 안돼서 다 정리하고 혼자 김해에 내려왔습니다.

1톤 트럭에 옷 보따리 싸서 주머니에 딱 50만 원 들고 왔어요. 생선 배송, 우유 대리점 운영 등 여러 일을 하다가,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게 세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세탁소를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세탁업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했죠.”

매달 30만 원씩, 김 대표가 세탁 일을 배우는 값이었다. 세탁 일을 배우는 5개월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다. 그는 일을 배운다는 마음에 힘든 것도 몰랐다. 돈을 내고서도 세탁소 일을 도맡다시피 했다. 직접 해봐야 결국 ‘내 일’이 된다는 생각이 김 대표를 최선을 다했다.

“1997년에 지금 세탁소 위치에 가게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 매출이 4만 원이었어요. 명함 크기의 전단을 만들어서 박카스랑 손에 들고, 주위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직원마다 일일이 손에 쥐여 주면서 홍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변에 보건소며 법원이 있을 때였어요. 하루에 박카스를 다섯 박스 정도 썼습니다. 세탁소를 쉬는 일요일에는 하루에 1천 정도 돌렸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매일 세탁소 홍보 전단을 돌렸다. 3개월을 꾸준히 다니자,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매출은 올랐다. 가게 문을 연 지 1년이 될 때 하루 매출은 10만 원으로 뛰었고, 3년이 지났을 때는 하루 매출 20만 원을 달성했다.

고객의 신뢰가 최우선

밖에서는 홍보를 하고, 안에서는 세탁소를 다듬어 나갔다. 작은 소품 하나에서부터 전기, 배수관까지 김 대표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모두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또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함이었다. 천장에 세탁물을 정리한 것도 김 대표의 손길이다. 기억부터 히읏까지 차곡차곡 줄을 세워왔다.

“초기에 옷을 찾기 쉽게 하려고 정리를 해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요즘은 이름표를 찾을 것도 없이, 고객이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을 보고 옷을 찾아서 빼두죠. 옷을 찾는 시간을 줄여서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처럼 ‘고객 만족’은 김 대표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광성1급컴퓨터세탁소가 20년이 넘게 우리 동네 세탁소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같다.

“2018년쯤에 주변에 대형 세탁업체가 마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세탁비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실제 저희도 손님이 많이 줄었고, 주위에 문을 닫는 세탁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오히려 세탁비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만큼 세탁

품질도 높였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저기는 세탁비가 싼데, 여기는 더 올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직접 세탁물을 비교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세탁물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고객이 요청한 부분은 물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고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관리해 새 옷처럼 전달했다. 김 대표는 그게 광성1급컴퓨터세탁은 지금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 나눔

광성1급컴퓨터세탁소의 가치는 ‘나눔’이다. 2002년부터 지역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세탁비의 1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 세탁소로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마음을 함께 나누는 셈이다. 그래서 할인 제안을 받았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참여했다. 학교 지킴이, 부녀회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세탁소와 오래도록 함께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됐다.

“가치가게사업에 참여하면서 가게 홍보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됐어요. 가치가게 인터뷰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또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식인 거죠. 요즘도 하루에 2~3명 정도 새로운 손님이 올 정도니까요. 또, 인터뷰도 했다고 하면 일반 ‘동네 세탁소’라는 이미지에서 다시 보게 되는 힘이 있죠.”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그는 ‘초심’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 세탁 일을 배웠던 마음을 떠올리며, 고객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세탁 서비스를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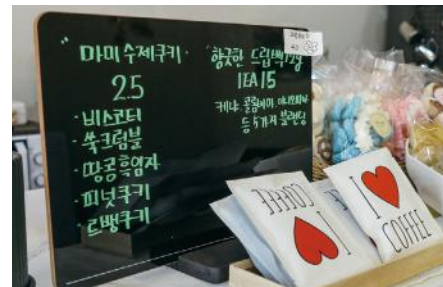
“하나 바라는 건 이 일을 이어받아서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힘들다는 인식 때문인지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잘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마미커피하우스

주소 경남 김해시 호계로 452 부원빌딩 1층
전화 055-311-7708



우리 동네 사랑방에서 차 한 잔

“사장님, 인터뷰도 하네?” “사진발 잘 받소?”

마미커피하우스 정숙이 대표와 인터뷰하는 도중 창가에 앉아 있던 동네 주민의 한마디가 끼어들고, 이내 가게에 웃음꽃이 핀다. 동네 사랑방을 자처한 이곳에서는 흔한 풍경이다.

‘마미’가 맞이하는 카페

“왔어? 뭐 줄까?” 책가방을 멘 학생이 들어오자 마미커피하우스 정숙이 대표가 반갑게 알은 채를 한다. 이어 동네 주민 서넛이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정 대표가 ‘삼촌, 왔나’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주문을 따로 받지 않고도 정 대



표는 음료들을 똑딱 만든다.

“고객이면서 동시에 ‘이모’ ‘삼촌’ 하는 관계라고 보면 돼요. 또, 젊은 친구들은 다들 조카 같기도 하죠. 오래 봐 왔으니 그만큼 친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우리 카페에 와주는 손님 이니까 다들 고맙죠.”

정 대표가 마미커피하우스의 문을 연 건 2012년이다. 처음 문을 연 자리에서 지금까지 꼬박 11년째 영업 중이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카페를 운영해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마미커피하우스’라는 가게 이름은 딸 소정 씨가 제안했다. 엄마처럼 언제나 고객을 편안하게 맞이하겠다는 의미다.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세련된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감각을 따라가기는 어렵죠. 대신, 저는 카페 이름처럼 어머니 이모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손님들이 편하게 들렀다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다들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마미커피하우스가 다른 카페보다 자신 있는 것은 바로 직접 청을 담근 차들이다. 오미자, 유자, 대추, 생강 등 총 아홉 종의 청을 정 대표가 직접 담가 차를 만든다. 다양한 연령대의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다양한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원래 카페를 열기 전부터 집에서 직접 청을 제조해 차를 만들어 마시곤 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 그 취미를 살려 메뉴에도 반영한 거죠. 오미자나 유자 같은 것들은 주로 나오는 계절에 많이 담아두는 편이고, 그 외 종류는 떨어지면 그때그때 만들어요. 좀 수고스럽지만 맛있다고들 해주시면 보람합니다.”

동네와 함께한 10년

마미커피하우스는 최근 카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오픈 10주년을 맞아 ‘큰맘 먹고’ 카페 재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정 대표와 딸 소정 씨가 함께 고민하며 공간을 꾸렸다. 앞으로는 한층 깔끔해진 마미커피하우스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문을 연 지 10년이 됐으니 가게를 한 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큰 결정을 했습니다. 손님들 반응은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기존 공간에 정이 들었는데 아쉽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환하고 좋다’라고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자주 와서 적응하يس소하고 웃고 맙니다. 모두 함께한 긴 시간이 있으니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 대표는 마미커피하우스가 10년간 운영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손님으로 방문하는 ‘동네 주민’들 덕이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도 마미커피하우스는 주민들 덕에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주 보이시던 분들이 며칠 동안 안 보였다가 다시 오셔선 ‘저 확진됐어요’ 하시긴 했지만, 다들 무사히 지난 것 같아 다행이에요.”

행복을 나누는 마음

마미커피하우스가 실천하는 가치는 바로 나눔이다. 오래도록 마미커피하우스가 받아온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 돌려주고자 하는 정 대표의 마음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2020년 참여한 햇살아이 행복나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학대받는 아동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내용이다.

“캠페인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캠페인 내용을 들어보니 공감도 되고, 그동안 마음만 있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 없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는 가치가게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작은 가치라도 실천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취지가 좋아 선뜻 사업에 신청했다. 정 대표 개인적으로도 가치가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이라는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지금은 작은 나눔이지만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계획은 마미커피하우스를 꾸준히 운영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10년이 됐으니, 20년, 30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





모아헤어아트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376번길 32

전화 055-331-2480



머리에서 마음으로

“미용실이 머리만 손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오면 함께 대화하게 되고 관계가 만들어지죠.” 모아헤어아트 조옥희 대표의 말을 증명하듯, 가게 내부에는 곳곳에 고객들이 선물한 화분이나 어항이 놓여 있다. 미용실을 운영한 지 30년째, 이젠 단골들이 가족 같다는 그를 만났다.

노력,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아헤어아트는 조옥희 대표의 세 번째 가게이다. 외동에서 삼계동을 거쳐 지금 부원동까지, 30년 차 어엿한 베테랑 미용사인 그에게도 시작은 있었다. “처음부터 미용을 전공했던 건 아니에요. 미용사가 되어야



배운 미용실 원장님이 가게 자리가 낮으니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가게를 열었지만, 실력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객들에게도 친절하게 서비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능성 열어야

모아헤어아트에는 곳곳에 화분이 놓여 있다. 모두 고객들에게 가게 개업 축하 선물로 받은 것들이다. 한쪽에 자리한 자그마한 어항도 고객에게 받았다. 가게 내부를 꾸민 것들 모두에 고객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한 지 30년이 됐어요.

겟다고 생각한 계기는, 제가 20대에 결혼했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훌쩍 나이 든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 가게 미용실 사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쁘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에 미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시에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했죠.”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 조 대표는 매일 새벽 1~2시에 퇴근했다. 가게 문을 여는 8시 30분부터 영업을 시작해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 이후에는 가게에 남아 공부를 하고 미용 기술을 연습했다. 시간을 쪼개 홀로 연습하는 것은 물론, 김해에서 부산 서면까지 새로운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러면 먼 거리를 오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미용 봉사 활동을 다녔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머리를 손질하는 일이었죠. 그게 연습이 되면서 자격증 따고 4개월 만에 커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딱 그 세월만큼, 30년간 제 미용실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계세요. 감사한 일이지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찾아주시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손질을 하다 보면 단순히 머리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특히, 지금은 저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모든 고객을 제가 맡게 되는데, 고객 한 분이 오시면 형제, 자매나 부모님이나 자식까지 함께 오니까, 온 가족을 아는 경우도 많죠.”

그는 첫 가게에서부터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그는 고객들의 밥을 챙기는 것에 신경 썼다. 첫 가게에서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 앞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으면, 밥과 반찬을 차려 대접했다. 지금도 그는 식사 시간에 들르는 고객이 있으면 함께 식사한다. 오래 만난 고객들이 경조사를 맞으면 기꺼이 참여해 함께 마음을 나눈다.

“그런 게 쌓여서 고객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삼계동 가게 문을 닫으면서 미용 가게를

완전히 접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쉬다 보니, 고객들이 전화가 와서 ‘이제 실 만큼 쉬었으니 가게 열어야 하지 않겠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때마침 들른 부원동에 빈 가게가 있어서 2년 전 다시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원래 미용실이 있던 자리여서 내부 정비만 조금 했어요. 지금도 예전 고객들이 찾아주시는 게 60~70%는 됩니다.”

나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조 대표에게 ‘나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용사 자격증을 딴 후 미용 봉사 활동을 나간 것을 시작으로, 고객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것, 무엇보다 그는 미용인으로 성공한 후 배들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다. 30년간 미용 교육 비용을 지원한 것만 10명이 넘어가니, 그 모두가 조 대표의 수제자인 셈이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 스태프나 디자이너로 들어온 직원들의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자기 가게 열고 원장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 안부 인사도 오고, 가끔 찾아와서 얼굴도 보고 가요. ‘평생 먹고 살 일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머리도 며칠 전 친구 한 명이 가게에 들른 김에 잘라준 거예요. 참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온 나눔의 가치로 모아헤어아트는 가치기게사업에 참여했다. 혼자 하면 작지만 여럿이 모이면 더 큰 나눔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믿기 때문이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큰 목표나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고객과 친구처럼, 즐겁고 열심히 가게를 하나기야죠. 그리고 가치기게에 참여했으니, 가치기게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가게와 교류도 하고 함께 나눔 활동도 해내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크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보성이발소

주소 경남 김해시 분성로376번길 28
전화 010-6365-4908



60년 연륜에 쌓인 이발 실력, 한 번 경험해보세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주로 남자의 머리털을 깎아
다듬어 주는 곳.’
이발소의 사전적 뜻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덤수룩해진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발소 문을 열었다. 이발소 의자에 앉아, 이발소의
손길에 머리와 수염을 맡겼다. 미용가위, 면도칼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저분해졌던 인상이 말끔해졌다.
지금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세련된 서비스가 더해진
‘바버숍(BARBER SHOP)’이 이발소로 대체 되는 추세다.
하지만 부원동 ‘보성이발소’ 만큼은 한자리를 지키며,
오랜 단골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열여덟에 잡은 미용가위

보성이발소 문을 열자 향긋한 비누 냄새가 먼저 반긴다. “어
서 오세요.” 이어 보성이발소 한현준 대표가 환한 미소로 손
님을 맞이한다. 6대 4 가르마로 단정하게 빗어낸 머리 스타
일, 검은 뿔테 안경, 청색 앞치마에 토시를 낀 한 대표의 모습

은, 온몸으로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하고
말하는 것 같다. 그가 처음 이발소에 발을 들인 건 십 대였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걱정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웠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저
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발소에 수습생으로 들어갔어
요. 손님 머리를 씻기는 법부터 이발 기술을 배우는 것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여덟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지정 이
용원을 개원했습니다.”
열여덟부터 누군가의 머리를 자르고, 턱수염을 정리해줬다.
그가 비슷하지만 다른 매일은 반복한 세월만 60년이다. 긴
세월만큼이나 한 대표에게 머리를 맡기는 손님의 머리도 하
얇게 됐다. 그는 “보성이발소를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손님이 방문했어요. 머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이분은 택시 영업
을 시작하면서 매일 첫 손님 요금은 많은 적든 받지 않는다
더군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하고 속으로 생각했죠”라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단골이 돼 자주 오시는데, 여전
히 첫 손님 요금을 받지 않는다더군요. 좋은 하루를 보내는
자신만의 방법인 것 같았어요. 이발사가 매일 비슷한 일을 해
서 지겨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매일 다른 손님을 만나며 세상
사는 이야기 듣고, 제 생각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이발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고 덧붙였다.

유행을 따라잡는 이발 실력

보성이발소 건물 외관에는 커다란 글씨로 ‘모히칸컷트’, ‘투
부력컷트’, ‘학생컷트 환영’이 붙어 있다. ‘투부력컷트’는 ‘투
블력컷트(*전체적인 머리를 아래와 위로 두 파트로 나누어
주고 아랫머리는 짧게 잘라주고 윗머리는 길게 남겨두는
스타일)’를 잘못 쓴 표현이지만, 외관에 붙여진 글씨 아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한 대표의

자신감이 읽힌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들을 연출하는 건 그리 어
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해온 클래식 스타일
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스타일도 다
연출이 가능합니다. 젊은 사람, 어르신 모두 보성이발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특별하죠.”
보성이발소는 커트만 하지 않는다. 뜨거운 열로 웨이브 등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헤어 아이론(hair
iron), 훈주와 신랑 이발 등도 가능하다.

부원동의 간판 이발소

한 대표가 60년간 쌓아온 이발 실력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 그의 손은 오래된 옛날 머리 스타일부터 요즘 유행하
는 머리 스타일까지 다 익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저는
머리 스타일을 연출할 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유행은 돌고
돌거든요. 투블력을 해달라는 손님이 있으면, 머리 양옆은
투블력으로 커트하고, 뒷머리는 상고머리(*뒷머리를 짧게
치켜올려 깎고 정수리 부분은 편평하게 다듬는 스타일을
말한다) 형태로 커트해요. 이렇게 자르면 더 깔끔한 스타일
이 되죠. 일부러 젊은 친구들의 머리 스타일을 찾아보기도
하죠”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노력 덕분에 보성이발소는 30대 엄마가 어린아
이를 데리고 찾기도 한다.

“어느 날 젊은 엄마가 일곱 살 아들이랑 왔어요. 제가 ‘어찌
알고 왔느냐?’고 물으니 아이 엄마의 아버지가 저희 가게
서 이발하고 갔는데 머리가 정말 예뻐드립니다. 아버지에
게 물어 보성이발소를 찾은 거죠. 이런 손님을 보면 이발사
60년 세월이 헛된 건만은 아니죠.”

보성이발소는 한 대표의 연륜과 실력에 비해, 손님에게 아
주 착한 가격을 받고 있다. 이곳의 이발 가격에는 ‘면도’, ‘드

라이’, ‘세발(*머리를 감음) 모두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게
단돈 일 만원이다. 그는 “저는 이곳에 오는 손님들이 편하
게 이발하고 가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착한 가격이지요”라며 웃었다.

‘부원동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이발해주는 보성이발소가
이발 참 잘 잘하더라.’

한 대표는 보성이발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길 바랐
다. ‘부원동 이발소’ 하면, ‘보성이발소’라고 바로 대답이 튀어
나오는 실력 있는 이발소로 말이다. 그는 “부원동에서 오래
도록 이발소를 운영하고 싶어요. 여유가 생기면 저보다 경제
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이발’
하나의 자부심이 넘치는, 이발소로 꾸준히 손님을 맞겠습니
다”고 강조했다. ☺



민아헤어샵

주소 경남 김해시 호계로452번길 23-17
전화 055-326-3040



오랜 친구 같은 헤어샵

유치원을 다니던 까까머리 꼬마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결혼할 신부를 데려와 머리를 하기까지, 민아헤어샵 여영인 대표가 부원동에서 민아헤어샵을 운영한 세월이다. 민아헤어샵은 1999년 가게 문을 열어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고객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고 있다.

속 편한 된장 같은 공간

민아헤어샵에 들어서면 입구 오른쪽에 넓게 자리를 차지한 주황색 소파와 널찍한 테이블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서너 명이 거뜬히 앉을 크기의 소파가 두 개나 놓여 있지만, 소파는 언제나 만석이다. 머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들이 웅기종기 모여, 자신의 차례가 끝나도 앉아 세상 사는 이야

기를 나누기 때문이다. 여영인 대표에게는 고마운 풍경이자, 민아헤어샵만의 특별한 모습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데, 어르신들이 정이 많잖아요? 누구든 소파에 앉아서 5분만 있으면 호구조사 똑딱이예요. 이름부터 나이는 물론이고, 힘든 일이나 기쁜 일 있으면 나누고, 또 ‘어디가 아프다’ 하면 그 병에 좋은 약이나 민간요법도 공유하죠. 그뿐인가요, 저는 가게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어요. 제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용도는 아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가게 인쪽에 자리한 부엌에는 감자나 고구마 등 먹을거리가 마를 날이 없었고, 여 대표가 아니라도 손님 누구나 부엌을 오가며 먹을 것들을 준비했다. “자연스럽게 가게 안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고객이 때마침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먹을 순 없으니 같이 먹던 게, 나중에는 꼭 점심이 아니라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이며 간단한 주전 부리며 테이블에 펼쳐서 먹게 됐죠. 자주 오는 분들은 그걸 아니까, 집에 있는 옥수수 같은 것들 가져오셔서 또 같이 먹고, 그런 게 푸근한 정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가게를 된장 같은 가게라고 소개하곤 해요.”

나눔은 함께 행복한 방법

민아헤어샵의 특별한 점은 또 있다. 바로 경로우대 가격을 운영하는 것이다. 처음 가게 문을 열고 6개월 후부터 시작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 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으로, 그 덕분에 특히 어르신 고객이 많은 편이다.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 김해에 왔으니, 처음에는 미

용실 홍보 목적도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머리로 잘 한다고 입소문이 나서,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니, 제겐 참 도움이 됐죠. 동시에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하실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실제로 대동이나 진례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이곳까지 와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가끔 제가 대동이나 진례에 갈 일이 있는데 거리가 꽤 되는데도 일부러 찾아주시는 거니까요.” 이미 20년 이상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온 셈이다. 가치가게에 딱 맞는 가게지만, 사실 여 대표가 가치가게사업에 선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 가치가게사업 홍보 차 들른 담당자들에게 여러 번 사업 내용을 물어보며 취지를 확인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습지만 처음 사업 소개를 들었을 때는 혹시 이상한 권유가 아닌가 의심도 했어요. 실제로 김해 시청에 전화해서 정말 믿어도 되는 사업인지 확인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담당자가 여러 번 찾아와서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정이 들었는지 마음이 달아서 ‘나눔’ 가치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가치가게 리플릿을 보고 ‘저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들도 있고, 이 자체로 말할 거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가치가게’ 하면 그 자체로 고객들에게 좋은 가게라는 인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스타일을 찾아

오랜 시간 미용 일을 해왔지만 여 대표는 여전히 이 일이 재밌다. 두상도, 모발의 성질도 제각각인 고객들을 만나 그에게 꼭 알맞은 머리 모양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듯하여 대표에게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 같다. “처음 가게를 찾아오신 분들은 보통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

어요. 그동안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맞는 머리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 눈에는 더 나은 스타일이 보여요. 그러면 권유를 드리지만,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다가, 여러 번 얼굴을 보고 친해지면 그제야 ‘미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고 하세요. 그럼 새로운 스타일을 권하죠. 이후 다시 오셔서 ‘새로 한 머리 예쁘다더라’라고 좋아하시면 그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고객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야죠.” 이제 여 대표는 크게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지금처럼 친구이자 가족이 된 고객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 날마다 더 나은 스타일을 고민하고,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고, 고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4~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1년간 가게를 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고객들이 반겨 주셨어요. 그때 고마웠던 마음은 말로 다 못 합니다. 고객들이 저를 기다려줬듯, 저도 이 자리에서 언제나 고객들을 반기고 싶습니다.” ☺️





장수돼지국밥

주소 김해시 가락로38번길 15

전화 055-337-5252



돼지국밥 한 그릇에 나누는 정(情)

뚝배기에 담긴 우윳빛 뽀얀 국물 위로 연기가 피어오른다. 손가락으로 갖 지은 밥 한 공기 푹 퍼서, 보글보글 국물이 끓어오르는 뚝배기에 밥을 담아 꼭꼭 누른다. 양념 된 부추겉절이, 짭조름한 새우젓을 넣고 후춧가루를 톡톡 뿌려 간을 맞춘다. 음식은 자그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밥을 잘 말은 국밥 한 손길을 퍼 '후후' 식혀가며 밥을 먹는다. 맛있게 먹는 한 끼에 세상 부러울 게 없어진다. 손님에게 맛있는 한 끼를 밤낮없이 정성껏 준비하는 곳이 있다. 바로 부원동 '장수돼지국밥'이다.

'성실함'으로 만들어진 국밥 한 그릇

어스름한 오전 5시. 장수돼지국밥 가게 문이 열리고, 조명이 하나들 켜진다. 가게 주방은 부산해진다. 커다란 가마솥에 7~8시간 핏물을 뺀 돼지 뼈다귀 30킬로그램을 쏙고, 물을 가득 받아 한 시간 동안 끓인다. 이후 가마솥에 담긴 물

을 빼고, 새 물을 받는다. 이제는 가스 불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돼지 뼈다귀는 가마솥에서 12시간 동안 푹 끓여진다. 육수를 내는 일을 가스 불에 맡긴 채, 돼지 항정살을 솥에 삶고, 잘 씻은 쌀을 압력밥솥에 안친다. 오전 5시 50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온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시작으로 오후 9시까지 장수돼지국밥에는 수십 명의 손님이 문을 열고 오간다. 장수돼지국밥 안주현 대표가 음식 장사를 한 지는 올해로 26년째다. 부원동 '고향밥상'에서 가정식을 팔기 시작하다, 10년 전 고향밥상 인근에 장수돼지국밥 문을 열었다. "매일 부원동에서 열리는 새벽시장 가서 신선한 채소랑 사골을 사 옵니다. 저는 고향밥상 문을 열고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저희 신랑은 장수돼지국밥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죠. 저와 신랑의 '꾸준함', '성실함'이 저희 식당만의 무기입니다. 도예 하시는 분들은 자기 혼을 담아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매일 같이 혼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 손님께 내요."



식탁에 끓어오는 뽀얀 국물이 담긴 뚝배기, 뜨끈한 밥, 아들 아들한 항정살 수육, 파릇파릇한 부추, 시원한 맛이 일품인 김치가 오른다. 손님이 앉았다간 식탁에 음식 하나 남김없이 깨끗한 그릇만 남았다. '잘 먹고 갑니다'는 손님의 말 한마디, 바닥까지 깨끗한 뚝배기 그릇은 음식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칭찬이자, 보람이다. 안 대표는 "병원에서 퇴원한 손님이 기운 차려야겠다면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맛있게 한 그릇을 드시고 제게 '내가 보약 한 그릇 먹었습니다' 하시더군요. 제가 만든 음식을 잘 드시고 가는 손님을 볼 때마다, 장사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웃었다.

배가 돼 돌아오는 나눔

안 대표는 가게를 찾는 손님에게만 맛있는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그는 20년 전부터 '경남생명의전화'에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나눔을 하고 있다. 나눔은 안 대표 아들의 권유로 시작됐다. 그는 "20년 전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어요. 경남생명의전화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반찬 잘 만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반찬 좀 나눠드리면 안 될까?'하고요. 아들이 기특했어요. 나눔을 안 할 이유도 없었죠"라고 설명했다.

아들의 말 한마디가 반찬 나눔의 계기가 됐지만, 안 대표는 어릴 적부터 나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제삿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제사 음식을 먹고 갔다. 부모님은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안 대표의 어머니는 '음식은 나눠야 배가



된다' 했다. 그는 나눔을 실천하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겼다.

"어머니는 집에 음식이 없을 때는 막걸리 한 잔이라도 동네 사람에게 나누며 사셨어요. 봉사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타인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할 수 없죠. 저는 음식을 나누면 정말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나눈 반찬에 어르신들이 식사 한 끼 맛있게 하셨다면 그것만으로 저도 행복합니다."

오전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장수돼지국밥 가게의 조명이 켜졌다. 늘 같은 시간, 같은 동선을 오가며 안 대표는 손님에게 낼 음식을 준비한다. 그는 장수돼지국밥이 손님들에게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안 대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이 있잖아요. 저는 국밥 한 그릇에 정을 나누고 싶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내 집처럼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만족스러운 웃음이 만개하는 가게가 되었으면 합니다"며 미소 지었다. ☺



다비치안경 보청기 김해부원점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52
전화 055-322-1357
블로그 <https://blog.naver.com/dvc4052>



익숙함에 잊혀진 눈과 귀의 소중함, 일깨워줘요

봄이 되자 뱃나무에 꽃들이 약속이나 한 듯 피어난다. 벚꽃 잎은 바람결을 따라 흩날렸다가, 거리에 벚꽃 비를 뿌린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눈앞에 쏟아지는 벚꽃 비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댄다. 피어나는 꽃들, 흩날리는 꽃잎은 초록빛 새싹에 사람들 마음에는 봄 물결이 일렁인다. 이 모든 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세상을 보는 건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익숙함에 눈의 중요성을 놓치고 한다. 부원동의 다비치안경·보청기 부원점(이하 부원점)은 찾는 고객에게 무료 시각검사를 진행하며, 일상에서 잊고 있던 시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누구나 편하게 검사하는 곳

“새로 맞춘 안경이 잘 보여서 좋다고, 엄지를 들어주실 때 제일 기분이 좋죠.”
최선을 다해 일하고 난 뒤, 누군가에게 그 결과를 인정받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낀다. 안경사이자 다비치안경·보청기



김해부원점 김우영 원장도 고객이 새로운 안경을 맞추고, 기뻐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김 원장은 대학서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뒤, ‘안경사 국가시험’을 쳐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8년 6월 부원점 문을 열었다. 이곳을 찾는 고객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어르신이다. 어르신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안, 난청 등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찾는다. 김 원장은 어르신들을 늘 웃으며 응대한다. 안과를 찾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해, 부원점은 무료 시각, 청각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무료 시각 검사는 예약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고객이 갑자기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료 청력 검사는 전국 다비치안경·보청기 중 저희 부원점만 진행하고 있어요. 청력 검사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시력, 청력 상태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부원점 문을 열고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부원점에는 만 원 정도의 저렴한 안경테부터 명품 브랜드 안경테까지 구비돼 있어, 찾는 고객의 선호에 따라 안경을 살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안경은 열린 유리창에 진열돼 있다. 고객이 마음 편히 자유롭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안경을 선택하고 써보라는 김 원장의 배려다.

그는 “다른 안경원은 안경사가 일일이 안경을 꺼내서 착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안경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부담 가지 않고, 안경사의 참견 없이 자유롭게 써볼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안경도 신발처럼 기능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기를 추천한다. 사람들 대부분 안경 하나를 몇 년 동안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하지만 안경도 실내용, 실외용, 야간 운전용, 운동용, 가까운 거리용, 먼 거리용 등 상황에 따라 쓰임을 달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타까운 건 안경 하나를 가지고 몇 년씩 쓰세요. 시력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데, 시력을 보정하는 안경에는 투자를 안 하시죠. 신발도 등산화, 러닝화, 구두 등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장소와 때에 따라 신발을 맞춰 신죠. 안경도 쓰는 용도에 따라 세 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경 나누며, 따뜻함을 전해요

다비치안경·보청기는 전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이다. 팬더믹 전 각 지점들은 지역별로 봉사단을 꾸려, 노인대학이나 요양병원 등에 무료 안경 나눔을 진행해왔다. 2019년 부원점은 인근 노인대학에 다니시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안경 맞춰드렸다. 김 원장은 “부원동 유동인구층이 대부분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노인대학을 찾았죠. 어르신들에게 무료 안경 나눔을 해드리겠다고 알려드렸더니, 안경 무료 나눔 봉사를 하는 날, 노인대학 건물 강당에 200분이 모이셨더라고요.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안경을 맞춰드렸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새 안경을 맞추고, 다들 기뻐하시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고 회상했다.

부원점은 안경뿐 아니라 보청기도 판매한다. 이곳은 보청

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한 달 무료 체험 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보청기를 처음 쓰시는 분은, 평소 안 들리던 잡음까지 듣다 보니 불편해하세요. 보청기 가격도 선뜻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고객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는 한 달간 보청기를 사용해보시고, 적응하기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청기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주셨으면 해요”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부원점이 고객들이 편하게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랐다. 그는 가치가게에 참여하는 ‘나눔’의 가치를 앞으로 더 자주 실천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도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안경 나눔 봉사활동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께 안경을 무료로 나누며, 따뜻한 마음도 전할 생각입니다”고 밝혔다. ☺️



수작업실

주소 경남 김해시 호계로 452
전화 010-8319-1778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oojakupsil



나눔을 실천하는, 미용실

“아이고, 이제 원장님 유명 인사 되는 거야?”
수작업실 손은수 원장에게 인터뷰 질문을 던지자, 손 원장에게 커트를 받고 있던 손님이 웃으며 말을 건넨다. “인터뷰해서 유명 인사 되려고요. 하하하.” 손 원장이 웃으며 대답하자, 수작업실 안은 웃음꽃이 활짝 폈다. 수작업실을 찾는 손님에게 손 원장은 미용사를 넘어,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이자 누나, 동생이 된다. 부원동의 ‘수작업실’을 찾았다.

환한 미소가 주는 뿌듯함

‘저기 한 번 가볼까?’
시작은 호기심이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열아홉 살의 손 원장은 동네 미용학원의 문을 열었다. ‘머리 만져주는 게 미용인가?’ 궁금증을 안고 미용학원에 등록해 다니기 시



번의 가위질, 빗질로 완성한 머리를 거울로 비춰보며, 만족한 듯 웃음 짓는다. 손 원장은 손님의 웃음, 미소는 그의 가장 큰 보람이다.
손 원장은 “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제가 잘 맞춰드리고, 손님들이 감동할 때 제일 보람되죠. 한 번은 무뚝뚝한 중학생 남자 아이가 왔었는데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행한 엄마는 아이가 그런 머리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지만, 아이 마음을 저도 잘 알기에 열심히 만들어줬죠. 완성 후 그 친구가 엄마가 보지 않는 사이에 엄지를 척 꺼내 들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라며 웃었다.

작했다. 운 좋게 당시 학원 수강생이 많지 않아, 학원 강사와 일대일 수업을 하게 됐다.

“고향은 경북 의성군이에요. 수능 치고 대학 입학까지 여유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미용학원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한 번 등록했는데, 막상 미용을 배워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미용 자격증을 따고 서울의 미용실에 취업했어요.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등 미용실에서 13년 정도 근무하다가 언니가 사는 김해로 내려왔어요.”
김해에 정착한 손 원장은 대형 미용실의 디자이너로 일하다, 2014년 자신의 이름을 건 1인 미용실을 김해시 어방동에 차렸다. 그러다 2019년 7월 부원동에 새롭게 ‘수작업실’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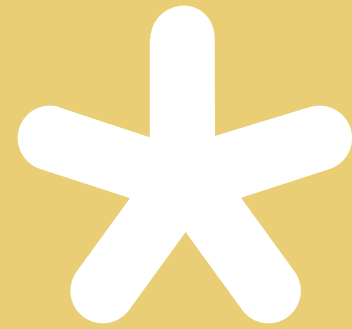
수작업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염색, 커트, 파마 등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손님을 친근하게 맞이해주는 손 원장의 미소 덕분에, 손님들은 머리를 하며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눈다. 손님들은 손 원장의 수습

재능 나눔과 큰 기쁨

“너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손 원장은 미용사 자격증을 딴 이후 스무 살부터 한 달에 한 번 미용봉사를 해왔다. 정신병원, 요양병원, 어르신 유치원 등을 찾아 어르신의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해줬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능이 보탬이 됐다는 뿌듯함, 어르신에게 받는 감동이 그가 꾸준히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주중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1~2시간씩 다녀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은 커트 후 제게 씻은 요구르트 빈 병을 주시더라고요.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가지고 계실 수 없으니, 돈 대신 요구르트 빈 병을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였어요. 갈 때마다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와요. 봉사를 다녀오면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수작업실이 손님들에게 ‘기대감, 설렘’의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랐다. 그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머리를 예쁘게 해주겠지?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데 희열을 느껴요. 동네 주민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찾아오셨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수작업실은 ‘당일 예약’, ‘당일 방문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은 필수다.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으로 수작업실의 예약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
손 원장은 “수작업실을 의자에 앉자마자 손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말하고, 제가 바로 작업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손님의 얼굴형, 머릿결 상태 등을 파악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주실 때 꼭 사전 예약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손 원장의 꿈은 미용실 인근에 미술품 전시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다. 미술을 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미용 봉사도 또 다른 ‘재능 나눔’이다. 손 원장은 “일전에 책과 영상으로 실력 있는 예술가의 그림들이 지하실에서 썩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림을 그리는 실력 있는 아이들은 많지만, 전시공간이 비싸거나, 기회가 없어 그림이 빛을 못 보잖아요. 전시 공간을 만들어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해보고 싶습니다. 수작업실을 많은 분이 찾아주신다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다가오겠죠?”하며 미소 지었다. ☺️

가치 크루



가치크루 =
가치가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멘토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활동가



가치크루 한경동



가치크루 김원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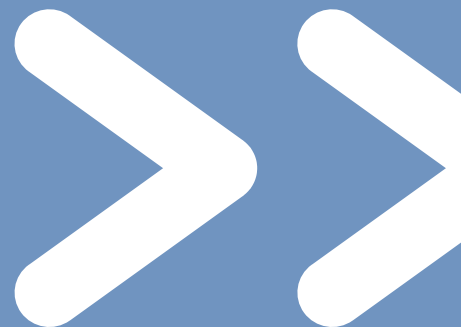
가치크루 신은경



가치크루 김영현



가치크루 이승아



가치크루 서약

하나, 가치가게 공식 활동가는 '가치크루'라는 이름으로 지정한다.
둘, 가치크루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가치가게를 환영한다.
셋, 가치크루는 모니터링을 함께 있어 밝게 웃는 미소로 가치가게 사장님과 마주한다.
넷, 가치크루는 가치가게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바라본다.
다섯, 가치크루와 가치가게를 위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다.
여섯, 가치가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임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가치크루는 가치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들이 김해 전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2022년에도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가치크루 소감

가치크루
한경동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처음 사업을 진행하고 가게들을 찾아갈 때 뭔가 영업사원 같기도 해서 조금 머뭇머뭇 거린 적이 있었는데 한 가게를 방문하니 갑자기 주인장께서 "어!"하고 반갑게 맞이해주시길래 저도 순간 같이 따라서 "어!"하고 아는 척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혹시 저를 아시냐고 물어보았는데, 결론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한 시간 서로 아는 사람인 것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누군지를 알아내기 위해 기억을 더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서로가 누군지 잘 알게 되었지만 기억에 꽤 오래 나고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단어
삶으로 표현 (5개 이상)

#문화다양성
#가치 #은서아빠
#세상은_바뀐다
#재미가_중요

만약 내가 가치가게에 참여한다면?
(가게업종 / 선택가치와 가치실현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가게업종 : 공유 공간
선택가치 : 다양성
가치실현내용 :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이가 편견이나 차별, 장벽 등이 없이 모두가 아름답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가치크루로
기억되고 싶은가?

동네주민 같은 가치크루
단지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동네 주민 같은(?) 이웃 같은 그런 친숙한 크루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해본 2022
가치크루 목표

가치가게에는 정말 멋지고,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분들과 가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멋진 이야기들이 보다 널리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크루가 가져온
내 삶의 변화

항상 많이 배우고 사람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게들을 방문할 때마다 주인공분들이 가진 다양하고 멋진 생각들에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대화들을 통해 주인공분들과 사람간의 관계가 조금 형성된 것뿐인데도 가치가게들이 있는 곳들을 지날 때면 뭔가 즐거운 것이, 내가 사는 곳이 아니지만 뭔가 우리의 추억 속 나의 동네를 걷는 것 같은 즐거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한경동입니다.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하고 좋은 일들을 공유하다보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게들의 작은 가치들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소감

이 활동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직접 가게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다보니 시간이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죠. 하지만 그 발걸음이 무겁기보다 가볍습니다. 가게를 방문할 때 가슴 설레는 묘한 마법 같은 힘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가치가게 프로젝트의 매력 아닐까요?

가치크루 소감

가치크루
김원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광성세탁소 사장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연이 그렇게 될 것이었던 것처럼 휴무일에 잠깐 매장을 들리셨고 짧은 만남에도 저희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셨어요. 그 뒤에 사장님의 사업이야기와 어떻게 김해로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속에 '아, 가치가게로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었어요.

내가 정해본 2022 가치크루 목표

작년에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치가게 네트워킹'에 조금 힘을 써보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각기 다 좋으신 분들이시고,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몇몇 분들은 가치가게라는 이유로 친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종종 왕래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그렇게 가치가게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장님들 스스로 사업에 대한 발표나 가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가득한 2022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활동소감

저는 이번 가치가게활동을 통해 가치가게 사장님들의 인생을 사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히 가치가게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가치가게 사장님들의 인생을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김해지역의 가치를 위해 힘써 오신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고민이 많아질 때면 사장님들은 기가 막히게 제 표정을 읽으시고는 조언을 해주시곤 해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나저나 사장님들께서 본인들의 인생을 너무 싼 값에 주신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ㅎㅎ

#나를 나타내는 단어 솟으로 표현 (5개 이상)

#비추다 #가치가게 #사회적가치
#꿈꾸는 여행자 #가치가게지킴이
#가치여행중

만약 내가 가치가게에 참여한다면? (가게업종 / 선택가치와 가치실현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가게업종 : 식당
선택가치 : 다양성
가치실현내용 : 휠체어 · 지체 · 시·청각 등 장애구분 없이 편하게 진입해서 주문하고 식사 할 수 있는 다양성적인 인프라 제공



어떤 가치크루로 기억되고 싶은가?

꾸준한 손님이요ㅎㅎ
사장님들에게 어떤 크루로 기억이 되어야 가장 반가운 크루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엔 사장님들에게는 단골손님처럼 오래 남을 수 있는 '손님'이 되어야 가장 반갑게 기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업의 담당자가 아니라 손님이 되기 위해 지금도 간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크루가 가져온 내 삶의 변화

- 1) 주말에 가끔 스케줄이 없을 때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홈그라운드가 생겼어요.
- 2) 갑자기 스케줄이 없어지고 고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발붙일 수 있는 동네가 생겼어요.
- 3) 동네 사장님들이 모두 반겨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도 해주시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향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가치가게크루 겸 (주)비추다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진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재미있는 일들, 가치로운 일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가치가게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요.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걸 제일 좋아해요. 가치크루분들과 사장님들은 엄청 많이 만나셨겠지만, 어쩌면 성격상 밖에서 보기 정말 힘든 성격인지도 모르겠네요. 김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가치가게를 통해 종종 인사드리고 할게요~

가치크루 소감

가치크루
신은경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처음에는 낯설어서 무뚝뚝하게 대해주시던 사장님들이 프로젝트 끝날 무렵에는 다들 친해지셔서 가정사를 말씀해주시기도 하고, 신제품 고민을 공유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모니터링 차 들리는 가게마다 먹을 것을 안겨주시는 등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가치가게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 뵈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내가 정해본 2022 가치크루 목표

2022년에는 가치가게 사장님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다른 소상공인의 협업도 이끌어내시는 가치가게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것이 제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가치크루가 가져온 내 삶의 변화

1.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실 가치크루로 활동하기 전에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생각이 경제 관련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게 사장님들과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이분들도 우리와 같은 지역민이시고, 제각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치가게 사장님들과 같은 분들이 지역에 오래 함께 남아있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소비에 대한 가치 변화

개인적으로 소비에 대한 가치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형 마트나 편리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 소상공인들 분들을 도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단어 삶으로 표현 (5개 이상)

#연결 #사람
#소통 #가치
#세상

만약 내가 가치가게에 참여한다면?

(가게업종 / 선택가치와 가치실현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가게업종 : 커뮤니티 센터
선택가치 : 나눔 / 다양성
가치실현내용 :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여 삶과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가치크루로 기억되고 싶은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치가게 사장님들께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연락하고 싶은 그런 크루로 기억되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가치가게 사장님들께서 김해 가치가게로 선정되신걸 기쁨으로 여기시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김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커넥터 신은경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R&D연구원, 퍼실리테이터, 도시재생, 청소년 SDGs교육.... 등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 바쁜 일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치크루로 열심히, 힘차게 2022년에도 달려보겠습니다!!

활동소감

많은 활동 가운데서도 진정 애정 하는 프로젝트 "가치가게"!!!
찐 크루들과 활동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항상 애써주시는 문화도시 한경동과장님, 진예은쌤 그리고 우리 크루들 모두 사랑합니다~~♡

가치크루 소감

가치크루
김영현

가치크루가 가져온 내 삶의 변화

'가치가게'를 통한 내 삶의 변화

가게를 들어서면 가게 사장님의 얼굴을 살피고는 해요.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쉽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만, 하나하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실지를 상상해보는거죠.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굉장한 책임감과 의지,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한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켜내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가치가게를 통해 배웠으니까요.

'가치크루'를 통한 내 삶의 변화

아, 나도 뭔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하고 싶은걸 해볼 수 있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치크루 덕분입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치크루의 시작

참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Go! 원진크루의 "영현쌤 재미있는 일(!) 있는데 같이 해볼래요? 은경쌤이랑, 경동쌤 있어요." 한마디에 시작한 가치크루

가치크루의 과정

정해진 건 없고, 만들 것만 있다. = 할 일이 많다 =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많다.

① 매주 월요일의 회의

처음에는 뜬구름 같던 가치크루 일이 1차가게 인터뷰, 2차가게 방문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매주 월요일 5시에 가치크루가 모여 나누는 이야기가 가치가게에 색깔을 입혀줬다 생각해요. 좋은 가치를 지키며, 마음을 내어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모셨으니 어떻게 가치가게와 함께하면 좋을까를 가장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마음 잘 맞는 가치 크루의 토론 시간이었다 기억해요.

② 한걸 한걸 쌓아가는 만남, 그리고 따뜻함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고, 두 번째는 머쓱했고. 그렇게 오며가며, 인사를 나누었고, 사장님들께서도 시간을 내어, 저 너머에 있던 삶의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치열한 삶의 이야기. 그 속에 녹아있는 지혜들까지. 바쁘게 일어서는데 "잠깐만 있어봐봐"하시며 밥솥에서 연기가 뿜뿜 나는 따뜻한 감자를 건네주시며 "수고가 많다"하시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뭐라도 챙겨주시며, 되려 응원해주던 사장님들. 처음에는 일로 시작했고. 무언가를 드리려고 갔던 곳에, 마음을 가득 채워받고 돌아오는 귀한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③ 인터뷰 영상 촬영 그 후

현장을 돌아다니던 순간들이 참 신기했고, 행복했고, 웃겼고, 재밌었는데. 매순간 기록하지 않아 아쉬운 게 많아요. 통틀어 기억에 남는 것은 인터뷰 촬영이 끝나고, "가치가게를 만난 기회가 너무 고맙다." 말씀해주신 분들.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번 기회로 잠깐 멈추고 되돌아보게 되어 좋다고, 무료한 삶에 특별한 이벤트같다 하셨던 것. 인터뷰 영상을 소장하고 싶다는 말씀에, 휴,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④ 결국은 가게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어지는 곳

그림 그리고, 도자 만드는 공방 제자로 만나,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만남으로 이어지는 곳. 음식과 함께 준비된 정성을 먹고 마시는 곳. 머리를 하고 옷을 맡기며 삶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의 '가게들의 찐가치'를 발견했어요 하나의 가게가 하나의 자리를 지켜내고 모여, 마을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대형마트의 심플한 소비에 익숙해진 제가, 오랜만에 만난 우리동네의 가게는 정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단어 솟으로 표현 (5개 이상)

#사부작사부작 #책임감있는
#사람좋아하는 #아기자기
#어설픈_하고잡이 #적당한거리
#김테일

어떤 가치크루로 기억되고 싶은가?

"책갈피"같은

책을 덮기 전, 다시 보고 싶은 페이지에는 책갈피를 곱게 끼워 놓잖아요. 가치가게를 하며 만난 인연들의 일기장 속, 가끔 종종 다시보고 싶은 페이지 옆에 꽃힌 '책갈피'같은 가치크루로 기억되고 싶어요.

자기소개

1. 어설픈 하고잡이

잘하는 거보다 좋아하는 게 많아
항상 바쁩니다. 사부작사부작
그리고, 쓰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그때그때, 좋은 것과 마주할 때마다
설레합니다.

2. 적당한 거리, 은근한 관심

사람을 참 좋아하지만, 뜨거운
인간관계보다는 무심한 듯 적당한
거리에서 은근하게 관심 받고
은근하게 배려하는 것을 좋아해요.

3. 대신 자랑을 잘합니다.

나의 단점을 극대화해서 생각하는
반면, 남의 장점 찾아, 대신
자랑하는걸 잘합니다. 순간순간의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는 재능이
있어요. *단, 좋은 사람 한정.

만약 내가 가치가게에 참여한다면?

(가게업종 / 선택가치와 가치실현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가게업종 : 또이또이 예술잡화점

선택가치 : 다양성

가치실현내용 : 누구나 작가님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굿즈를 팔 수 있는 곳. 누구나 예술가가 되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곳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활동소감

진심을 다해 시작해 만났고, 진심을 다해 하나의 매듭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사장님들의 삶을 우리는 한조각 정도만 들여다봤다 생각해요. 좋은 가게들과 좋은 사람들이 잘 되는 사례가 되어,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치가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순간순간 감동이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또 함께하는 크루원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가치가게를 통해 만난 인연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정해본 2022 가치크루 목표

좋은사람 + 좋은가게 = 가치가게

가치크루 소감

가치크루
이승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뜻밖의 네트워킹

영현 선생님과 가치가게인 스페이스 봄 공방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다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가치가게(정혜주 슝 공방)가 근처에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만남이 이루어져 다 같이 차도 마시면서 얘기하고, 연락처도 교환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가게의 사장님들이 편한 언니-동생사이로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런 만남들을 보면 가치크루인 우리가 가치가게들의 연결다리가 되어 소중한 인연을 맺어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내가 정해본 2022 가치크루 목표

2022년에는 가치가게 사장님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다른 소상공인의 협업도 이끌어내시는 가치가게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것이 제 목표이자 희망입니다!!!2022년에는 가치가게 사장님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다른 소상공인의 협업도 이끌어내시는 가치가게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것이 제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가치크루가 가져온 내 삶의 변화

1.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다양한가게 방문을 통해 김해에서 거주 혹은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살던 김해가 나에게 어떤 곳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2. 다른 지역의 가게를 방문하면 가치가게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김해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아무래도 가치가게가 제 삶속에 진하게 녹아든 것 같아요.

#나를 나타내는 단어 솟으로 표현 (5개 이상)

#가치크루 #비추다
#비타민없는비타민 #긍정
#솔직

만약 내가 가치가게에 참여한다면? (가게업종 / 선택가치와 가치실현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가게업종 : 디저트카페
선택가치 : 환경
가치실현내용 : 포장을 하려면 무조건 다회용기를
사용해야하고, 텀블러가 없다면 테이크 아웃이 불가능한 카페



어떤 가치크루로 기억되고 싶은가?

오래된 단골손님처럼 친근한 가치크루

오래된 단골손님처럼 기억에 남는 가치크루로 기억되고 싶어요. 활동을 하면서 처음 봐도 친근한 느낌을 주고 대화를 하면서 편안함을 줬다는 느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활동소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또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친절하셔서 편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던 일들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도 많이 됐고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이 옆에서 '잘할 수 있다' 응원도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난다'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일인분 몫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들 바쁜 시간 쪼개서 활동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입사 후 비타민이 필요해진 비추다의 비타민 가치크루 이승아입니다. 활동하는 것 보다 소감 쓰는 게 더 어렵네요 하하하. 실제로는 은근히 낮가리는 발랄한 수다쟁이입니다. 만나면 먼저 아는척해주세요ㅎㅎ 가치가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pilogue

이렇게 지난 2년간 45개의 가치가게가 탄생했습니다.

언젠간 김해 전역에서 가치가게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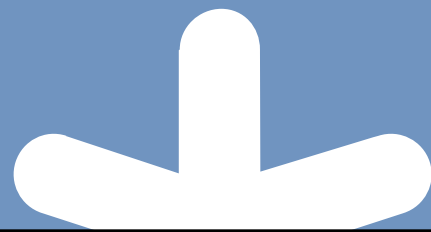
가치가게는 앞으로도 김해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도시의 오래된 미래 가치인
'공존'과 '환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게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했던 작은 사회적 실천,

그걸 실행하는 한걸음이 가치가게를 만들어냅니다.

저희와 함께 가치가게 해요~



2021 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적 실천 프로젝트 '가치가게'

2021 가치가게

발행일 2022년 6월
발행인 김해문화재단대표 손경년
발행처 김해문화도시센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M층
기획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진행 파트장 한경동, 파트원 진예은
문의 055-320-2042
에디터 온윤_김예린 작가, 전은영 작가, 김윤희 작가
이설희 에디터, 권순일 포토그래퍼
가치크루_김원진, 신은경, 김영현, 이승아
디자인 디자인나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김해시
주최/주관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

* 본 책의 저작권은 김해문화도시센터에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자료집은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